



7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7 호

(루계 573)



## ◆◆◆◆◆◆◆◆◆◆ 차 례 ◆◆◆◆◆◆◆◆◆◆

영원한 인민의 수령님 .....	4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	6
영생 (외 1 편) .....	7
1994 년 7 월 19 일 .....	7
붉은 산마루 .....	8
나는 7 월의 병사다 .....	19
빛나는 태양 <b>김일성</b> 동지 .....	20
조선의 자랑 .....	20
태양찬가 .....	21
금수산기념궁전에 오르면... ..	24
영원한 우리 수령 <b>김일성</b> 동지 .....	25
위대한 영생 .....	34
기다리는 마음으로 .....	35
우리 다 알지 못하리 .....	36
부탁 .....	37
신기령 .....	39
만수대동상 (외 1 편) .....	50
편지 .....	50
서울상공에 솟은 장수별 .....	51
명언 .....	52
기억력 .....	53
수령복을 타고났어 (외 1 편) .....	56

꽃송이 .....	56
밤낮을 오르는 너인 .....	57
오늘도 밝게 웃으십니다 .....	61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62
이 탑은 지구우에 하나 .....	66
영생하시네 .....	68
공장총각 .....	69
나의 한생은 .....	77
전호가의 아침 (외 1 편).....	78
고향에 부치는 노래 .....	78
나는 무산자의 아들이였다.....	79
나는 병사출신의 당원이다.....	80

## 영원한 인민의 수령님

장혜명

그리워라 그리워  
이 땅에 7월이 오니  
더더욱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아버이수령님

산천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생각이 나서  
수령님 생각이 나서  
그리움에 타는 마음들

계실 때는 다 몰랐던  
그 사랑에 젖어오고  
그 은덕에 목이 메여  
아버이수령님을 부르며  
만수대로 오르고오르는 마음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도 멀어지고  
아픈 상처도 가셔진나 했건만  
온 한해  
가슴속에 사무쳤고  
더 뚜렷이 새겨진 수령님 그 영상

진실을 말해보자, 인민이어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수령님을 못잊어하며  
무엇으로 하여 수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차계시는것이더나

인민의 마음속엔 결코  
힘으로는 들어설수 없는것  
애원과 돈으로도  
인민의 진정은 살수 없는것

수령님 생애의 80여성상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인민을 떠나 사신적 있었다면  
수령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  
이다지는 절절하지 않으리

단 한번 인민의 눈동자에  
다른 모습으로 비친적 있었다면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님은

이처럼 가까이 계시지 못하였으리

추녀났은 만경대초가집에서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인민과 고락을 함께 하신  
인민의 수령님

나라를 찾으려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실 때도  
수령님은 인민의 아들  
개신장군으로 돌아오셨을 때도  
수령님은 《룡상》이 아니라  
인민속으로 찾아오신 인민의 장군

인민은 수령님을 태양으로 받들었어도  
수령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았노라  
인민의 머리우에가 아니라  
언제나 인민속에 계시며  
기쁨도 슬픔도 인민과 함께 하신분

돌이켜보면  
수령님을 잃고 보낸 세월속에  
인민은 수령님을 더 잘 알았고  
날과 날이 흐를수록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아버이모습으로 더욱 가까이 오셨나니

아버이모습이라도  
우리 수령님의 모습은  
자신을 다 바쳐 강그리 다 바쳐  
사랑만을 안겨주신  
친아버지의 모습

이 나라 수천만 인민을  
자식으로 거느리시고  
어느 하루 마음편한 날인들 있으셨던가  
언제한번 마음놓고 휴식인들 해보셨던가

수령님이신들 왜 잠이 그리우신적 없고  
쉬고싶으신 때가 없으셨으랴만  
인민때문에  
늘 인민때문에  
늦잠 한번 주무신적 없이  
아침이면 제일먼저 일어나시고

밤이면 제일 늦게 잠드신분

그밤에 보아온 수령님의 모습은  
새벽이슬에 옷자락 적시시며  
자식들보다 먼저  
공장의 구내길에  
농장의 들길에 걸어가시던  
부지런한 아버지의 모습

그밤에 보아온 수령님의 모습은  
인민의 단잠을 지키시며  
달리는 차안에서 쪽잠마저 아끼시고  
때로는 강냉이 한이삭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자식들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끝없는 현지도의 길 이어가시던  
정깊은 아버지의 그 모습

해 뜨는 아침이면  
그런 아침이어서  
더 생각나고...  
별돈는 밤이면  
그런 밤이어서  
또 그리워지고

눈오는 날이면  
이 땅에 내리는 찬눈을  
어깨에 다 맞으시던 그 모습  
무더운 날이면  
한잎 농립모로 피약별을 가리우시고  
농장길 걸어가시던 그 모습

아, 오고가는 계절이면  
그 계절에  
흘러가는 나날이면  
그 모든 낮과 밤들에  
뜨겁게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여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저려오는  
지난해 7월의 그 한낮  
우리 수령님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모습도  
인민생활을 두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었나니

하늘이 무너진들 그 모습 잊으랴  
세상의 누가, 그 무엇이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울수 있더냐

즐거운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잃지 않으신 그 모습  
끓으신 날에도  
생애의 마지막날까지도  
변함없으신 그 모습

고결한 그 모습앞에서  
온 세계가 머리숙이는  
우리 수령님은  
세상에 단 한분 인민의 아버지  
력사에 오직 한분 인민의 수령님

정녕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  
부모와 자식처럼  
이 나라 모든 인민들과  
숨결로 마음을 이으시고  
피줄로 운명을 잇고사신  
인민의 아버지

세월의 락엽도  
이 모습우에만은 내리지 못해  
피눈물의 그 여름날부터  
한해가 지났건만  
수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리도 가까이 계시는것 아니냐!

아버지라도 우리 수령님은  
생전에 줄수 있는것은 다 주시고  
세상을 떠나신 오늘에도  
자식들의 앞길이 어둡지 말라고  
자신과 똑같은 **김정일** 동지를  
우리앞에 아버지로 내세워주신  
영원한 인민의 아버지

또 한분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기에  
눈물에 스러졌던 꽃들도  
이 여름 예대로 피어나고  
인민은 피눈물을 딛고 일어나  
천백배로 더욱 억세어진것 아니더냐!

그렇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  
그이는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덕성도  
수령님 모습 그대로이신  
인민의 령도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수령님 모습 그대로이신  
인민의 어버이

수령님 심혈다해 피우신 아름다운 꽃이며  
한평생의 열매인  
인민이 주인으로 사는 사회주의를 지켜  
력사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수령님 모습 그대로이신  
강철의 령장, 인민의 수호자

하기에  
우리 가는 길은  
오늘도 변함없이  
수령님 가리키신 주체의 그 한길

변함없어라  
주체위업의 한길에서  
높뛰는 숨결도  
고동치는 맥박도  
수령님 심장에 맞추었던  
그 숨결  
그 맥박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모습에서  
수령님의 그 모습 다 받아안고  
천세만세 수령님만을  
태양으로 받드시는 그 숭고한 의리로 하여  
수령님은 영원히  
태양으로 빛나시거니

어둡지 않아라  
이해의 여름은  
낮설지 않아라  
이 해의 7월은

오히려  
그 어느때보다 인민은  
수령님을 더 뜨겁게 생각하고  
심장은 맹세로 불타거니

보시라  
도도히 굽이쳐나아가는  
주체위업의 장엄한 진군의 대오를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길에  
행복한 날의 백날보다  
어려운 날 하루를 따르는 충신이 되리라  
수령님 동상아래서  
천만심장이 다지는 맹세를

우리는 꽃피우리라  
7월의 이 맹세로  
해마다 풍년이삭 익히며  
쇠물을 녹이고 발전기를 돌리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을 떨치리라

불타는 맹세속에  
찬란한 향도의 빛발아래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영상  
더더욱 가까이 안겨오나니

아아, 이 땅에  
그리움의 7월만이 있어라  
맹세의 7월만이 있어라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사

##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최로사

성스런 령전에서 다진 그 맹세  
의리로 목숨으로 지키여가자  
유훈을 빛내어나가는 길에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 손길 따라 싸운 전사들답게  
그 품에 자라난 제자들답게

내 조국 부강 위해 나가는 길에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사상도 령도도 높은 덕성도  
수령님 그대로이신 장군님  
충효일심 받들어나가는 길에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

## 영생 외 1 편

안정기

무명 두루마기에 학생모 쓰시고  
고향집 사립문을 떠나실 때  
수령님 지니신것은  
전대에 매달린 짚신 두켤레였다  
  
빈몸으로 떠나시여  
신고와 눈물 피와 불을 넘어  
안고오신것은  
조국, 민족, 주체의 위대한 재부였다  
  
이어 장장 반세기  
비바람 불바람 다 헤치시여  
그 재부우에 락원을 엮으시고

사회주의강국의 보루를 쌓아올리시였다  
  
온 세상 다 얻으시고 정녕 가실 때엔  
열네살 그날처럼 빈몸이시였다  
한평생 이룩하신 그 많은것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남겨주셨으니...  
  
허나 우리 수령님  
자신도 모르시게 지니고계시였다  
만년을 살아 지닐수 없는 그 하나  
민족과 인류와 력사가 준  
영생! 그 하나를

## 1994 년 7 월 19 일

1994 년 7 월 19 일  
이날은 세월이 흐름을 멈춘 날  
하늘이 열려 가장 어둡고  
땅이 생겨 가장 슬픈 날  
  
비오고 눈이 오는 80 여성상  
세상고초 다 겪으시며  
세상눈물 다 흘리시며  
인민을 품에 안고  
정으로 사랑으로 살아오신 수령님  
  
우리 수령님 못가신다고  
우릴 두고 못가신다고  
가슴치며 몸부림치던 인민들  
수도의 거리와 광장들을 짝 메운

이날은 영결의 날 눈물홍수의 날  
  
한번 더 뵈옵고싶어  
몸가까이 있고싶어  
온 나라 온 민족 온 인류의 마음이  
가시는 연도에 무릎꿇고 앓았건만  
  
가슴터지는 이날의 이 시각조차  
우리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나오시였다  
창창한 미래를 열어주신 이 땅에  
한점의 그늘마저 비길세라  
봄날처럼 해빛처럼 더 밝게 웃으시며  
  
아, 이 순간 이 행성우엔  
한분만 웃으시고 전세계가 울었다

## 붉은 산마루

방정강

## 1

봄날같이 따스한 2월의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

전국농업대회의 첫날회의지도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휴게실에서 영광군 자동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춘임을 부르시었다.

그 녀성은 세해전에 편지를 보내왔었다.

수령님께서는 옛 신흥탄광마을의 관리위원장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첫 구절에서부터 마음 끌리시었다. 편지에는 농장에서 부족되는 화학비료며 자동차, 트랙토르가 여러대 필요하다는것과 마을에 인민학교를 새로 크게 지어주었으면 하는 소청이 또박또박 씌여있었다.

(어떤 녀성일까?)

그 녀성을 만나보고싶으시였으나 좀처럼 시간을 낼수 없으신 수령님께서는 해당부문 일군들을 불러 그 녀성이 제기한 문제를 죄다 풀어주라고 말씀하시었다. 그 녀성은 토론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기의 외람된 편지를 받으시고 닦할대신 오히려 세간난 딸자식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수많은 화학비료며 화물자동차, 트랙토르를 보내주시어 농사도 잘 짓고 새로 일떠선 학교에서 마을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리하여 치하도 하시고 고무도 주신 수령님께서는 더더욱 호감을 가지시고 그를 몸가까이에 불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수한 회색치마저고리를 입은 천대여섯은 뻗음직한 녀인이 휴게실로 들어서자 그 얼굴이며 몸가짐을 유심히 여겨보시었다.

녀인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두어걸음앞에 이르러 《수령님!》 하고 목매며 뇌이며 두손을 마주잡고 허리를 굽히는것이였다.

오랜 날을 기다려온듯 녀인의 눈곱에서 눈물이 번뜩이고 흰 이가 조금 드러나보이는 입술이 실룩이고있었다.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향유 찾아보게 되는 격양된 감정이 얼굴에 그려져있었다.

《아, 신흥탄광마을 관리위원장동무입니까? 어서 이리 가까이 오시오.》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에 까맣까맣 탄 그의 손을 따듯이 잡아 자신의 곁에 앉히시었다. 녀인은 송구스러워 긴 쏘파의 한귀에 두다리를 모으고서 엉겨주춤 앉았다.

《편안히 앉으시오. 참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녀

성의 몸으로 한개 농장살림을 맡아본다는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관리위원장사업을 몇해째 합니까?》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녀인을 바라보시었다.

《수령님, 협동조합이 통합되던 그 다음해부터... 인젠 10년째...》

수령님께서는 녀인의 대답을 만족스럽게 들으시고 말씀하시었다.

《강산이 변하는 10년이라... 일을 많이 했군. 그럼 관리위원장동문 그 마을에서 해방전에 일어난 신흥탄광과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겠구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인쪽으로 몸을 약간 돌리시었다. 녀인은 두손을 모아쥐고 머리를 살며시 숙이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네에... 저의 주인한테서 가끔 그때 일을 들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등받이에서 몸을 바로세우시고 녀인의 말을 되뇌이시며 물으시었다.

《주인한테서? 주인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수령님, 주홍준이라고... 지난 전쟁때에 비료공장을 지키다가 그만...》

《뭘-요? 신흥 홍준이... 홍남시당위원장을 하던... 그 홍준이가 동무의 남편이란말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녀성관리위원장은 수령님께서 자기 주인을 알고 계시자 못내 감격에 겨워 눈가에 고름끈을 가져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억에 잠겨 가리마가 반듯이 난 녀인의 머리며 해별에 감실감실하여진 얼굴을 찬찬히 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허허... 그럼 동무가 우리가 신흥에 갔을 때 그 열두성촌집 부엌에서 농마국수를 말던... 늦바리에 국수를 듬뿍 말아주던... 알만하오.》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흥분되시어 말씀을 빨리 뇌이시었다.

김춘임은 수령님께서 자기까지 알아보시자 너무 기뻐 쏘파의 앞쪽에 금시 떨어질듯 나앉으며 말씀드리었다.

《수령님, 그게 언제 일이라고... 제가 그때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머리카락이 유별스레 고슬고슬하여 홍준이라는 본이름보다 주교수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곤하던 남편을 이 60년대가 저물어



가는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고계시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불이 다 발깃해진 김춘임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때 내가 신흥에 대원들을 데리고 며칠 가있었습니다.… 신흥탄광의 뒤쪽 산마루에서 전민항쟁준비를 할데 대한 중요한 회의를 하였는데 내가 연설을 마치자 주홍준동무를 비롯한 국내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은 조국광복이 다 된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깊은 회고에 잠기시였다. 동오골의 사령부귀틀막이며 붉은기가 휘날리던 삼발산마루!

붉은 기폭아래 두주먹을 틀어쥐고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군상처럼 그려지신다. 수령님께서는 두 눈을 가느스름히 좁히시였다.

## 2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있었다.

따스한 해월에 노그라져 잠풍하던 숲이 설레이었다. 바람은 저녁차비새를 하는지 소나무며 참나무의 가지들을 흔들었다. 나무잎들이 와스스며는 소리가 확연히 들려오자 사령부귀틀막에서 글을 쓰고계시던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 **김일성** 동지께서는 만년필을 잠시 놓으시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어보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래일아침에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국내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에서 하실 연설문을 쓰고계시였다.

그제저녁 사령관동지께서는 수수한 양복차림으로 몇명 경위대원들을 데리시고 부전령기슭의 뒤덕봉밀영을 떠나 여기 동오골밀영에 이르시였다.

벼르고 별려서 찾아온 신흥탄광의 뒤산골짜기에서인지 숲이며 공기며 물맛까지 유정한 산천이였다.

하루 먼저 이곳에 도착한 기관총소대의 분대원들이 귀틀막을 지은 솜씨가 우선 마음에 드시였다.

귀틀막은 저 백두산밀영의 사령부귀틀집보다는 작았지만 어벌쪽지가 크게 지었다.

막안은 여럿이 오갈수 있게 편편히 트락처럼 닦아져있었고 글을 쓸수 있게끔 통나무책상이며 결상도 만들어놓았다. 어데서 들이다났는지 큼직한 네모난 돌들을 눕혀놓고 세워도 놓은 작식터도 있었다. 그 가까이에는 하늘의 흰구름송이들도 버섯처럼 동동 떠서 노는 샘물터도 있다. 참으로 명당자리였다.

(이 숲속에서 겨울이라도 내려나보군.)

사령관동지께서는 첫날에 벌써 대원들의 바늘끝 같은 솜씨에 내심 탄복했었다.

가을바람에 솔방울들이 그 무슨 음가락소리를 내는듯 달랑달랑거린다. 새들이 푸룩푸룩 귀틀막 지붕에도 날아와 깃을 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회중시계를 양복 안주머니에 도로 넣으시고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어제 아침 이 귀틀막에서 만난 조국광복회 지회책임자들의 모습이 어려드시였다.

함흥, 홍남, 원산… 국내 각지에서 그들은 후더운 열기를 안고 모여들었다. 그가운데서 신흥탄광에서 목재상을 하는 반일회책임자인 키가 꺾두룩한, 공단조끼를 입은 주홍준의 하관이 긴 얼굴은 퍼그나 인상적이었다. 그는 1930년 6월 전국에 들썩했던 신흥탄광폭동 지도자의 한사람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을 귀틀막앞에서 따로 만나주시였다. 폭동의 거세찬 바람이 휩쓸고 간 이래 7년세월 그는 왜놈들을 옥옥 버리며 또다시 놈들과 한번 대판 싸울 기회를 노리고있었다.

주홍준은 한때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으로 법정대학을 다니였었다. 그는 좌익서적을 탐독하며 학생운동의 선두에 섰었다. 그러던중 홍준은 대학가에 불온사상을 고취하며 공청사건에 관계하였다는 《죄》로 일제경찰에 잡혀들어가 악형을 치르였다.

대학에서 쫓겨나 고국으로 돌아온 홍준은 왜놈들이라면 장작개비로 개대가리 후려치듯 답새기고 싶어 눈에서 불이 일군하는 사람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일찌기 김혁이한테서 처음으로 신흥고수, 주고수라는 손탁이 센 청년이 있다는 말을 들으신적이 있었다. 지난달 이곳에 파견한 정치공작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는 우정 결보기 좋게 목재상을 하며 해산, 신갈과쪽으로 자주 드나든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 우리 공작원들을 만나 그는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틀막앞 통나무결상에 주홍준이와 나란히 앉으시였다. 그는 우물이라도 들어서 꿀꺽꿀꺽 마실 단기가 있는 사람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신흥탄광로동자들의 폭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여주시며 과업으로부터 폭동으로 번저간 투쟁이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 까닭을 하나하나 까밝혀주시자 그는 연해연방 가슴을 쳤다.

《고맙소. 혁명군지휘관동지! 눈이 다 번쩍 뜨이오. 내 이제 비로소 컴컴한 갱막장에서 바깥세상에 나온것 같소. 내 사생결단으로 왜놈들과 싸우겠소. 날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천출명인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시오. 내 지금껏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헤매였소. 꼭 만나게 해주시오.》

그는 방금 가라말을 타고 먼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꺽꺽 몰아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가 숨을 가라앉힐 때까지 짐짓 기다리시였다가 그의 말잔등같이 평퍼짐한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였다.

《여보, 홍준동무, 동무는 말끝마다 **〈김일성장군〉**, **〈김일성장군〉** 하는데 대관절 김장군 혼자서 어

떻게 발톱까지 무장한 일체의 백만 관동군을 처  
이기겠소. 허허… 이것 보오. **김일성** 장군도 동무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오.》

주홍준의 검은 눈썹이 단막에 꿈틀 일어섰다.  
《허 참, 지휘관동지두… 우리 민족의 정통령이  
신 **김일성** 장군님을 어떻게 아시고 그런 외람된  
말을 함부로 탕탕 하시오. 우리 장군님의 축지법,  
동성서격에 녹아나는 〈무적황군〉의 꼬락서니를  
못보았소? 그리구 하필이면 우리 김장군님께서  
백두산 에 덕 앉으시여 부하들을 내려보내면 될  
일을 가지고 나같은 시골뜨기 목상을 찾아다니신  
단 말이요?!》

주홍준의 수복한 눈썹이 이번에는 아예 얼굴전  
체에서 일어섬더 바람에 불리는듯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마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을 쓸어넘기시며 껄껄 웃으시었다.

《주홍준동무, 그렇게도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만나고싶소?》

사령관동지께서 상냥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물  
으시자 주홍준은 통나무결상이 들썩하게 궁둥방  
아를 찼었다. 그는 황급히 사령관동지앞에 일어  
서며 가차없이 손을 뻗혀 내저었다.

《지휘관동지가 보자보자하니 점점 한다 하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성함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시오. 허 참!》

주홍준은 말뚝같이 긴 다리를 털썩 들어 움쭉  
뒤돌아앉는다. 그는 조끼주머니에서 끈에 달아  
돌돌 감아맨 싹지를 무릎우에 풀어놓고 일초를  
한대 막잠누에처럼 두툼하게 말아 풀썩풀썩 피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노기가 가라앉기를 잠  
자코 기다리시었다. 이렇듯 자신을 만나고저 피  
더운 가슴을 치는 사람과 통성을 하지 않으시고  
는 못견딜 심정이시었다. 그이께서는 주홍준이쪽  
으로 돌아앉으시며 그의 손을 덥석 잡아쥐시었  
다.

《주홍준동무, 우리 함께 동지가 되어 왜놈들과  
싸웁시다. 내가 **김일성**이요. 난 동무를 만나러  
왔었소.》

《에?! 아- 아니- 세상에 이런…》

홍준은 입에 물었던 담배대를 얼른 비벼끄고  
통나무결상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뜻밖의 일  
에 입을 형-하니 벌린채로 다물줄을 몰랐다. 거  
무턱막한 불끈속들이 푸들쭉푸들쭉 뛰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두팔을 높이 들어올리었다가 내  
리우며 락엽이 깔린 축축한 땅에 무릎을 꿇었다.

《**김일성** 장군님! 장군님을 알아뵈옵지 못한 이  
못난 백성을 용서하여주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었다.

《이러지 마오. 나이도 아랜 젊은 사람한테. 내  
이래서 처음부터 자기 소개를 그저 혁명군지휘관  
이라고 한거요.》

주홍준은 어깨를 흐느흐느 떨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곁에  
앉히시었다.

《홍준동무, 반일회를 책임지고 그새 수고가 많  
았소. 내 듣자니 반일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고들 하던데 어떻소?》

사령관동지께서 물으시자 주홍준은 지금껏 속  
이고있던 머리를 들었다.

《장군님, 지난달보다 이달에는 회원이 열사람  
이나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등사기로 조  
국광복회 10대강령을 찍어가지고 갱막장에 들어  
가…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면에 밝은 표정을 지으시었다.

《홍준동무, 관을 크게 벌리면서 잘하누만. 탄광  
로동계급답소. 헌데 그런데가 뭐요. 어디 속에 품  
지 말고 그 〈그런데〉 보파리를 풀어놓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을 치하하시며 그가  
서슴지 않고 말하도록 마음을 안정시켜주시었다.  
주홍준의 기쁜 얼굴에 짙은 수심의 그늘이 드  
리워져있었다.

《장군님, 전 혁명군에 가서 기관총을 메고다닐  
재목이지 회장재목은… 글썽 열두성춘사람들을  
화합하기가… 산지사방에서 모여와 살다보니 찍  
하면 다투고… 처녀총각이 눈이 맞아 돌아가도  
부모들은 성씨가 어떻소, 궁합이 안맞소 하며 서  
로 사돈을 맺지 않으려고 티각태각하고… 장군님,  
참 어쩔수가 없습니다.》

주홍준은 한숨을 《후-》 하고 내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의기소침해 앉아있는 홍준을  
부드러운 눈길로 보시며 말씀하시었다.

《홍준동무, 반일회사업은 파업을 일으키듯 몽  
둥이를 들고 하는 사업이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  
속을 파고들어가면서 묘리가 있게 해야 하오. 왜  
홍준동무가 회장재목이 못되겠소. 남들이 못한  
대학공부도 하고 왜놈들과 사생결단으로 싸워도  
봤는데. 난 홍준동무를 조국광복회 기둥재목으로  
보았었소.》

주홍준은 어안이 벙벙해서 눈을 습벅이었다.

《장군님, 제가요?》

《그렇소. 글은 배워뒀다 어디에 써먹겠소. 군중  
을 각성시켜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돈있  
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한몫 바쳐 광복성업에 나서자고 하지 않았습니  
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수긋이 숙  
였던 머리를 쳐드는 주홍준을 미더운 눈길로 바  
라보시었다. 눈썹꼬리가 강한 흥분을 안고 펴고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음을 가다듬듯 자리를 고  
쳐앉는 주홍준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홍준동무, 우리 열두성춘문제를 함께 풀어봅  
시다.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는 웃사람의 말을 잘

듣는 미덕이 있는데 좌상계에 들어갑시다. 한 가문에서도 좌상이 올방자를 틀고앉아 장죽을 퍽퍽 두드리며 혼시를 한마디 하면 움짱을 못하거든... 어쩡소, 그렇지 않소?》

《!》

사령관동지께서 좌상로인의 장죽 두드리는 시늉을 어찌나 방불하게 하시는지 홍준의 두툼한 입술이 병긋이 열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의 얼굴에 눈그루를 박으시었다.

《홍준동무, 우리 래일저녁 열두성촌에 가서 열두성씨의 좌상로인들을 만나봅시다.》

《예?!》

주홍준은 갑자기 초풍을 만난 사람처럼 몸을 와뜰 떨었다. 그는 얼굴마저 벌거우리해져서 두손을 막 저었다.

《장군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못가십니다. 원참 장군님두... 그 열두성촌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라구... 장군님 그 일만은...》

사령관동지께서는 불시에 목소리까지 달라진듯한 홍준의 불안이 잔뜩 어린 말을 들으시며 짐짓 우선우선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허허... 홍준동무, 폭동군중의 앞장에서 머리수건을 질끈 동이고 내달리던 사람이 왜 이 모양이오. 내 걱정은 마오. 혁명을 하려면 우선 사람을 믿어야 하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오. 제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단돈 몇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여기 탄광으로 온 불쌍한 조선사람들인데... 그 좌상로인들을 믿읍시다. 그 로인들과 한 자리에 앉읍시다.》

사령관동지의 음성은 그 어느때보다 절절하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차차로 마음이 온화하여지는 주홍준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홍준동무, 모임은 좌상들가운데서도 나이가 제일 우인 로인의 집에서 합시다. 나이도 그중 많고 탄광마을에서 덕망도 있는 로인이면 더욱 좋습니다.》

주홍준은 비로소 얼굴에 희색을 지었다. 그는 좌상로인들을 한사람한사람 더듬어보는듯 두눈을 껌벅이다가 사령관동지에게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그런 로인이 있습니다. 우리 동발목장 경비를 서는... 신수도 보고... 풍수에 밝은... 박명국이라구...》

처음 자신스럽던 홍준의 목소리가 점점 기여들어갔다. 《신수》며 《풍수》소리에 저도 몰래 걱정기가 있는것이 험동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홍준의 마음을 녹았해주시었다.

《신수도 보고 풍수에 밝은 로인이라면 우정이라도 찾아가서 만나보고싶은 노은이군. 나는 원래 인간의 운명을 타고난것으로, 미리부터 정해진것으로 보는 숙명론적인 견해를 달가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산천지리에 밝은 리치

를 알고있어 우리 인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좋은 일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달짝지근한 향기가 풍겨오는 참살나무숲에 시선을 보내고계시었다. 근엄한 표정이 미간에 떠도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주홍준을 보시며 낮으나 힘찬 목소리로 외우시었다.

《홍준동무, 동무는 탄광로동계급이 사는 마을에서 반일회사업을 하고있소. 동무의 어깨가 무겁소. 그 마을은 신흥탄광촌에 한한 마을이 아니요.》

《네?!》

주홍준은 사령관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몰라 눈망울을 굴리며 가느다란 입안소리를 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통나무결상에서 결연히 일어서시며 말씀하시었다.

《열두성촌은 말하자면 한 마을만이 아닌 우리 조선 13도가 들어있는, 왜놈들에게 짓눌려사는 이 나라의 모든 마을이 들어있는 독특한 마을이요. 그러므로 이 마을에서 광복의 해불을 높이 들어야 하겠소. 동무가 지금 큰일을 맡아하고있소. 래일 저녁 우리 박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집시다.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책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었고 들을수도 없었던 새로운 말씀이시었다. 주홍준은 멍하니 통나무결상에 앉아있을수 없었다. 하여 그는 자리를 박차듯 딛고 일어섰다.

《장군님!》

그는 말문이 막혀버린 사람처럼 장군님께 자기의 마음속을 터놓지 못하고 가슴만 가쁘게 오르내리었다.

아, 내 지금껏 그 무슨 일을 했었는가.

고작 했다는게 범정대학시절의 친구들을 통해 얻어들인 등사기며 등사잉크... 누리에 붙는 불이 될 글은 왜 못써... 왜서 온 탄광을 장군님 조국광복회 두리에 못묶어세워...

그의 기름한 얼굴에서는 회오의 빛이 질게 그려져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애무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었다.

바람은 나무잎들을 세차게 흔들었다. 고삭은 나무가지들이 꺾이며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만년필을 드시고 깊은 사색에 잠겨계시었다. 간악한 일제의 총검의 숲을 헤치시며 조국으로 나을 용단을 분연히 내리시였기에 목격하게 되는 엄연한 현실이였다. 저 만주광야 설한풍속에서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이 얼어죽고 굶어죽으며 전멸된것이 아니라 일제 관동군 74련대가 도사리고있는 함흥이 50리안팎인 이 중부조선, 원주의 아성에 육박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시었다.

어제 주홍준을 만나주신 다음 사령관동지께서는 탄광으로 내려가시려고 대마직로동복을 입으

시키고 귀틀막을 나서시었다. 그러자 사령부의 전령병들은 일시에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못내려가십니다.》

《이러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어깨를 쓸어주시며 타이르시었다.

《동무들, 가야 하오. 내려가야 하오. 이번 걸음이 어떤 걸음인줄 아오. 인민들이 지금 나를 보고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을 겨우 설복하시었다. 탄광에 내려가 탄광로동계급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로동운동문제를 론할수 없다.

백두산기슭에서 국내지하공작원들을 불러 하여도 될 회의를 왜서 여기 삼발산마루에서 하려고 하는가. 우리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여기 이 중부조선에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보천보의 불길이 압록강기슭에서만 아니라 이 산마루에서 활활 타올라야 한다. ...

경위대원들은 눈물을 삼키며 따라섰다.

거무스한 탄광의 갱구며 권양기장, 검탄소며 펌프장... 두다리를 벌디디고 금시 쓰러질듯 덜커덩 덜커덩 탄차를 밀어가는 탄부들의 활동같이 굵은 등어리...

일찌기 조선의 근면한 농민의 보습날에 패여 지구의 걸층으로 뒤집혀나온 석탄덩어리가 발견되면서부터 이 나라의 재부가 아닌 강도 일제의 것으로 되었다. 아라비아 게이다로가 조선총독부

광업국에 허가신청서를 낸것으로부터 제국탄업주식회사 의 소유물로 된 신흥탄광은 1930년대 초에 이르러 요시다의 손에서 개발에 열을 올리다가 드센 파업, 파괴적인 폭동으로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그 뒤 탄광은 악착한 고가시광주에게 넘겨져서 천여명 조선인탄부들과 계절로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었다. 철길이 놓여지고 증기기관차가 내달리며 발열량이 높은 석탄은 왜놈들의 군수탄으로 일본 본토에까지 실려갔다.

가슴 미여지도록 아픈 수난의 참상이었다. 이 해빛을 모르는 거무스한 탄광촌에 조국광복의 숨결이 거세차게 맥박뛰게 해야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만년필을 틀어쥐시고 연설문을 마무리해가시었다. 글줄들이 종이장우에서 비스듬히 가로놓여지며 산병선을 친다. 드디어 그이께서는 마지막문장을 맺으시고 감탄부호를 찍으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만년필을 진곤색양복의 옷주머니에 꽂으시고 덮개를 내려놓으신 다음 이어 군용지도를 통나무책상우에 퍼놓으시었다.

동오골, 성지골, 삼발산이 다가들듯 눈에 안겨들었다. 세개의 산봉우리중에서 산삼이 많이 난다고 하여 삼발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주봉을 이루었다. 해발고는 800미터로 그리 높지 않아도 이 주봉에서는 아근의 함흥, 홍남 일대가 개활지대로 열려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붉은색연필을 드시고 작전지도의 적갈색등고선을 구불구불 따르시다가 삼발산마루의 정점에 동그라미를 그으시었다. 순간 산마루는 광복의 거봉으로 눈부시게 솟아오르는 듯하였다. 가을바람이 들크무레한 산열매향기를 안고 불어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틀막을 나서시면서 옷양복의 목깃을 더놓으시었다.

### 3

성지골 초입의 열두성촌 박명국로인의 초가집은 집이 생겨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앉기는 처음이었다. 문설주에는 지짐판같이 둥그런 반사경이 달린 간데라도 달아놓아 집안은 낮처럼 환하였다.

오늘저녁에는 열두성씨의 좌상계로인들과 함께 탄광 반일회원들도 일여덟명 왔었다. 그들은 빼금빼금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관을 벌리고있었다.

오늘 회합은 목재상 주홍준이 한사람한사람 찾아가서 불러왔는데 실은 요즘 동발목장사가 잘되어 제가 어르신네들에게 한턱 낸다는 명목밑에 이루어졌다. 홍준은 얼굴에 노상 웃음을 피웠다.

왜서 진작 이런 회합을 하지 못했담. 오늘밤 회합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참석하신다. 그는 발에 날개가 돈혀 장달음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장군님의 말씀을 곱씹어외었다.

《난 홍준동무를 조국광복회 기동재목으로 보았소.》

가슴이 화로불을 안은것처럼 막 뜨거워왔다. 목재로 비기면 지붕의 서까래로나마 쓸 존재를 장군님께서는 것처럼 애지중지 아껴주신다. 이런 행운이 한생에 또 언제 있겠는가. 그는 전심을 다 하고저 바빠 돌았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시기전에 모든 준비를 말짱 해놓아야 했다. 부엌간은 뜬 김이 구름발처럼 서려올랐다. 주홍준이 가평면 장마당에 가서 농마두말을 사오고 또 장땡 다섯마리에 산나물이며 고등어, 가재미도 생물로 한두름씩 사와서 음식간이 흥성흥성하였다.

그는 나흘전에 홍남친정집에 몸을 풀러 간안해 김춘임을 한밤중에 마차를 얻어가지고 가서 데려왔다. 안해의 음식만드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마을사람들이 몇번 집에 와서 대접받아보고 안해의 손에 음식을 달게 하는 약이 있다고들 했는데 그게 실없는 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홍준의 속구구는 따로 있었다.

《여보, 집에 가서 몸을 푸오. 귀한 손님이 온다오. 마차를 가지고왔소.》

《네?! 귀한분이라니 어떤분이기에...》 -

춘임은 얼굴이 부해서 홍준을 쳐다보았다. 홍준은 안해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눈을 꼭 감았다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을 두툼한 입가에 가

저다 바로세웠다. 안해의 눈에 생기가 확 돌아왔다. 반일회원으로 눈썰미가 빠른 안해는 해산예정기를 막무가내로 여기고 따라왔었다.

어제밤 홍준은 안해에게 붉은 기발을 한쪽 만 들었으면 하는 의향을 얼핏 비쳤는데 춘임은 영민한 눈매로 살며시 머리를 끄덕였다. 현대 오늘 낮 홍준이 가평장에 갔다오니 집안부엌간에 삼노끈이 늘어지고 빨간물을 진하게 들인 팔기장쪽에 두어자 되는 명주천필이 널려있었다. 그는 정찬 눈길로 안해를 다시 보았다. 안해는 새 명주치마 두벌을 장농에서 섣뜻 꺼내어 뜯은것이였다.

그리고도 그 부한 몸에 이렇듯 제 손으로 한사코 농마국수를 이 만들어가게 놀려 사령관동지에게 대접하려고 극성을 부린다.

국수분들은 쇠기둥에 짝지발같은 참나무누름대로 되어있었다. 안해는 나무함지에 찬물을 찰찰 담아 분틀밑에 놓고 농마반죽을 겹짜게 한다. 그는 햇강아지만하게 반죽을 툇 떼어 손으로 돌돌 비벼 분틀통에 밀어넣는다. 홍준은 누름대를 지그시 내려눌렀다. 그 서슬에 국수오리들이 빗살처럼 가늘게 짜락짜락 소리를 내며 줄줄이 흘러내렸다. 안해는 조리대를 들고 국수오리들이 물에 고루이 풀리라고 나무함지의 찬물을 손으로 휘휘 저었다.

오늘저녁 국수는 평고기육수에 별맛일게다. 홍준은 병글병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좌상로인들이 줄레줄레 집안으로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담배연기만 자오룩이 방안에 피어오르고 《으흠》, 《으흠》 하는 가래돋지 않는 마른 기침소리들이 일부러스레 나기도 했다. 등을 척 돌려대고 앉은 로인들도 있었다.

주홍준은 마음이 활시위처럼 잔뜩 긴장해지였다. 생각했던바보다 공기가 더더욱 팽팽했다. 집주인인 박로인도 어찌할바를 모르고 덤덤히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주홍준은 로인들을 둘러보았다. 확실히 장군님의 말씀대로 이 좌상들부터 단합을 이루어야 했다. 빗장을 꼭 지르고 쌓고있는 이 마음의 웅벽을 어찌 허물을까? 뇌리에 불쑥 궁리가 트인다.

(그래 웅벽을 봄눈처럼 녹이실분은 이천만민이 숭앙하는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장군님 얘기로 얼어붙은 가슴들을 열어야 한다.)

주홍준은 드디어 긴장해지던 마음을 풀었다. 그는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담았다.

《로인장님들, 우리 탄광에 해빛이 들었습니다. 탄두더지 갱굴에 환한 별이 비쳐들었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홍준은 이렇게 말머리를 떼고 아래웃방을 둘러보았다. 로인들은 비로소 울방자를 고쳐틀며 신기해들 하였다.

《목상, 어서 하시오. 또 신갈파에서 날아온 소식ियो. 거참 회한하오. 날래 구술을 펴시오.》

창문가에 앉아있던 로인이 이야기를 즐겼다. 홍준은 호기심에 동해있는 로인들을 보며 말을 이었다.

《아마도 오늘밤 이야긴 나보다 박로인님이 직접 당했으니 자상히 하시는게 옳은가봅니다. 로인님, 어서 얘길 하십시오.》

주홍준은 이야기를 박로인에게 돌리고 부엌으로 내려섰다. 사령관동지께서 오실 시간이 박두했다. 그는 프락에 나섰다. 방안에서 하는 박로인의 석잡한 이야기소리가 프락의 돌배나무가에도 들려왔다.

《어제 저녁무렵이였네. 글썄말이지 우리 갱구로 이목구비가 환한 젊은분이 우리같은 대마직 탄쟁이 옷차림으로 오지 않았겠나. 부전목재채벌장에서 일하다가 여기 탄광에 돈벌이가 좋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하네. 글썄말이지 우리들이 앉아있는 동발목에 와서 척 걸터앉았는데 사방천지가 금시 확 밝아지는것 같았다네. 내사 하필이면 숨막히는 땅굴에 들어가 석탄두더지가 되겠는가고 하자 그래두 눈을 한번 꼭 감구 해보자구 하기에 내사 신세 타령했다네. 바로 저 전라도좌상 얘기였다. 전라도 리리에서 처자식술 일곱이 당장 굶어죽는다구 아우성을 치며 돈을 보내달라구 편질 보내와도 여기선 지금 품삯도 못받아 돈한푼 못보내는 형편이라구... 현즉 그 젊은이가 <그러시고도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품삯을 툇바로 내라고 탄광주에게 들이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길하길래 내 우리 열두성촌 형편을 말했다네. 허자 그 젊은이가 나를 보고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합쳐야지요. 누가 우리에게 나라를 찾아주길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싸우는 길만이 살길입니다.> 라고 우리 탄부들을 보고 말했다네. 내 신수를 보다가 그렇게 이목구비가 환한 훌륭한 젊은인 처음 보였네. 눈에서는 정기가 펄펄 날리구 옷을 땀 해살이 안면에서 막 비쳐나오는것 같았다네. 현대 글썄 이보라구. 그 젊은이를 우리 목상어른이 모시고왔다네. 이제 목상어른한테서 들은데 의하면 오늘밤 그분이 여러 좌상들을 만나려 오신다네. 허허... 꿈만같은 일이네.》

박로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아래웃방이 들썩들썩 했다. 팔들을 흔들며 고쳐앉는 서슬에 간데라 불빛이 어롱어롱하였다.

《아니 그 젊은분이 우릴 만나려구요?》

《이런 운이 어데 있소. 하늘이 우리 처지를 굿어보고 불쌍히 여겨 은총을 베푸신게 아니오?》

좌상로인들은 서로 마주보며 무릎을 쳤다.

그때였다. 경상도 좌상로인이 박로인에게 뒤질세라 한마디 비쳤다.

《아따 이보이소. 그런 운을 나도 타고났당게로. 어제밤 축시경에 내 회한한 꿈을 꾸었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이소.》

로인은 수수갑부기처럼 하얗게 타든 생당썩물부리의 담배채를 재털이에 털고나서 울방자를 위

엄스레 틀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바로 이무렵에 사령부의 경위대원과 함께 박로인의 집 프락에 들어서시었다. 주홍준은 장군님을 집안으로 모시었다. 로인들은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주홍준이 황망히 좌석에 장군님을 소개하려하자 그이께서는 홍준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도 앉아 이야기를 들읍시다.》 하시며 옷방문가의 뒤자리에 무릅없이 앉으시었다.

경상도로인의 꿈이야기가 계속되고있었다.

《...축시경이였는게로. 칠혹같이 캄캄하던 우리 열두성촌 하늘이 록보석을 뿌려놓은것처럼 파르스름해졌당게로. 내 세상에 태를 묻고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파-란 하늘을 보았는게로. 현데 말이지, 좀 있더니 저기 저 삼밭산마루에 광성이 돌던게로. 이 무슨 천지신령 조화인가 하구 눈을 부렸는데 분명 광성도 대광성이였던게로. 하더니 일시에 열두성촌 온 탄갱촌이 봄날같이 환해지던게로. 집집의 돌배나무, 살구나무들에는 때아닌 꽃이 가지마다 소담스레 피고 강남갔던 제비들이 지지배배 우짖으며 박씨를 물고 날아들던게로. 허허허... 지상천국이여서 내 너무 기뻐 팔을 두르며 상모춤을 덩실덩실 쳤던게로. 깨어나니 꿈인즉 여간만 아쉽지 않았지만 필시 하늘이 우리 열두성촌에 하사한 은총계로.》

로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으흠-》 하고 마른 기침을 하며 제 꿈도 어디 신통하지 않느냐는듯이 좌증을 돌려보았다.

주홍준은 더는 자리에 앉아있을수 없었다.

(어쩌면 이처럼 소탈하실가. 하늘이 내신 이 나라의 장군님이...)

그는 가슴노리에 손을 가져가며 일어섰다.

《여러분, **김일성**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인사를 올립시다!》

삼시에 온 집안이 감격과 환희로 끓었다.

《아니 **김일성** 장군님이?》

《축지법을 신묘하게 쓰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러기 천기를 타고나신분같아보이더니...》

《과연 내 꿈이 영낙없는게로. 어서 인사를 받으시오. 우리 백의민족 령수님!》

사람들은 앞다투어 일어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방가운데로 들어서시었다. 로인들은 구름노전 바닥에 두손을 짚고 엎드려 절을 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인들을 일으켜세우시며 말씀하시었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제가 무슨 별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열두성씨의 로인들을 한사람 한사람 만나주시었다. 로인들은 거의 다 대마직 옷 무명옷을 입고있었는데 베옷을 입은 로인도

두엇 되었다. 나라 잃은 백성의 기막힌 정상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인들의 성씨며 살던 고장을 물으시고는 금은보화가 가득찬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시며 못내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시다가 이 아름다운 산천에 비행장을 닦으며 금은보화를 앗아가려 광산이며 탄광을 파제끼는 왜놈들의 강도적행위에 비분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박명국로인이 초저녁부터 퍼놓은 꽃방석을 굳이 밀어놓으시고 로인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으시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서들 이야기 나누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좌상들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었다. 몸집이 초췌한 로인이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얼굴을 내보이였다.

《장군님, 우리 탄두더지들 얘기야 어디... 우린 지금까지 내내... 알고보니 **김일성** 장군님 얘길 했었습니다. 지금 온 조선땅이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그저 장군님 얘기뿐입니다. 하 참-요즈막엔 장군님께서 저 홍남 어느 리밭소에서 머리를 깎고 중절모를 쓰시고 거리를 나서시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더니... 과연 장군님께서 오셨습니다.》

로인이 신명나서 말을 마치자 이번에는 무명옷을 입은 로인이 입을 열었다.

《우리 탄광 어두운 막바지에서도 장군님 유격대가 보천보에서 왜놈들을 죽쳐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랍쇼. <우리 조선군대가 잘도 조겨댄다!> 하고 우린 얼마나 속씨원했던지 모릅니다. 장군님, 우리 나라가 언제 광복 됩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두 로인의 말을 들으시고 우선우선하게 웃으시었다.

《여러분들의 얘길 들으니 저도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머지 않아 반드시 광복됩니다. 그러자면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굳게 뭉쳐 왜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 이왕 말이 난김에 한가지 물읍시다. 어떻게 되어 여기에 열두성촌이라는 마을이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급기야 심각해지였다. 박명국로인이 상고머리를 슬슬 끌어넘기며 어쭙은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그 얘길 하자면 참... 조선땅 여기저기서 김씨, 박씨, 최씨, 마씨, 황씨... 지어 황보씨, 독고씨라는 희성을 가진 사람들까지 인부모집에 끌려오다 보니... 열두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촌이라고 해서 그렇게들 불리워졌는데... 장군님, 그러다보니 별다른 일을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심중한 낯빛을 지으시며 머

리를 끄덕이시었다. 환한 간데라불빛에 수심이 어린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보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조를 조금 높으시었다.

《열두성촌이 생겨난건 바로 왜놈들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왜놈들의 교활한 민족리간정책이 숨어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말머리를 떼시자 좌중이 술렁거려였다. 눈길들이 허공에서 마주쳐 부딪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심중을 읽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해서 함경도땅에서도 잠간이면 채울 탄광로동자들을 저 먼 경상도며 전라도, 제주도까지 가서 끌어왔겠습니까? 왜놈들은 조선사람들이 단합되는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놈들은 같은 민족, 같은 겨레가 서로 씨족문벌별로 갈라쳐 싸우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난번 신흥탄광폭동때 왜놈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습니까. 바로 그렇기때문에 놈들은 민족리간정책을 이 자그마한 탄광촌에 실시하고있습니다. 로인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좌중을 바라보시며 어느 누구에게라없이 대중 물으시었다.

베옷을 후령하게 입은 좌상로인이 두손을 모아 쥐고 자책어린 목소리로 사령관동지께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이 불미스러운 늙은것을 용서하여주십시오. 제 나이를 헛살았습니다. 글썄 제 저 마씨가문에서 온 딸의 청혼을... 성씨를 나무리며 욕되게...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일본놈 쪽바리들을 도와준 격이 되였습니다.》

로인은 주먹으로 가슴을 광광 두드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인이 마음을 안정하기를 잠시 기다리시였다가 이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화목하고 레의가 밝기로 소문난 단일민족입니다. 서로 다투며 헤어지면 영영 나라를 잃게 되고 한사람, 두사람, 열사람, 백사람, 천사람, 만사람이 뭉치면 우리는 불원간에 나라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광복의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도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두성촌을 조국광복의 기발아래 굳게 단합된 광복촌으로 만듭시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주홍준은 경위대원과 나란히 장군님의 곁에 앉아 가슴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입안소리로 나직이 《광복촌!》 하고 불려보았다. 눈굽이 젖어들었다. 그는 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술많은 더부룩한 머리를 숙이였다. (파연 민족의 령수님이시다. 이처럼 사리에 밝으시고 얼음장도 녹이는 파스한 장군님의 말씀을 그 누가 속깊이 아니 들으랴. 장군님의 품은 분명 우리 반일회도 들어있는 조국광복회 민족대화합의 품이시다!)

이어 주안상이 차려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목이 긴 되들이병을 손에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좌

상차례로 로인들에게 술을 부어주시였다.

《마주앉고보면 참으로 레의가 깊고 인정많은 우리 단군조선민족입니다. 그러니 지난 시기 품고있던 고까운 마음들을 이 한잔 술에 다 흘려보내고 우리모두 광복성전에 떨쳐나섭시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웅글게 울리였다.

사람들은 비로소 《형님》, 《동생》 하며 술잔들을 쪼았다. 좌상로인들을 대표하여 박로인이 일어나서 사령관동지께 술을 부어드리였다.

《이 잔을 받으십시오. 장군님, 장군님의 분부대로 꼭 광복촌을 꾸리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인이 두손으로 올리는 잔을 일어서서 받아드시였다.

《고맙습니다. 로인장님, 내 듣자니 로인님이 신수를 잘 보신다던데 앞으로도 우리 조선사람들이 복락을 누리도록 좋은 말을 많이 하여주십시오.》

박명국로인은 어망결에 《네?!》 하고 반문하였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있었다.

《장군님, 내 나라를 잃고 그만 앞이 캄캄하여 신수보는 법을 배워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었더랬는데 이젠... 이젠 신수를 다 보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조선사람이 복락을 누릴 광복될 앞날을 눈앞의 불보듯 밝혀주셨는데 내 이제 무슨 신수를 보겠습니까. 천만자손을 품안으시고 천세만세 만강하실 신수를 타고나신 장군님, 우리 조선에 대통운이 텃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박명국로인과 잔을 쪼으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술잔들이 몇순배 돌아간 다음 국수그릇이 갑자기 주빋 소반에 놓여 올라왔다. 춘임은 소합재로 반들반들 윤이 나게 닦은 돛바리에 명주실오리같이 가는 국수를 소복이 담았다. 국수그릇에는 닦은 참깨며 가는 꿩고기살점들과 생닭알을 풀어 지져 알팍하게 썰어놓은 꾸미들이 감미롭게 놓여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절을 드시고 부엌간을 내려다 보시였다.

《국수를 말은 솜씨가 대단합니다. 이 국수를 누가 말았습니까?》

부엌에서 김춘임이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이 숙이였다.

《장군님!》

김춘임은 장군님의 치하에 그만 목이 메여 말을 더 잇지 못하고있었다. 주홍준이 장군님께 아뢰이였다.

《장군님, 저의 집 사람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음을 머금으시며 춘임을 반기시였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주홍준동무의 부인이 말았다면 이 국수를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춘임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시하시였다.

달은 휘영청 밝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인들을 대문밖에서 바래워 주시였다. 경상도와 전라도 두 로인은 장군님의 손을 잡고 놓지를 앓았다.

《장군님, 내 이제 우리 전라도에 가서 장군님을 만나뵈온 애길 자자손손 하겠습니다.》

《김일성 장군님, 내 비록 몸은 늙었지만 경상도라 밀양, 우리 금산촌에 가서 장군님의 광복령을 받들겠나이다. 장군님, 부디 옥체만강하옵소서.》

로인들은 의 좋게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총총히 발자국을 옮겨놓는 두 로인을 점도록 바라보시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오시였다. 불시에 어깨우에 이 나라의 하늘땅이 떠실리는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지그시 입술을 깨무시였다.

밤은 고요히 깊어가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박로인의 집 옷방에서 온밤을 조국광복의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지새우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창호지를 바른 창박을 내다보시였다. 휘뿜히 새벽이 다가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진곤색양복을 어깨우에 걸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옷방문의 동그란 쇠고리손잡이를 손더듬으로 찾아쥐시고 방문을 슬며시 미시였다. 문은 빠끔히 열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토방을 내려서시여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옷양복을 추슬러올리시였다.

사위는 수목을 한번 얹게 풀어놓은것처럼 아직 어둡스러웠다. 그이께서는 대어섯발자국을 옮겨 디더놓으시다가 허리를 낮추 굽히시였다. 트랙의 돌배나무결에 두사람이 장승처럼 움작 않고 서있었다. 사령부의 경위대원과 주홍준이였다.

(참, 사람두 온밤 사령부의 전령병구실을 했군.)

그이께서는 돌배나무결으로 다가가시였다.

《고맙소. 홍준동무!》

홍준은 그제사 몸을 흠칫하였다. 마을쪽만 살펴보다가 집안기척을 못느낀것이였다.

《장군님, 더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는 산에서 버릇되어 이맘때면 일어나군합니다. 내 걱정은 마시오. 나하고 교대합시다. 어서 집에 들어가서 눈을 좀 붙이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의 등을 가볍게 미시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데선가 《으-아-앙》 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홍준의 등에서 손을 내리우시며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둥그런 보름달은 하늘중천에서 미끄러져내려 먼 산봉우리에서 은은한 빛발을 뿌리고있었다. 마을은 아직 잠에 들어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납니까?》

주홍준은 어쭙은듯 뒤더수기를 쓸며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저의 안해가 방금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뭘요? 부인이 아들을... 생남을 축하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의 손을 덥석 잡아쥐시였다.

《홍준동무, 고맙소. 우리를 위해 어제저녁 부인은 그 몸에 음식을... 허허 우린 그런줄도 모르고... 부인에게 인사를 전해주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옷양복을 다시 추슬러올리시며 트랙을 거닐으시였다.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이 나라, 이 산천에서도 새 생명이 두려움을 모르고 태어나는것이였다. 기쁘시였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한 아기만이 아닌 이 새벽 탄광지구 열두성촌 새 인간들의 탄생의 웨침으로 느껴지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주홍준을 돌아보시였다.

《새 인간의 탄생이라, 오늘 회의서막이 괜찮소.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기쁩니다. 조선의 혁명가가 하나 생겼소. 하하하... 그 애를 잘 키우시오. 이제 그애가 말을 하고 뽀박질을 할 때엔 분명 우리 나라가 광복될거요. 그날을 위해 힘껏 싸웁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확신에 넘쳐 우렁치 새벽이 다가오는 조국의 산천을 바라보시였다.

## 4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흥탄광이 바라보이는 삼발산마루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치공작원들이 방금 들고온 신문 《동아일보》를 보시고 경위대원에게 돌려주시며 성큼성큼 산마루를 향해 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문의 상단에 그것도 특호활자로 항일유격대를 소멸하려고 광분하는 일제 관동군 《토벌대》에 대한 보도기사에 쓰겨운 웃음을 지으셨다.

《왜놈들은 지금 사령부를 노리고 저 만주벌판을 싸다니고있지만 우린 여기 중부조선 놈들의 소굴을 타고앉아있소. 얼마나 통쾌한 일이요.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을 없앨 힘은 이 세상에 없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거요. 자 회의를 하려갑시다!》

아침 하늘은 비취색물감을 일매지게 들인듯 맑고 푸르렀다. 메세들은 참나무며 소나무의 가지



들에 앉아 우쭐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과 함께 산마루로 오르시었다. 아름답디 참나무가 하늘높이 서있는 숲속의 웅장그런 공지는 회의장소로 안성맞춤이었다. 붉은 기발로 제법 저 백두산밀영에서처럼 펄떡펄떡 소리를 내며 날리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붉은 기발에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내시었다.

《가만 저 기발이 어디서 났소?》

《사령관동지, 주홍준동무의 안해가 만들어보낸 것입니다.》

경위대원이 양복앞섶을 내려 여미며 대답하였다.

《지성이 보통이 아니군. 기발이 왔으니 사람이 온것 같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바람결에 선명한 붉은 색조를 띠며 나뭇기는 기발에 정이 어린 시선을 보내시며 참숯들이 바람벽처럼 빙- 둘러서있는 회의장으로 들어서시었다.

순간 일시에 박소리가 터져올랐다.

여기 신흥탄광으로부터 가까이로는 흥남, 함흥, 함주 그리고 홍원, 북청, 리원, 단천... 멀리로는 원산, 서울에서까지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핵심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그처럼 바라던 날이 드디어 온것이다.

《김일성장군님!》

《민족의 정통령님!》

사령관동지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붉은 기발앞에 나서시었다. 대표들은 가슴을 울렁거리며 잔디밭에 둘러앉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진곤색양복 옷단추를 끌려놓으시었다. 영채로운 두눈에서 푸른 정기가 번뜩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제 동오골귀틀막에서 쓰신 원고를 들고 류창하게 연설하시었다.

...동해안지구는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앞당기는데서 전략상 중요한 지대이다. 이 지대를 장악하자는것은 땅덩어리나 공장을 타고 앉자는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기본동력인 로동계급을 각성시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자는데 있다. 혁명을 하자면 먼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군중공작부터 해야 한다. 로동자, 농민은 물론 지식인, 기업가, 상인, 종교인, 애국적인 민족자본가와 지주들도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 그리고 여기 신흥지구를 보이지 않는 비밀근거지, 반유격구로 만들어야 한다. ...

대표들의 눈들이 불찌를 튀기듯 번뜩이였다. 심장들이 불시에 담배하여지며 높뛰고있었다. 것처럼 바라던 광복의 진로가 환하게 열린것이였다. 주홍준은 물기에 번들거리는 눈을 들어 사령관동지를 우러르고있었다.

아, 광복의 눈석이, 광복의 격류가 터쳐졌다. 이 눈석이, 이 격류의 도도한 첫 흐름을 이 산마

루에서 펼치시려 장군님께서는 대마직로동복을 입으시고 탄광의 갱구를 찾으시여 열두성촌 로인들과도 무릎을 마주하시었다.

그 누가 대신할수도 그 누구에게 맡길수도 없는 일, 광복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장군님께서는 중부조선의 최전장 이 산마루에 오르신것이 다.

주홍준은 감회에 잠겨 두눈을 습벅이며 뇌이였다.

(름름하신 체구, 해와 같이 밝으신 안광! 반만년의 민족사에 그 언제 위대한분을 모신적이 있었는가. 아, 이 한몸 진토가 되더라도 송두리채 바치고싶은분, 저분이다. 저분이 우리 민족의 하늘님이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먹을 높이 쳐드시었다.

...조국광복의 새 아침은 눈앞에 다가왔다.

동포들이여,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민항쟁준비를 갖추자!

그이의 음성은 강도왜적의 머리우에 금시 철추를 내리실듯 쩡-쨍 울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고 대표들을 둘러보시었다. 일시에 대표들은 일어서서 환호성은 울리였다.

《김일성장군님!》

《민족의 령수님! 장군님만 받들고 전민항쟁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홍준을 비롯한 국내지하공작원들을 량팔을 벌리시여 포용하시었다.

《고맙소, 고맙소. 난 연설을 하면서 동무들의 얼굴에서 벌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전민항쟁으로 나아가는 장엄한 모습을 보았소. 동무들, 이 산마루에서 다진 맹세 번치 말고 왜놈들과 끝까지 싸워 조국을 광복합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대표들을 바라보시었다.

우렁우렁한 음성!

굳센 의지와 철의 담력이 깃들어있는 그 음성을 들으며 동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천리산발이 파도치며 일어서는듯하였다. 구호나무들은 일제히 가슴을 헤치고 쏟아지는 해빛아래 이 나라 인민의 신념의 맹세를 합창하듯 웨치는것이였다.

《국내민들아, 분명히 알아두라. 김일성장군은 조선의 하늘님이다.》

《끝까지 김일성장군따라 광복 이룩하자.》

하늘은 청청한 빛을 뿌렸다.

대기는 싱그러웠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속에서 계시였다. 가슴에서 뭉클 뜨거운것이 치받쳐올랐다. 그이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다가드는 조국산천을 애무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백두산기슭 사령부의 귀틀집뜨락에서는 단 몇 명의 대원들을 데리시고 떠나시였지만 이 산마루

에 이르시어서는 자신을 성벽처럼 웅위하고 서있는 지하공작원들만이 아닌 이 나라의 이천만 민중을 장엄한 철의 흐름으로 따라세운 것이었다.

거연히 서계시는 태양의 모습!

산마루는 태양을 모시고 찬연히 붉어졌다.

어둡던 이 나라 강토에 민족재생의 봄빛을 주며 광복의 아침노을을 비쳐주는 은혜로운 태양!

산마루는 위대한 태양이 지니고있는 그 뜨거운 빛과 열을 받아안고 온통 붉디붉은 기복에 휩싸인 듯하였다. 그로 하여 붉은 산마루는 세월이 그 아무리 눈비를 쏟아붓고 락엽을 덮어버리어도 높이 솟아 빛나는 것이었다.

## 5

녀인은 그런듯이 앉아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피어린 항일혁명의 길우에서 열핏 만만적이 있는 녀인으로 하여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감회깊이 더듬어나가시었다.

수령님께서 《홍준이, 홍준이》 하고 그의 이름을 몇번이고 부르시었다. 가슴아프시었다. 수령님께서 사색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정치공작원들에게서 들은데 의하면 동무의 남편은 탄광로동자들을 반일회에 묶어세워 일제의 군용열차를 전복시키고 갯을 파괴침수시키며 투쟁을 아주 잘하였습시다. 해방후에 내가 함흥에 갔을 때 그를 찾았습시다. 그는 내앞에 엎드려 꺾꺾 흐느꼈습시다. 나는 그를 겨우 일으켜 세웠습시다. 그는 혁명하려는 열의가 대단했습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홍남시당위원장을 시켰습시다. 왜냐하면 열두성촌 생각이 나서였습시다. 그가 탄광로동자들속에서 일을 잘하였기에 홍남지구로동계급속에 들어가 홍남이 건국사업에 모범이 되라고 말입시다. 그때도 홍준동무는 일을 잘하였습시다. 참 아까운 동무를 일찍 잃었습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떠나간 전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추억히 두눈을 가늘게 찌프르시었다. 한동안 숙연한 침묵이 흐르고있었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김춘임관리위원장의 가리마가 반듯한 머리며 가름한 얼굴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떠나간 사람들에게 다 안겨주지 못한 은정을 녀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싶으시었다.

《관리위원장동무, 나에게 또 부탁할게 없습니까? 나는 동무가 제기하는 문제라면 다 풀어주겠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흘려싸운 신흥지구 반일투사들의 부탁으로 여기고말입시다. 어디 한번 크게 불러보시오.》

수령님께서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녀인은 눈을 깜빡이며 그 무슨 생각에 음해있다가 말할듯말듯 바재이고있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어서 말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지난번보다 더 큼직한 문제를 제기하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녀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정화시켜주시었다. 하여 용기를 얻은 춘임은 어려움을 잊고 수령님께 말씀드리었다.

《수령님, 저희들은 그때 장군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도 장군님께서 서계신 그 산마루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왜놈들과 싸울 용기가 나고... 그 산마루를 보면 언제나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듯하였습시다. 수령님, 이제 더 바랄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때처럼 젊어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 온 마을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녀인은 《호-》 하고 숨을 내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휴게실을 거닐으시었다.

《고맙습시다. 마을사람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그리고 내 한번 꼭 찾아가 일제를 반대하여 잘 싸운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수령님!》

녀성관리위원장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기쁨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발걸음을 옮겨놓으시다가 다시 녀성관리위원장에게로 돌아서시었다.

《내 아까부터 묻자고 했었는데... 동무가 그때 새벽에... 우리가 회의를 한날 그 새벽에 몸을 푼 그애가 지금 무얼합니까?》

녀인은 반가와 몸둘바를 몰라했다.

《수령님, 그애를 어찌 다... 그애 장군님의 말씀대로 광복되던 해에 여덟살이 되고... 전후에 만경대혁명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은 인민군대에서 정치일군으로 일하고있습시다.》

수령님께서서는 환하게 웃으시었다.

《하하하, 그걸 보시오. 내가 그때 바로 맞히지 않았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군.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자, 오늘 좋은 애길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도 신흥에 갔을 때 동무가 말아준 그 농마국수를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20대의 청년장군 그 시절로 되돌아가신 듯하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신 승용차는 저녁노을빛이 담백 어린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김춘임녀성관리위원장과 함께 뒤좌석에 나란히 앉으시여 미소를 짓고 계시었다. 앞시창 가득히 삼밭산의 그 붉은 산마루가 우뚝이 솟아 어려오는 듯하였다.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달리였다.

위대하고 찬란한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그처럼 소중히 가슴에 품고있는 녀인, 이 나라 전체 인민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득 싣고-

# 나는 7 월의 병사다

전동혁

하늘도 통곡하고

땅도 통곡하는

이 7 월에

나는 초소로 떠나간다

아 수령님 령전에

영결의 꽃을 얹으며

심장의 피를 터쳐 탄원서를 적시고

군복을 입은 나는 병사

아직은 익지 않은 거수경례를

수령님동상앞에 남기며

통일의 그 유혼 기어이 이루리라

피줄이 뛰는 맹세를 남기며

슬픔의 7 월을 안고간다

학우들이여

내 가슴에 꽃송이를 달지 말라

축하란 말조차 하지 말라

대신 우리 서로 목놓아 흘리고흘린

그 눈물에 불을 달아달라

어머니여

따라오며 손을 흔들지 마시라

아버이수령님을 애타게 부르며

통일을 못보시고 가시면 안된다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던

어머니의 그 모습

조국의 모습으로 안고가나니

나는 병사다

무심히 부를수 없는 7 월의 병사

수령님의 유혼 안고

분렬의 장벽을 들부시고야말리라

비애의 바다에서 파도쳐오른

통일병사!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뜻

걸음걸음 받들며

통일의 그날까지 7 월의 이 군복을 벗지 않으리라

그날까지 내 언제나

7 월을 안고 숨쉬며 살리라

아 삼천리를 진동할 통일만세로

한평생 쌓이신

수령님의 그 시름 풀어 못드린다면

7 월의 눈물은

이 땅에 조용히 잤아들고만말려니

우리의 눈물은 물이 아니다

분출구를 찾는 용암처럼 타끓는 이 가슴우에

통일의 훈장을 달고 돌아와

수령님앞에 땀땀이 큰절을 올릴

나는 7 월의 병사다!

7 월의 병사다!

(1995. 3. 23)

# 빛나는 태양 김일성동지

라울 가르시아 알바레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여  
당신은 투쟁과 승리의 상징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시여라

당신의 현명한 손길따라  
이르는곳마다에

공장과 농장, 학교와 병원  
현대적살림집들이 일떠섰어라

자력갱생의 전기기관차  
온 나라를 누비며 달리고  
금은실 수를 놓은듯  
고속도로로 방방곡곡으로 뻗어갔어라

백두의 기상을 지니신  
위대한 주석  
당신께서 계시여  
민족의 참된 삶 꽃피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만방에 빛을 뿌려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여  
인류의 스승이시며  
세계의 위인이신

**김일성** 동지이시여  
사회주의앞길을 밝혀주신  
당신의 업적 길이 빛날것입니다

(필자는 우리 나라 주재 이전 꾸바특파기자임)

## 조선의 자랑

뿌르나 찬드라 샤르마

주체의 사회주의는  
조선의 생명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의 영원한 태양  
영명하신 **김정일** 동지는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주체사상은  
조선의 기치  
자주성 집단주의는  
조선의 정신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은  
조선의 자랑

삼일포는  
조선의 명승지  
서해갑문은  
조선의 위력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조선의 상징이여라

사람중심의 주체사상 풍부한 자원  
그때문에 위대한 나라여라  
주체, 자주성, 천리마  
그때문에 강력한 나라여라

(필자는 네 팔기자임)

# 태양찬가

문상봉

은혜롭고 거룩한 태양이 20세기의 하늘가에 주체의 붉은 노을을 장엄하게 펼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동지! 그이의 성스러운 존함은 인간세상의 그 어디서 그 삶의 태양으로 찬연히 빛난다.

세기와 더불어 눈부심의 극치를 이룬 그 빛발이 있어 이 땅은 이리도 살기 좋고 이 강산은 그리도 아름다운것인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따사로워지는 그 빛발을 받아 내 나라 어머니들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내 조국의 아들딸들이 열정과 포부로 가슴부풀리는가. 민족의 아버지 **김일성** 동지! 그이의 존함은 다정한 이야기로, 아름다운 전설로 인류사에 새겨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끝없는 이야기와 전설들을 낳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인류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주체의 태양이였습니다. 비록 수령님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으나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의 태양으로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버지수령님은 인류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주체의 태양이시였다.

영생하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 동지!

인류가 념원하는 새 세상을 무적필승의 손길로 가리키시며 사람을 세계의 주인으로 선포하신 때로부터 그이는 가장 위대한 삶의 태양이시였다.

아버이처럼 친근하고 해빛처럼 따사로운 그이의 존함은 만민이 반들어올리고 력사가 삼가 지어드린 가장 신성한 존칭이였다.

위업은 하늘에 닿고 사상은 누리를 환히 밝혀 그 위업, 그 사상을 투쟁과 진리의 기발로 추켜든 주체시대!

인간해방의 힘찬 발구름도 온 세계 자주화의 거센 흐름도 그 영생불멸의 기치따라 노도와 같이 앞으로, 앞으로만 내닫는 자주시대!

사람들이여, 별이 없는 하늘을 생각할수 없고 태양이 없는 우주를 생각할수 없듯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하해같은 은덕을 떠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생각할수 있는가.

오늘 이러저러한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간섭과 침략책동속에 운명의 심각한 곡절을 겪고있는 현실을 놓고보자. 사회주의를 버린 나라들에서 들려오는 절망과 좌절의 아우성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 원썬들의 갖은 책동과 배신자들의 비렬한 중상에도 끄떡없이 맞서나가며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하는 우리의 막강한 힘에 더없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인구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조선이 이렇듯 지구촌의 동방일각에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우뚝 솟아 세계인민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는것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오스트랄리아조선리사회 위원장 빌 하틀리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 주석은 민족재생의 은인, 운명의 구세주이시였을뿐만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사실 조선인민이 그이를 모시지 못하였더라면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할수 없었을것이다....

조선인민이 **김일성** 민족으로서의 크나큰 공지를 가지고있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오늘 조선민족이 누리고있는 행복은 수령의 덕이다.

력사는 민족의 존엄은 수령의 위대성과 직결되어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한때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던 나라들이 련이어 붕괴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도전이 전례없이 극악무도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철옹성을 일떠세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비길데 없는 선견지명과 만고에 빛날 혁명업적을 뜨거운 눈물속에 되새겨본다.

일찌기 열네살의 어리신 나이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실 굳은 결심을 안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경지를 이룬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그이께서는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주시대의 초행길을 몸소 앞장에서 개척해오신 위대한 성인이시였다.

돌이켜보면 길림의 옛거리에서 사람취급을 못받는 인력거군의 처지를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프시여 인간의 삶과 운명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던 그때로부터 장장 반세기가 넘는 세월, 우리 수령님께서 걷고걸으신 험난한 가시덤불길은 그 얼마

이며 해쳐넘으신 사선의 고비들은 또 얼마인가?

20여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광복의 새봄을 안겨주  
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시여 두차례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  
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격파하시고 조  
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신 우리 운명  
의 수호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넓고넓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저마다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가들도 많았다. 하지만 우  
리 수령님처럼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친 그러한 정치  
가는 없었다.

이 강산 그 어디에나 인민을 위한 어버이수령  
님의 수억만리 현지지도의 자욱이 력력하고 이  
나라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의 갈피마다에는 수령  
님의 세심한 보살핌과 뜨거운 배려가 깃들어 있  
다.

준엄한 혈전장에 쓰러져 다시 못오는 투사들을  
영생의 언덕우에 붉은 기폭으로 감싸주는 숭고  
한 의리, 어제날의 천덕꾸러기 부억너를 최고인  
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는 자애론 손길, 이  
름없는 벽촌아이의 남모르는 재능을 애지중지 키  
워 나라의 자랑으로 꽃피워주는 다심한 사랑, 피  
를 나눈 혈육도 용서 못하는 그러한 허물까지도  
묻지 않고 민족이라는 한가정에 안착시키는 크나  
큰 도량...

경애하는 어버이 **김일성** 동지! 그이께서는 생전  
에 사회와 혁명, 조국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력사적위업을 다 수행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행복과 영광을  
다 안겨주시였다.

정녕 내 나라야말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소생되고 빛을 뿌리게 된 **김일성** 민족이  
사는 궁지높고 존엄있는 나라이며 내 조국이야말  
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덕성의 결정체인 사회  
주의 조선이다.

아, 인민의 행복과 번영, 조국의 통일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80여성상 순간도 쉬임없이  
고동치신 위대한 심장! 한평생의 나날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바친적 없으신 고귀한 생  
애!...

반만년력사이래 이렇듯 나라와 인민에 대한 열  
렬한 사랑, 무한한 헌신, 정력적인 활동과 불멸의  
위업으로 빛나는 걸출한 삶이 언제 있었던가.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은 아무리 멀어도 힘들지  
않다시며 굶은 비, 눈보라를 가리지 않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어버이수령님! 생신날  
에도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며 이렇게 논두렁길

을 걷는것이 자신의 휴식으로 되고 명절로 된다  
고 기뻐하신 우리 수령님! 기뻐 웃으시여도 인민  
을 위해 웃으시고 긴긴 밤 잠 못드시여도 인민을  
위해 잠 못드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인민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  
겨주시기 위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해주시기 위해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일신의  
피로를 무릅쓰시고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순  
직하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우리 수령님이시다.

《언제부터인지 저한테는 길가의 조약돌이나 뒤  
산의 풀 한포기, 앞내가의 여울물소리조차 무심  
히 스쳐대하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여 농  
장 살림걱정으로 수없이 걸음을 옮기시던 그 심  
려의 자욱들이 어디라없이 스며배 우리를 일깨워  
주는것 같아서입니다.》

이것은 어느 산골마을의 처녀분조장이 농촌지  
원자들에게 한 말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지난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  
으로 모셔왔는가를 가슴뜨거이 절감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80여평생  
의 장구한 기간에 걸쳐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인류  
의 완전한 해방과 무궁한 번영을 위한 투쟁을 진  
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신 주체의 위대한 태  
양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잊지 못해함은 비단  
우리 인민뿐만이 아니다. 다함없는 경모의 정은  
대양과 대륙들에 차고넘치여 국제기구와 국가기  
관 청사들에 존귀하신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는 행사가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15일을 맞은 어느 한 나라에서는 저  
명한 인사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대  
한 모임을 가지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태양의 즉  
장칭호를 우리 수령님께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은 어둠을 밝혀주시고 생  
을 주시는 태양이시다. 그이께서는 비록 서거하  
셨으나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와 함  
께 영생하신다...》

이것은 그들이 모임에서 터뜨린 한결같은 목소  
리이다.

태양의 속성은 눈부신 빛과 거대한 인력과 뜨  
거운 열이며 그것은 영원불멸하다.

주체의 태양 **김일성** 동지! 그이의 위대한 혁명  
사상은 가장 참다운 운명개척의 길, 인류의 앞길  
을 밝히는 영원한 빛발이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  
업적은 우리모두를 떠밀어주고 만민을 고무추동  
하는 영원무궁한 원동력이다. 그이의 위대한 덕  
망은 인간을 키우고 세상을 보살피시는 영원한

따사로움이다.

세기를 이어 영생할 삶의 태양! 인류력사는 천만년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 수령님을 만고에 길이 빛나는 태양으로 높이 우러를것이다.

태양의 빛발은 영원무궁하다. 태양의 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기전에 삶의 요구이며 량심과 도리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오랜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진정한 혁명가와 비렬한 배신자를 가르치는 시금석을 수령의 위업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주고있다.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수령이 생존할 때 한 맹세와 서거한 다음에 하는 맹세가 다를수 없는것이다.

오늘 세계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주체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가장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끝없는 매혹속에 경이의 시선으로 우러러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당과 인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넘겨주신 태양의 위업을 가장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이어나가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이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성품에서 기본을 이룬다.

문무충효를 겸비하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결출한 령도,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21세기를 이끌어나가실 유일무이한 수령》,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받으시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령도자이다.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과 국가도 정권과 군대도 인민을 위해 있다.

이것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인민적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신 **김정일**장군님의 철학적신념이며 영원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신념, 이 의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당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지시였다.

종착역이 없는 인민행렬차!

어버이수령님께서 낮과 밤을 이어 쉬임없이 타고가신 이 인민행렬차에는 언제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였다.

사람들이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에 정중히 모신 두분의 사업토의 영상을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심을 안고 우러러보시라.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한없는 감격속에 되새겨질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주신 우리의 모든 공지높고 행복한 생활을 대를 이어 가장 빛나게 꽃피워주시는 또한분의 우리 운명의 수호자,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태양은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난다.

**김정일**동지는 곧 **김일성**동지이다.

시대와 력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주체위업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령도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덕성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덕성 그대로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따사로운 품을 끝없이 펼쳐주시는 덕망이다.

혁명의 계승은 령도의 계승이며 충실성의 계승이다. 수령을 받들던 그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수령의 후계자를 견결히 옹위하고 끝까지 충성다하는 여기에 혁명적인민의 위대성이 있다.

희세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밝아오는 21세기를 빛내일 만민의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억년초석이며 신념의 기둥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우리 인민은 리상과 신념도 하나, 감정과 도덕도 하나이며 인생과 운명도 하나인 삶의 영원한 혼연일체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력사의 온갖 시련과 원수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해쑈는 나라 조선의 **김일성**민족, 우리는 영생하는 주체의 태양을 세기를 이어가며 높이 모시고사는 특전을 지닌 태양민족이다. 하기에 노래를 불러도 태양의 노래를 제일 사랑하며 즐겨부른다.

우리 인민은 태양의 노래,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성장하였고 태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온 존엄있고 공지높은 인민이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늘도 생전의 모습그대로 계신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언제나 승리자로 살면서 자자손손 복락하라는 당부를 누리에 넘쳐나는 태양의 미소로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르며 천세만세 노래할것이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듬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듬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

## 금수산기념궁전에 오르면...

홍현양

사람들이여  
여기선 발걸음 삼가 옮기시라  
해빛이 넘치는 저 문마다에  
조용히 깃든 사색의 정적을  
깨지 마시라

금수산의사당  
여기에서 어버이수령님  
조선혁명과 세계를 이끄시였고  
금수산기념궁전  
여기에서 오늘은 영생하신다

인자하신 그 모습  
우러르면 눈물이 가슴을 적시어도  
환하게 웃으시는 그 미소  
이 시각 다름없는 그 시간속에  
사람들을 따뜻이 안아주신다

아, 푸르허 우물가에서 얼음을 까시며  
강선의 구내길과 농장의 발머리  
불타는 전호가에서 만나셨던  
잊지 못할 사람들이 찾아드는 저 광장  
주체의 최고성지에 인민들이 오른다

그들과 한번 잡으신 손  
지금도 놓지 않고계시는 그 뜻  
어버이수령님을 하늘처럼 모신  
그 의지의 한끝에 성지가 솟아

수령님은 인민들과 한시간속에 계신다

그 시간은 영생  
그 시간은 사람을 만민에게 준  
위인의 심장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영원한 상봉의 궁전을  
이 땅우에 세우시였다

만남은 순간이여도  
운명의 길에 끊을수 없는 이 상봉  
삶으로 가꾼 붉은 꽃 송이송이  
어버이수령님께 인민은 드린다  
어버이수령님께 영생을 드린다

천세만세  
영원한 수령으로  
인류가 모시는 **김일성** 동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천세만세 받드는  
주체의 최고성지여

인민은 하늘로 믿는다, **김일성** 동지  
인민은 태양으로 따른다, **김일성** 동지  
금수산기념궁전 여기에 오르면  
우리의 운명을 맡긴  
그 하늘 그 태양이 있도다



##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이 서사시를 위대한 수령님 서거 1 뉘에 삼가 드리노라-

김만영

사람들이여  
나는 이 나라의 이름없는 시인  
내 오늘 그대들에게 용서를 바라노라  
이 땅이 생겨 가장 슬프던  
그 나날의 갈피갈피를  
내 다시  
번지는것을

허나 이는  
수령님께로 달리는 마음  
그 무엇으로써도 잠재울길 없어  
심장이 가리키는 그대로  
그리움의 붓을 달리는것이거니

흘러간 7월의 그 아픔속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힘과 용기로 바꾼  
그 진리를 새기며  
인민이여, 조국이여  
그리움에 가득찬 이 가슴을 헤치노라

× ×

한해가 지나갔다  
잃어서는 안될분을 잃고  
보내서는 안될분을 보내고  
눈물이 스며있는 이 땅에  
7월이 다시 왔다

물어보자 세월이여  
산천초목이여  
아버이수령님을 잃고  
우리 한해를 살았던 말인가  
우리 한해를 보냈던 말인가

내 조용히  
그리움의 노를 저어  
피눈물의 대하를  
거슬러오르노라

거슬러올라  
내 오늘은 여기에 섰노라  
몸부림치며 수령님을 떠나보내던  
비애의 기슭  
금수산기념궁전앞에 섰노라

웬일이냐  
그 무슨 기적이냐  
아침노을 비낀 궁전우에  
예대로 공화국기발이 펄럭이고  
소리없이 흐르는 바람결은  
예대로 승엄함을 불러내누나

조용히 여닫기던 문이며  
경건히 오르내리던 계단들  
그리운 미소 어려있는 창문이며 꽃나무들  
예대로 맑고 푸르나니

머리들어 바라보면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모습이 안겨오는듯  
귀기울이면  
우렁우렁하신  
수령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듯

이제라도 문득  
저 정원의 시험포전에서  
팔소매 걷어올리신  
수령님의 그 모습 뵈을듯  
정적이 깃든 저 창문아래서  
조용히 책장번지는 소리도 들릴듯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가슴에 쿵쿵 울려오는  
세계를 호홉하던 그 심장의 고동소리  
력사를 이끌던 그 거룩한 발자국소리...

이른새벽 깊은 한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워 찾고 부르던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 여기에 세셨던가

우리와 이렇게 한거리를 잇고  
우리와 이렇게 한지붕을 잇고  
바쁘신 사업을 계속하시며  
우리 어버이 오늘도 여기 계시는가

우리 수령님  
북방의 흰눈을 차우에 얹고  
잠든 거리를 누벼 조용히 들어서시던 곳  
아이들이 기다린다고  
설맞이궁전으로 서둘러 떠나시던 곳

예가 어찌 한해전에  
눈물의 폭우에 젖어  
우리 수령님 떠나보내신 그곳이란 말인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도 울며  
가슴터지게 수령님을 부르던 그곳이란 말인가

우리 처음 령구차를 따라  
여기를 떠날 때  
슬픔은 슬픔을 낳고  
눈물은 눈물로 이어졌어라

슬픔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신앙과 정견  
풍습과 관례를 넘어  
우주도 행성우에 눈물의 소나기를 쏟으며  
하늘이 내신분을 조상했거니

조기에 가리워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눈물에 가리워 땅이 보이지 않았다  
태양도 빛을 거두었고  
지구도 운동을 멈추었다

세계는 더 깊이  
수령님 지니신  
심장의 무게를 알았나니  
그것은  
만민이 안겨사는  
지구의 무게  
정의와 진리의 무게  
시대와 력사의 무게

사람들은 알았어라  
그이의 크나큰 심장이  
지금껏 자기들의 심장에 박동을 주고

자기들의 운명에 숨결을 주고있었음을  
그이의 위대한 심장이  
인류의 구성이었음을

아, 그 어떤 기적이  
세계를 휩쓴 눈물의 홍수를 가시며  
그 어떤 천지조화가  
그 거대한 상실의 공간을 메우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모시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잃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할수록  
사무치던 그리움  
가슴속에 타끓던 정

얼마나 수령님이 그리웠으면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수령님께서 멀리 출장가신것만 같다고  
출장가시여  
이번에는 오래 계시는것만 같다고  
그렇게 뜨겁게 말씀하시라

만약 그 그리움으로  
산을 쌓는다면  
이 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으리라  
그 그리움의 뜨거움으로는  
바위도 녹이리라  
강철도 녹이리라

그 그리움을 안고  
설날이면  
수령님과 함께 맞던 설날이면  
수령님 가셨던 그 길로  
사적깊은 초소를 찾으신 그이

겨울의 추위도 아랑곳 앓으시고  
바다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수령님 오르셨던 함선에 오르시고  
수령님 앓으셨던 그자리에 앓으시여  
녀성초병들의 공연도 보여주시던 그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가슴속에  
수령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더 깊이 새겨주시었더니

그 나날에 다는 몰랐던  
친애하는 그이의 그 높은 뜻을  
내 오늘 여기서  
가슴깊이 새기노라

예대로 푸른 하늘아래  
예대로 밝은 해빛이 내리는  
승엄한 계단위에 생각을 얹으며  
아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주체의 최고성지위에 빛내주신  
그 뜻을 가슴뜨거이 새겨안노라

정녕 우리 보낸 이 한해는  
수령님을 영원히 모시려는  
친애하는 그이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을 덥혀온 한해

아, 반만년 력사에 처음으로 모신  
위대한분을 다 알게 한 한해였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이  
천만년 세월과 함께 어떻게 영생하는가를  
세계앞에 참된 진리로 보여준  
불멸의 한해였다

× ×

끝없는 고요가 승엄히 깃들고  
은은한 불빛도  
속연히 흐르는  
금수산기념궁전

여기에 한번 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으리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쌍으신 그 업적  
얼마나 빛나는가를

인민을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를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신 수령님

내 두려움을 금할수 없구나

나의 많지 못한 이 언어가  
나의 크지 많은 이 목소리가  
위대하고 숭고한 그이의 한생을  
순간이나마 흐리지 않을가

만민을 다 안아준  
하늘처럼 크고 넓은 그 품  
태양같이 환한 그 미소를  
한줄기라도 가리우지 않을가

내 조금이라도  
그이 불멸의 위업을 과장한다면  
시대여, 력사여  
이 시인을 끝없이 저주하라

내 보고 느끼며  
있었던 그대로  
보태지도 덜지도 않고  
나는 적으련다

가자, 사람들이여  
그이 걸으신 자욱자욱을  
깨끗한 마음으로 더듬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새기며 가자

나라잃은 설음이  
하늘에 무겁게 드리웠던  
1912년  
그이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렇게도 조용히 오시었다

등잔불 가물거리는 여늬집과 다름없이  
그이 탄생하신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집에선  
가정에는 효자동  
나라에는 영웅동  
강반석어머님의 자장가소리가  
앞뜰의 들메나무를 감돌아  
만경봉의 솔숲에 은은히 퍼져갔거니

그렇게도 조용히 오시었다  
그이께서 우리 인민에게 오실 때는  
허나 그날부터  
만경봉엔 무지개가 비끼고  
조종의 산 백두산엔 번개가 치고  
이 나라의 푸른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라

우리 모두  
그이 품에 안겨 살아오면서  
다같이 알지 않았더냐  
그이께서 언제 어떻게  
혁명의 첫걸음을 옮기셨는가를

나서자란 정든 고향집  
만경대사립문을 나서시여  
얼어붙은 압록강은 어떻게 넘으셨는가를  
낮설은 이국땅 거치른 들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다 묻고  
숫구치는 오열은 어떻게 참고  
백두설령은 어떻게 넘어오셨는가를

그 나날에  
인민은 얼마나 밝은것을  
조국은 얼마나 위대한것을  
인류는 얼마나 영원한것을 받아안았더냐

이 세상 처음으로  
그이는 주인없던 이 세계에  
주인을 내세우는  
거룩한 빛을 창조하여  
누리에 가득 뿌려주셨거니

그이는 그 빛으로  
인간이 수천년을 쓰고 살던  
노예의 사슬을 벗겨주시고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떠워주셨어라

새날이 와도  
새날을 모르던 이 나라에  
그이는 그 빛으로  
어둠던 밤을 몰아내고  
해방의 새 아침을 불러오셨어라

그이는 그 빛으로  
붉은기를 물들이고  
혁명을 향도하는 당도  
혁명을 지켜가는 군대도 창건하셨고  
인민이 제일로 살기 좋은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을 세우시고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의 무궁한  
번영을 안아오셨어라

아, 그 빛은  
이 세상 처음

인민이 세계의 주인된  
새 세상을 세우고  
인민이 가고 혁명이 가야 할  
력사의 진로를 밝힌  
주체의 빛!

생각할수록 감사와 고마움에 젖는 마음  
우리의 손에  
운명을 개척하는 열쇠를 쥐여주시고  
인류의 가슴에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를 안겨주시고  
력사의 대로에  
혁명의 기관차를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래서 태양의 이름을  
누구나 다 알듯  
우리 수령님의 이름은  
세상이 다 아는것 아니던가

그 이름은 주체  
그 이름은 자주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인류의 영원한 태양

하기에 수령님 열어놓으신 길은  
어느 한곳도 굽은곳이 없는  
곧바른 길  
주체의 길

인류가 처음 보는 초행길이여서  
그 길에는  
눈보라도 사나웠고  
폭우도 사나웠고  
불구름도 사납게 휘몰아쳤건만

세월의 장구한 흐름도  
이 길에만은  
이끼와 락엽을 덮지 못했노라  
안개와 구름도 끼지 않았노라

아버이수령님  
진두에서 걸으신  
그 자욱으로 열리고  
그 자욱으로 다져진  
정의의 길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승리의 길

그 길에  
꽃핀 민주의 봄  
설레는 협동화의 가을  
하늘땅을 울리던 천리마의 발굽소리...

그 길에  
무성한 주체의 푸른 숲에서  
자주인간의 아름다운 노래  
참된 삶의 향기가 넘쳐흘렀나니

력사의 이 길을 따라  
인민이 왔고  
조국이 왔다  
혁명이 왔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왔다

세월이 갈수록  
이 길은  
제국주의광풍에도 드놀지 않고  
자본주의 풍랑에도 씻기지 않으며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광활해지나니

그 길을 끝없이 이어가라고  
그 길을 튼튼히 다지며 가라고  
그 길의 진두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위대한 사상  
위대한 령도  
위대한 품모로  
수령님은 이 세기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유일한분  
20세기는 **김일성**세기로  
력사의 한복판에 솟아 빛난다

영원히 빛난다  
이 세기를  
21세기-**김정일**세기로 이어놓으신  
불멸의 그 위업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빛난다

나는 시의 무기로  
진실을 말하는 공산주의자  
하느님을 내 믿지 않거니  
그러나 나는

우리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밝혀준 그이를  
하늘이 낸 위인이라 부른다

이는 그이께 드리는 보은의 인사  
허나 그이는  
단 한번도 그런것을 바라지 않았으니  
그이는 그저 우리와 다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통인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셨다

옷을 하나 해입으셔도  
우리과 똑같은 그런 천으로 해입으셨고  
우리과 단 한치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고 사업하셨어라

그러나 그이는  
우리를 위하시느라  
우리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나셨고  
밤늦게까지 일하시였어라

그이에게서 인민은  
자신의 아들딸들이였고  
그이에게서 조국은  
자신의 한몸이였기에  
가지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듯이  
인민을 두고 근심도 많으셨던분  
동지의 아픔을 두고 눈물도 많으셨던분

절세의 애국자  
만교의 영웅 백전로장이시기전에  
그이는 인간  
동지들을 위해 사는것이  
만경대의 가풍이였다고  
자신도 동지들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해서 산다고  
사랑담아 말씀하시며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던  
아, 그날의 수령님 모습이어

우리를 따뜻이 보살피시느라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신 그이  
우리에게 흰쌀밥을 먹이시려 마음쓰시며  
자신은 백두산에서 맛을 들여  
강냉이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자주 강냉이죽을 쑤어 잡수신 그이

국제친선전람관  
그 긴긴 복도를 걸으며  
우리는 왜 후더워오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던가

세계에 다시 없는 위대한분이어서  
세계의 수많은 수반들과 정치가들  
싸우는 혁명가들과 소박한 인민들이  
가장 높은 존경을 담아  
값진 선물을 보내왔건만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인민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신분  
그리도 겸허하게  
그리도 소박하게 한평생을 사신분

나는 모른다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해  
그렇게 불같이 사시다  
그렇게 불같이 가신분을  
그렇게 생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간  
그런 위대한 인간을

마치 떠나가실것을  
미리 다 아신것처럼  
수령으로  
아버이로  
인간으로 해야 할 그 모든 일  
미결전이 없이  
하나하나 다 매듭을 지으시더니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집무실에서 순직하신분  
물어보자 세계여, 역사여  
그런 인간  
그런 혁명가  
그런 령도자가 그 언제 있어보았더나

허나 우리에게 젖어드는  
하나의 생각이 있나니  
그것은 수령님께서  
자신의 회고록을 다 쓰지 못하고 가신것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  
헤쳐가신 길 굽이굽이  
걸어오신 자욱자욱에 새긴  
전설같은 그 사연  
혁명의 그 철리를

시대와 력사에 남기시라고  
우리 그리도 간절히 청을 올리였던만

너무도 겸허하시여  
너무도 소박하시여  
너무도 시간이 없으시여  
오랜 세월 미루어오시며  
봄을 들기를 사양하시던  
우리의 수령님

아, 인민이여 조국이여  
그이는 비록  
혁명의 먼길에 끝내 짊을 못내시여  
회고록을 다 쓰지 못하셨지만  
그이의 한생-그것은 곧  
혁명의 총화이기에  
인민의 가슴속엔 그것이 다 적혀져있고  
세월의 갈피마다에 다 찍여져있나니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온  
영광스러웠던 나날이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인민이  
수령님을 모시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았던  
그 나날들을  
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리 수령님은  
학문에서도 최고의 최고  
군사적지략에서도 최고의 최고  
인덕에서도 최고의 최고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동서고금을 다 뒤져보아도  
사상도 제일  
령도도 제일  
덕망도 제일이어서  
수령님 지니신 권위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권위라고  
력사의 정의를 내리시였거니

오실 때는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렇게도 조용히 오시였던만  
가실 때는  
우리결을 떠나가실 때에는  
천지를 진감하게 하신분

세계를 한꺼번에 울게 하신분

한생에 이룩하신 위업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에  
이 땅에 남기신 업적이  
너무도 거대한것이기예

이 땅엔 수령님 탄생하신 날만 있고  
수령님 가신 날은 없어라  
흘러가고 흘러오는 무궁한 세월속에  
4월은 있어도 7월은 없거니

이 땅에서 시작되어 누리를 덮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하늘땅에 영원히 울려퍼지리  
인류의 송가로  
천년만년 울려퍼지리

× ×

오오, 성스러운 땅  
주체의 최고성지여  
내 여기에 서니  
우주의 한끝이 다 보여오고  
억만 심장의 박동소리가 다 들려오누나

나는 보노라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  
신념으로 역세여지고  
의리로 고결하고  
한생의 맹세로 불타는  
순결한 그 가슴들을

락관에 넘친  
우리의 로동계급과 협동농민  
지식인들과 청년들  
일당백병사들과 씩씩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슬픔의 눈물을  
맹세의 불길로 태우며  
비에의 바다에서 일어섰던가

하늘도 무겁게 내려앉고  
소낙비도 무겁게 쏟아지고  
가슴도 눈물도 무거워  
머리를 들수 없었던 그날

할 말을 잊었던 그날  
눈물만이 말하던 그날  
그 어떤 거대한 힘이  
온 나라 수천만을  
곳곳이 머리들고 일어서게 했던가

엄숙한 추도대회가 거행되던  
**김일성**광장 주석단의 한복관  
천만눈길이 합쳐지던 거기  
세계의 초점이 모여지던 거기

거기엔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위대한 그이께서 서계시였나니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 순간  
우리는  
빛에 이끌려  
힘에 이끌려  
일제히 머리들어 바라보았다

그이도 역시  
검은 옷을 입으시고  
무거운 마음을 안으신채  
말없이 서계시였다

슬픔이면  
이 세상 가장 큰 슬픔을 안으셨고  
아픔이면  
이 세상 가장 큰 아픔을 당하시였건만  
신념과 의지로 확신에 넘치신  
그이를 바라보았다

막혔던 물목이 터져  
노도치는 대하인양  
지각을 뚫고 솟는 화산의 분출인양  
가슴에 솟구치는 새로운 힘과 신심을 안고  
우리는 그이를 우러렀나니

그이도 우리를 바라보고계셨다  
수령을 잃고  
아버이를 잃고 슬퍼 우는 인민  
수령님 한생바쳐 키워놓으신  
우리 인민을 바라보시였다

그이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였으나

우리는 다 들었어라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그이 심중의 말씀을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대대손손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도 건설도 그 모든 투쟁도  
수령님식대로 하리라는 그 말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절절히 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또 들었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그이의 간곡한 그 말씀

우리는 다 듣고 다 알았나니  
수령님 업적을 100프로 계승하시고  
100프로 고수해나가시는  
그이의 그 억척같은 의지를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주체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실  
그이의 그 불같은 맹세를

그 맹세  
그 결심에서  
이 땅에 영원한 신념의 구호가  
높이 울리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그 맹세  
그 결심에서  
세계의 마음들이 달려오는 여기  
금수산기념궁전  
주체의 최고성지가  
행운의 이해에  
높이 솟아 빛나지 않느냐

인민들과 함께 있어야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편안해하시고  
인민들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 제일 큰 락으로 아신  
수령님이시기에

수령님과 함께 있어야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고  
수령님과 함께 있는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으로 아는  
인민이기에

수령님의 그 소원  
인민의 그 념원을 담아  
주체의 최고성지 여기에 펼쳐  
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나는 아노라  
수령님의 생각  
수령님의 마음이자  
친애하는 그이의 생각이고 마음임을  
그이의 마음이자  
우리 인민의 마음임을

인민때문에  
수령님과 밤도 같이 지새셨고  
인민때문에  
새벽길도 같이 걸으셨고  
찬비도 같이 맞으신  
친애하는 그이

두분이 함께 기뻐하시고  
두분이 함께 피로워하셨다면  
그것은  
다 인민때문이였나니

아, 그래서  
수령님과 친애하는 그이 사이에  
마지막으로 오고간 전화도  
인민을 두고  
인민을 위해 하신 전화가 아니였던가!

사상도 인민을 위한 그 사상  
령도도 인민을 위한 그 령도  
풍모도 인민을 위한 그 풍모를



그대로 지니시고 구현해나가는  
인민의 령도자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모든것을 수령님 가르치심대로  
모든것을 수령님식대로  
모든것을 이 세상 모든것을  
오로지 수령님을 위하여!

아, 이것이  
력사의 조종간을 틀어쥐신  
위대한 그이의  
정치철학  
정치방식  
정치신념

세계는  
력사가 알지 못하던  
위대한 인간을 보았고  
위대한 혁명가를 보았고  
위대한 령도자를 보았다

그 고결한 품모  
그 위대한 도덕으로 하여  
그이는 수령님을 잃어  
멈추어섰던 이 행성을  
다시 돌리신 유일한분

위대한 주체의 빛으로  
력사의 진로를 밝히시며  
수령님의 위업을 빛내가시는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

친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이 땅에 솟아오른  
주체의 최고성지는  
의리의 절정  
도덕의 절정  
충효의 절정

그 절정우에  
우리 수령님  
생전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며  
오늘도 여기에 계신다  
인민들과 함께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시며  
인민들을 만나시며  
해야 할 일을 의논해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리켜주신다

여기에 계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일심의 대오에  
투쟁의 노래를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

이 땅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지구의 한끝에서 한끝까지  
태양의 미소로 축복하시며  
붉은기가 지구를 덮을  
자주의 먼먼 미래를 열어주시나니

**김정일**동지  
그이 계시며  
수령님은 오늘도  
인류의 심장에 고통을 주시며  
새 세기를 향해 걸어가신다

부러워하라 세계여  
위대한 두분을 함께 모시고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  
수령복을 누리며  
한껏 궁지와 환희를 안고 살아온  
영광에 찬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라

백년 세월이 흐르고  
천년 세대가 바뀌어도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영원한 어버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

아, 주체의 최고성지  
여기서 인류는 보리라  
후대들은 보리라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모습과 함께  
무궁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과 함께  
수령님의 영생의 모습을 보리라!  
영원한 태양을 보리라!

(1995. 6. 21.)

# 위대한 영생

김일규

푸르스름한 하늘을 열며  
너무나도 귀에 익은 노래의 선율이 흐른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그 영원의 음향에 이끌려  
이 땅의 아침은 밝아와라

보라  
곱게 단장한 새 세기도 노을의 자락으로  
또 하루 성급한 손길을 내어미는구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영생의 넋  
주체의 숨결높은 이 시대를 마중해  
21세기도 바빠 서두르는구나

지구는 예대로 돌고있다  
흠칫하는 불행의 충격으로  
영영 멈춰서는듯하던  
그 순간의 메아리를 지심깊이 묻은채  
조선을 축으로 돌고있다  
조선이 없는 세계는  
리념이 없고 정의가 없는것이기에

활기찬 걸음들이 대지를 구른다  
무심한 돌하나 움켜쥐여도  
한해전의 그 피눈물이 흐를 땅우에  
실망과 비판에 비칠대는 걸음 하나없이  
우리 수령님 환히 미소하시는 거리거리엔  
신심과 위훈의 열정만이 약동하노라

그리고 꽃이 많이 피는 강산에  
한순간에 꽃이 발라졌던 그 아픔도 사무쳐서  
눈물을 삼키며 피우고 또 피운 꽃이건만  
오늘도 수령님 손드시고 나갈길 가리키시는  
승엄한 동상의 대돌우에  
우리는 추모의 꽃송이로 없지 않노라

이 아침의 청신한 대기속에도  
박동높이 흐르지 않는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우리 수령님 방금 펜을 놓으신듯한

활달하신 필체의 회고록을 또 받아안고  
운명의 교과서처럼 손에서 놓지 않는  
저 후더운 가슴가슴에  
수령님의 숨결은 높뛰고있어라

우리 분명 듣지 않았던가  
불별마저 심장을 달구던 영결식장에서도  
잠을 잊고 신년사를 기다리던 설날아침에도  
분명 아버지의 친근한 그 육성을 들으며  
한가닥 마음의 허전함도 빈 공백도 모르고  
해야 할 일을 안 우리가 아닌가

바라보라  
우리 수령님 구상이라면  
우리 장군님 결심으로  
그 무엇이든지 현실로 되는 오늘  
조선의 성격과 징표인양 일떠서는  
마치와 낫과 붓이  
수령님의 존함으로 영원한 우리 당의 신념을  
하늘을 치받으며 떨치는것을!

정녕 낮이나 밤이나  
가장 친근한 아버지로  
가장 위대한 수령으로 찾고 부르던  
그 영원의 부름을 우리는 잃지 않았나니  
그 부름으로 영원히 모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수령님이 계신다  
**김정일**장군님이 계신다

오, 내 나라의 운명에 피처럼 스미인  
수령님의 사랑은 만대에 이어지리  
력사에 빛나는 만고의 위업은 불멸하리  
인자함과 자애로움 친근한 그 미소도  
우리 장군님의 모습으로 영원한 세월속에  
아버이수령님은 영생하신다!  
조국과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 기다리는 마음으로

로응렬

때없이 마음에 젖는 생각-  
어버이수령님은 출장중이신듯  
지난해와 다름없이  
모살이 끝난 논머리마다 찾으시며  
현지지도 하시는듯  
  
현지지도 마치시면  
예나 다름없이  
환히 웃으시는 모습으로  
평양에 돌아오실듯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도 들리시여  
숫아오르는  
마치와 낫, 붓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고  
더없이 기뻐하시교

청류 금릉  
새 다리 새 동굴도  
만족하신 마음으로 걸으시며  
큰일 했다고 치하하실듯

**김정일**장군님 받들고 따르는  
우리 인민 당할자 없다고  
일이 잘되어 나라가 흥한다고  
그래서 어디 가나

마음을 놓으신다고...  
  
그렇게 돌아오시면  
너무도 오래 가계셨다고  
그 품에 얼굴 묻은채  
어째서인지 눈물만 쏟을것 같은  
못견디게 그리운 어버이수령님  
  
그렇게 돌아오시면  
휴식 한번 드리지 못한  
가슴아픔을 누르지 못하여  
이제 더는  
현지지도 못가신다고 간절히 바라며  
목메여 흐느꼈것만 같은 우리 마음

아 수령님  
정말로 현지지도 가신것 아닐가  
래일이라도 돌아오시지 않을까  
믿고만싶은 마음이어!  
기다려만지는 마음이어!

사무치게 간절한 이 마음  
세월에 세월을 이어  
우리 언제나  
수령님을 생각하며  
수령님을 모시며 살리!

# 우리 다 알지 못하리

오영재

가까이 모시고  
한생을 따르면서도  
그이 위대함을 우리 다 알았던가  
하물며 이 세상의 그 누가  
친애하는 그이를 다 알수 있을것인가

지구우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그날  
그날이면 오 그날이면  
우리 다 알수 있을것인가  
그이 어떤분이시여서  
제국주의의 사나운 포위진을 돌파하고  
20세기의 혁명을  
21세기로 이어놓으셨는가를

그이는 만민이 칭송하며  
흠모의 정을 안고 우러르는분  
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완강한 의지로 세기를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국방의 수위에 거연히 서시여  
힘과 지략의 보검을 드신  
담대하고  
불의에 칼날갈고  
용단에 단호하신 강철의 령장

허나 그것만으로  
어찌 그이를 다 알았다 말할수 있으랴  
다감한 인간의 그 심장은  
보이지 않는 장군의 갑옷밑에서  
후덥게 고동치고있나니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일촉즉발의 전쟁도화선에  
세계가 눈길을 모으고 불안에 잠겨있던  
그런 날 그 깊은 밤에  
그이 홀로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시며 작전도앞에 계시였음을

조국과 인민과 내 나라 강토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이 땅이 낳은 노래를 사랑하시는 그이  
원썩들이 한치의 땅도 건드리지 못하게  
자신의 불타는 가슴으로  
인민을 뜨겁게 안고계시는분

그이는 그 사랑의 노래로  
인민과 영원히 하나가 되시였고  
창검이 미치지 못한곳에선  
노래로 원썩의 가슴팍을 꿰뚫으시나니

그이의 위대한 존함  
전설로 전해지고 이어지며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리한 그날  
력사가 말하고 후대들이 말하리라  
사회주의를 구원한 력사의 위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그이는 다감하고 눈물도 많고  
노래를 남달리 사랑하시는  
위대한 인간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장군중의 장군이심을  
불같은 심장의 노래로  
세기를 포용하시고 인류를 감화시키신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허나 그날에도 세계여  
우리 그이를 다는 알수 없으리  
그이는 력사의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런분이시기에  
그이는 무한한분이시기에

(1995, 4, 6)

## 부탁

최봉무

사람이 살아가느라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남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부탁을 받기도 한다.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속에서만 생존할수 있기때문에 자기에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불피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나 사정들이 수시로 생기게 된다.

평범한 공민인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역시 남에게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고 또 남의 부탁을 받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때도 적지않다.

그러나 선뜻 할수 없는것이 부탁이다. 남에게 부탁을 할 때에는 누구든 먼저 그 사람의 얼굴부터 쳐다보게 된다. 그것은 부탁이 믿음의 표시이고 호상 신의의 표시이기때문이다.

마음을 의탁하기전에 먼저 할수 없는것이 또한 부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활적으로 말할때 부탁은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친근한 사람에게 하게 된다고들 하는것이다.

나는 오늘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한푼을 맞으며 《부탁》이라는 이 평범한 한마디의 단어를 두고 생각이 끝없이 깊어진다.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처럼 부탁을 많이 받으시고 그것을 해결해주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마음 쓰신분은 없을것이다. 그러한 실례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나는 이 시각 내가 잘 알고있는 한두가지의 사실을 두고 친근하신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다시금 추억하자니 눈물부터 앞을 가리워 마음을 다 잡을수 없다.

그때가 바로 1957년 5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미제침략자들이 무참히 파괴한 나라의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1차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서면서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날 동해기슭의 자그마한 바다가마음을 찾으시였다.

그 마을을 은호마을이라고 불렀다.

도무지 40여호가 되나마나한 이 마을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협동화방침에 따raje 손으로 수선허동조합을 못고 고기도 잡고 농사도 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있었다.

이름없는 이 한적한 마을이 이렇듯 큰복을 받을줄을 누가 알았으랴.

관리일군들과 함께 조합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농촌집에 들리시였다.

그 집식구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칠순의 로인이 집에 혼자 있었다.

집구경을 왔다고 하시며 마당에 들어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앉는 로인을 보시고 몸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시였다.

로인은 등이 굽고 눈이 어두워져서 수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이신가고 물었다. 그러자 수원들이 큰 목소리로 수령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알려주었다.

《수령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찾아오시다니...》

로인은 너무 황송하여 두손으로 방안을 가리키며 어서 들어가시자고 권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깥도 괜찮다고 사양하시며 로인님은 지금 년세가 어떻게 되며 애로는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로인은 수령님의 살뜰한 그 물음에 《군대에 나간 말손자가 보고싶습니다.》 하고 스스럼없이 말씀올렸다. 찾아오신분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이시고 또 허물없이 대해주시니 마음속 작은 소청도 조금도 주저없이 털어놓고 하고싶었던것이다.

손자가 군대에 언제 나갔는가를 알아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제 몇해만 지나면 만나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여 로인을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며 참 손자가 보고싶겠는데 한번 휴가를 받아 오도록 하겠으니 넘려마시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로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년세도 많으니 생전에 한번이라도 손자를 더 보고싶어하는 깊은 속마음을 헤아리셨던것이다. 로인은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그이의 손목을

잡은채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러는 로인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께서 또 다른 애로가 없는가고 물으시자 로인은 《제 나이 일흔이 넘었는데 나라의 수령님을 뵈기까지 하였으니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올렸다.

로인의 부탁을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손자의 주소를 수첩에 적으셨다가 평양에 돌아오시여 민족보위성책임일군들에게 로인의 손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지시하시였다.

로인의 맏손자는 곧 휴가를 받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으며 그후에는 제대되어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게 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가시는곳마다에서 이런 부탁을 수없이 받으시였다. 또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친혈육이나 함께 일하는 웃일군들에게도 어려워 제기할수 없는 사정들도 수령님앞에서는 마음놓고 부탁하곤하였다.

그 이듬해 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북방의 어느 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발머리에 마주앉으시여 담화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한 조합원녀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시기에 아들이 이발을 부상당하였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역시 허물없는 부탁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함께 온 도당의 책임일군에게 이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이발을 해주도록 합시다라고 하시며 그 조합원녀성의 부탁을 따듯이 받아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사로운 부탁마저 허물없이 툭 털어놓고 할수 있겠는가.

복잡하고 어려운 수많은 국사를 무겁게 지니시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는 수령님께 감히 이처럼 개인의 사소한 일마저 부탁할수 있는것은 우리 수령님과 인민이 한치의 간격도 없었기때문이다.

실로 수령님은 우리 인민과 제일 가까운분이시였고 우리 인민과 제일 친근한분이시였다. 그래서 우리는 수령님을 인민의 어버이, 인민의 수령, 인민의 태양이라고 부른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정말 가슴이 터지고 애석함을 금할수 없다.

사람은 부탁을 많이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늘 말씀하시며 그 어떤 외람된 부탁이라도 웃으시며 다 받아주시던 우리 수령님!

인민의 부탁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탁은 그 어떤것이라도 죄다 풀어주시였으나 단 하나만은 풀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결을 떠나셨다. 그것은 수령님자신을 위한 부탁이었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만날 때마다 《수령님,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민을 위한 로고를 생각하며 건강을 간절히 부탁하였다. 또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념원하여 마을과 거리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탑을 세우고 수령님의 만년장수를 기원하였다.

그런 부탁을 안고산 우리 인민이었기에 세월이 갈수록 수령님을 더더욱 그리워하며 그이의 서거를 것처럼 비통해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더 오래오래 모시지 못한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장 큰 마음의 상처로 새기고있다. 우리 **김일성**민족사에서 다시는 되풀이할수 없는것이 이 상처이다.

우리는 지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더욱더 배심있게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가는 주체혁명승리의 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한다는 철의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만수무강을 제일생명으로 지키며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것이다.

이것이 지난날 어버이수령님께 수많은 부탁을 드리고 로고를 끼쳐온 우리 인민의 의지이다.

## 신기령

손광영

3월하순치고는 류달리 잠풍한 산촌의 아침이다. 올해에 들어와 첫째를 띄우는 날이라 온 마을이 떨쳐나서 이른아침부터 흥성거린다. 물을 가득 채워놓은 물동쪽에서는 어제 저녁에 무어놓은 폐목들을 내려보낼 준비가 한창이고 조반을 짓느라고 집집마다에서 피워올린 연기는 물소리 소연한 계곡우에 드리워 생활의 입김처럼 흐느적이며 굵니고있다.

신기령도로관리원 라정규는 토방우에 걸터앉아 삽날에 자루를 맞추느라고 섬돌에 대고 텅텅 울리다가 누군가가 찾는바람에 고개를 들었다. 언제 마당으로 들어섰는지 류벌사업소 소장 한영훈이 굳어진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설희네 집에 왔다가 차마 그냥 지나칠수 없어서 들렀지요. 한대 피우겠습니까?》

소장은 정규의 옆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오늘 첫째가 내린다니까 그애 아버지가 미안해 하며 물동까지 따라나오려구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띄우는 첫째인데 자기도 폐목을 타구 내려겠다는거지요. 그래서 폐목은 이 소장이 탈테니 그런 걱정은 아예 말라구 단단히 오금을 박아놓았수다. 그러다가 대사를 망칠수 있거든요. 아무래두 놈줄 처녀인데 까짓거 아래물동에 폐두 보내구 색시두 보내자는겁니다.》

한영훈은 두툼한 입술을 빙글썩 열며 깊숙이 들이켰던 담배연기를 흐뭇하게 내뿜었다. 정규는 자못 궁급해졌다. 그가 들린것은 인연깊은 추억이나 여담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닐것이다. 소장은 정규한테서 분대장 《감사》를 받고 벌어진 일을 다물지 못하던 어제날의 상등병이었다.

한영훈은 어느새 타버린 담배꽂조를 아쉬운 눈길로 바라보더니 발끝으로 비벼끄고 일어섰다. 우정을 나눌 아침시간이 불과 7센치미터밖에 안되는 담배대의 길이보다 더 짧은 모양이었다.

《참, 중요한걸 잊을뻔했수다. 분대장동무, 류벌공들의 〈귀향〉에 지장없도록 령길상태에 주의를 돌려주시우. 중대한 〈행사〉가 있을수 있으니까.》  
《중대한 행사라니?!...》

《아무렴, 행사도 이만저만한 행사가 아니지요. 우리 마을은 물론 온 신기령의 행사랍니다.》

한영훈은 껄껄 웃으며 숨쉴수 있는 폐목이군자세로 떼바통구리를 한쪽어깨에 걸치더니 물동쪽으로

로 급히 가버렸다.

앞집 대사를 도와주느라고 새벽에 나간 마누라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정규는 기다리다 못해 작업복을 꺼입고 부엌바닥으로 내려섰다. 잠간사이 밥그릇을 밀창내고 입술을 흠치는데 마누라의 아연해진 얼굴이 부엌문으로 불쑥 나타났다.

《아니, 오늘두 산으로 가시려오?》

《가지 않구. 》

《그럼 설희네 잔치는 어쩌하겠수? 그러지 않아두 령감을 보내라구 채삼 당부하던데... 어이구, 벌써 한그릇 했수다레.》

정규는 장화목다리에 바지가랑이를 쭈서넣고 움쭉 일어섰다.

《신랑이 상받을 땐 내려오지.》

《빨리 내려오우. 일생 하느니 그 일인데 하루 설친다구 큰일나겠수.》

《거 무슨 쓸데없는 소릴.》

가볍게 편잔을 주었는데도 마누라는 별스레 용을 쓴다.

《어디 말하지 않게 됐수. 이제는 예순살이 지났는데 령길에서 좀 물려서면 못써요? 령감이 그러니 놀러 왔던 손주녀석들은 닷새두 못채우고 달아나지.》

저건 엉터리다, 평성에서 놀러 왔던 손주들이 가버린건 방학이 끝났기때문이지 결코 자기탓이 아니다. 하지만 정규는 손주녀석들을 다 보내고 나서 노염을 쓸 구실을 찾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로친의 심정을 가궁히 여기지 않을수 없었다. 군대나간 막내아들 경수가 제대되어오면 물려서겠노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나서야 마누라를 겨우 진정시킬수 있었다.

정규는 물푸레나무로 자루를 해맞춘 삽을 들고 마을길을 걸어갔다. 류벌사업소와 산림운영반사람들이 의종게 모여사는 오붓한 동네이다. 신기령을 넘어온 도로는 령밀에 자리잡은 마을을 지나 대동강상류를 옆에 끼고 우리 나라의 대림업지대인 대흥쪽으로 멀리 뻗어갔다.

령길을 오르려면 김상수의 집옆을 지나가야 했다. 저기 돌배나무아래 지붕을 인 류벌공 김상수의 집에서는 지금 신랑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활-열어젖힌 부엌문으로는 감미롭고 구수한 음식냄새와 기름냄새가 진하게 풍겨나오고 마당이 좁다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발치에서는 복슬강아

지가 덩달아 꼬리를 짓는다.

젊었을 적엔 퍼그나 호남아였을 신부의 아버지 김상수는 감개무량한듯 마당가를 서성거리다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라정규를 보고 울바자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아, 라형님, 어서 들어오시우.》

정규는 짜리나무울바자를 사이에 두고 김상수와 마주섰다.

《기쁘겠네. 자네가 장가들자구 신기령을 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설희가 벌써 시집을 가게 되었구만.》

《지내보니 사람은 그저 이 재미루 살지요. 이젠 옛말루 됐지만 처음 신기령을 넘을 때엔 마음을 붙일것 같지 못합디다. 그런데 마누라는 나를 사랑한다구 하면서도 선뜻 따라나서지를 못했지요. 뭐, 고향을 떠나선 못살것 같다나요. 열려두보구 위협두 해보았지만 울기만 한단말입니다. 화가 굴뚝같이 나서 떠나려구 했지요. 제까짓거 없으면 장가를 못든다더냐. 그런데 정작 신기령에 올라서서 라형님을 만나구보니 이 산골을 못뜨는 처녀의 심정이 가슴을 치더라말이요. 더우기 우리 수령님께서 미끄러운 령길을 걸으시여 찾아주셨던 고장이라구 생각하니 못떠나는 그 심정이 오히려 돋보이지 않겠소. 그래서 다시 돌아섰수다. 처음엔 색시한테 정이 들어 한해를 살구, 그다음은 줄레줄레 태어나는 자식들이 고와 세월가는줄도 모르구... 한뉘 로친한테 쥐여살았으니 허- 세월이란 참.》

평소에 말이 적던 김상수가 돌연 다변가로 된 것이다. 얼굴이 불깃불깃 달아오르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있었다. 그의 딸 설희는 아버지를 닮아 인물이 환하지만 마음씨가 착한것은 그대대로 제 어머니이다. 그런데 안주인은 세대주와 달리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몸집도 체소하다. 키가 구척장신 같은 김상수가 이런 안해에게 반해서 신기령을 넘었으니 만일 세상에 연분이 있다면 이들을 두고 이르는 말일것이다.

어느덧 마음이 즐거워진 라정규는 땅우에 세워짚었던 삽을 어깨우에 둘러메었다. 그러자 김상수가 실망해서 한손을 내젓는다.

《아니... 그냥 가시려우?》

《령길을 돌아보구 인차 내려오겠네.》

《원... 라형님은 신기령에 접하나보우다. 하긴 아들네 집에 갔다가도 돌아섰은즉 우리 집 대사같은거야 대수롭지 않지요.》

《사람두, 노여웠나?》

《아니, 믿겠수다. 우리 딸애가 떠날 땐 꼭 들려야 하우다.》

《암, 들리잖구.》

라정규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듯 걸음이 가벼워진다. 기분도 상쾌하다. 제 고향을 못떠나는 류

벌사업소 처녀한테 반하여 장가들었던 제대군인 청년이 아들딸을 낳고 재미나게 살다가 오늘은 유치원교양원을 하는 외동딸 설희를 아래물동의 일잘하는 류벌공총각한테 시집보내는것이다.

라정규는 령길로 접어들다가 갑자기 계곡을 뒤흔드는 장쾌한 물소리에 고개를 돌려보았다. 순간 그의 입에서는 부지중 탄성이 터져나왔다. 류벌사업소가 있는 물동쪽에서 드디어 수문이 열린 것이다.

뜰안에 갇혀 출렁거리며 출구를 찾아 밀려다니던 물이 시원하게 들린 수문밑으로 통채로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호반처럼 넓은 물우에서는 류벌공들이 긴 장대를 다듬어 만든 때박죽을 저어 때목을 수문쪽으로 움직여가고있었다. 60립방이나 되는 통나무들을 참나무줄기로 탕개틀어 단단히 결은 화살부호모양의 때목은 그 어떤 마술적인 힘에 끌려드는듯 수문이 가까와질수록 속도를 높인다. 드디어 앞머리가 불가항력적인 흐름속에 말려들었다. 류벌공은 마음의 탕개를 한껏 조이며 온 몸의 신경을 오직 틀어쥔 키대우에만 집중한다. 언제며 뜰우에 가득 올라선 구경꾼들이 가장 볼만한 광경은 바로 그 순간이다. 만일 구경꾼들속에 류벌공총각과 사랑을 언약한 처녀가 있다면 대번에 알아볼수 있을것이다. 수문에서 일어난 습기찬 바람에 옷자락날리며 서있는 그 처녀의 얼굴은 긴장과 우려로 하여 창백해지고 눈빛은 초볼처럼 불안하게 떨리는데 산더미같이 쏟아져내리는 급류를 타고 때목이 곤두박힐듯 수문을 통과하는 순간 처녀는 그만 저도모르게 가벼운 비명을 지르며 두손을 봉긋한 가슴우에 꼭 모아쥔것이다. 하나 련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슬기로우며 장엄한 순간을 펼쳐보인 총각은 나는듯이 내달리는 때목과 함께 어느덧 아지랑이가 아물거리는 끝짜기 저멀리로 사라지며 뜰우에 서있는 처녀에게 한손을 높이 흔들려준다.

아마도 그러하였으리라. 예순살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젊음과 열정에 넘쳐있는 한영훈소장도 어제날 때물이군의 숨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아찔한 수문을 그렇게 통과하였을것이다.

사랑의 때, 위훈의 때, 인생의 때가 내리는것이다.

《축하하네 영훈이, 드디어 자넨 첫째를 띄웠구만.》

라정규는 선두때를 재치있게 몰아가는 영훈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자 마을이 즐거워져 경사지를 단숨에 톱아올랐다.

지금은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의젓한 일군이지만 한병훈은 병사시절 그의 분대 평범한 대원이였었다. 정규가 먼저 제대되고 그는 3년후에야 군복을 벗었다.



제대배낭을 멘 한영훈은 차편으로 신기령을 넘다가 길가에 삼을 들고 서있는 옛 분대장을 보자 깜짝 놀라 적재함에서 뛰어내렸었다. 도로관리원이라니... 아무리 뜯어보아도 자기네 분대장한테는 그 직업이 어울리지 않았다. 성격이 쾌활하고 리상이 높던 그에게 이런 일박에 차례지지 않았단말인가? 그는 몹시 분개하였으나 라정규는 그저 반가와서 껄껄 웃기만 했다. 웃음어린 그 얼굴을 보고서는 무슨 인연으로 도로관리원이 되었는데 도대체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한영훈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고 자란 고아였다. 태어난 고향이 어딘지도 몰랐다. 만일 어버이수령님께서 남녘땅을 해방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여름의 폭양이 뜨겁게 퍼붓는 어느 날 서울의 어느 한 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달아오른 신작로우에 쓰러져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것이다.

인민군대의 노도와 같은 진격앞에 적들이 패주할 때 그를 사경에서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정규였다. 련대군의소에서 건강을 회복한 한영훈은 그길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으며 전쟁전기간을 라정규와 한분대에서 싸웠다. 전우들의 사랑속에 떠받들리어 병사시절을 보낸 그는 제대후 갈곳(전우들은 누구나 자기 고향으로 가자고 그를 설복했었다.)이 많았지만 자기네 분대장과 떨어져선 한시도 못살것 같았었다. 군복을 벗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류벌공이 되겠다고 하던 라정규의 이야기는 청춘의 참다운 리상처럼 그의 머리속에 아름답게 새겨져있었다. 그런데 것처럼 부러움을 자아내던 그 희망은 어디로 가고 류벌공들이 넘어오는 령길우에 삼을 들고 서있단말인가...

한영훈은 류벌사업소에서 한다하는 떼몰이군이 되었다. 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그의 인생은 떼목우에 실려 벽차게 흘러갔지만 라정규의 생활은 고적한 령길을 따라 단조롭고 평범하게 흘러갔다.

그는 위훈의 령마루로 함께 내려쳐오르지 못하는 라정규가 안타까웠다. 자기가 마치 남의 자리에 서있는것 같아 속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더구나 정규의 집으로 뻗질나게 드나들게 되었다.

한영훈은 타는 속을 추기려는듯 뺑수만 별컹별컹 들이키는 정규에게 일장 혼시를 늘어놓았다.

《아무리해두 분대장동지한테 령길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류벌을 하는게 어떨가요. 병사시절부터 떼몰이공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규동지, 헛되이 흘러보낸 인생을 두고 후회하기전에 어서 마음을 돌리십시오. 내 우리의 우정을 걸구 담보하지요. 만일 떼목을 탄다면 아마 영웅도 될수 있을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머니? 내 말이 맞지요.》

《아이... 저이 마음은 흔들지 못해요.》

정규의 안해는 그만 눈곱이 따끔거리 얼른 물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리하여 《상등병》의 두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었다.

《분대장동진 목적이지 뭐니까.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다니... 웃어요? 울어두 시원치 않겠는데... 속에서야 불이 뿔뿔 일테지요. 그래 뺑수로 마음의 불을 끌수 있습니까? 난 그래두 지금쯤은 결심을 달리한줄 알았지요. 군대때처럼 떼목을 함께 타자고 할줄 알았단말입니다. 그런데 분대장동진... 예익!》

불끈 주먹을 들어 방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사람이 저리도 달라질수 있단말인가... 허나 주먹으로 여전히 방바닥을 누른채 정규를 올려다보았을 때 풀길없는 의문이 생겼다. 이쯤하면 숙어들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병글병글 웃고있었던것이다. 마치도 신기령우에 걸터앉아 자기를 굽어보는듯하였다.

《여보게, 자기가 밟고다니는 도로를 너무 천시하지 말라구. 자네가 아무리 큰소리를 쳐두 이 도로만 없어보게. 떼몰이군들이 어떻게 아래몰동으로 내려갔다가 승리자가 되어 신기령을 넘을수 있겠나. 세상에 도로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네의 명성이 하늘에 닿구 류벌사업소가 흥하는건 다 도로가 있기때문일세.》

《아하, 상당한 정도로 췌인 도로관리원의 철학인데... 괜찮아요.》

《아무렴, 그만한 자부심도 없이야 어떻게 한뉘 령길을 걸을수 있단말인가.》

한영훈은 빈번히 정규의 배지기에 허궁 나가떨어지는 자신을 느끼곤하였다. 그랬으나 단 한가지만은 의심하지 않았으니 그러한 궁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에조차 전우의 마음한구석에는 위훈에 대한 갈망이 의연히 남아 언젠가는 그를 떼목우에 세워주리라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한영훈의 기대가 공연한것이였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놀랍게도 정규는 자기 직업에 진정으로 애착을 느끼고있었던것이다. ...

앞에서 해묵은 가랑잎이 바스락거린다. 눈길을 들었다. 느릅나무줄기를 굽아먹던 재빛산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을 말뚱말뚱 쳐다보더니 별쭉한 두귀를 귀등너머로 찡 붙이고 령길을 가로질러 짹짹 뛰어난다. 별을 쪼이려고 굴속에서 나온 줄다람쥐 한쌍이 머리우에 드리운 다래넉출을 따라 기어오르다가 멈춰서서 겁많은 토끼의 맹렬한 질주를 재미있게 굽어보고 있다.

해토무렵이다. 해빛이 차츰 파스해지면서 어디서나 눈석이가 흘러내렸다. 골짜기로 모여든 눈석이는 갈수록 점점 불어나면서 도로우에도 질벽

하게 퍼져흐른다. 녹아내린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며 지각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구간에서는 달리는 차의 약한 진동에도 견디지 못하고 석축이 와르르- 무너져내린다. 어떤 곳에서는 스며든 물이 거꾸로 솟아 길한복판에 샘통이 터지기도 하였다. 그 샘줄기를 령길 아래쪽으로 펴내기 위해서는 도랑을 파고 돌암거를 만들어야 했다.

라정규는 태양이 머리위로 높이 떠올랐을 때에야 밤사이 새로 생긴 정황을 다 처리하고 허리를 펼수 있었다.

그는 다시 걸음을 내짚기에 앞서 삼을 세워짚고 서서 방금전에 마무리한 암거를 간간스레 더듬어 본다. 그의 손탁에 길들여진 샘줄기는 령길 아래쪽으로 수국이 떨어지면서 쪼르륵- 소리를 내는데 봄날의 정취와 어울린 그 물소리가 로인의 마음을 기분 좋게 감싸며 그윽한 웃음발을 피워올린다. 정규는 종종 이렇게 웃음지을 때가 많다.

그 웃음의 사연을 알고싶은듯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멧는다. 로인은 덜컥 근심이 생겨 그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간다. 적재함에 휘돌이며 물동을 가득 채우는 《자주호》이다. 차문이 반쯤 열리며 패기있어보이는 운전사청년이 상체만 볼썽 내밀고 소리친다.

《아바이, 온수리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난 무슨 고장인가해서 가슴이 철렁했네. 오면서 리정표를 보았을텐데...》

《보긴 보았는데 다 까먹었지요.》

《원, 녀석두... 내가 무슨 리정표라구 거리까지 짚어내겠나?》

《리정표구말구요. 비오나 눈오나 이 령길우에 변함없이 서있는...》

《!...》

라정규는 멋스러워보이는 곱슬머리청년한테서 뜻밖의 말을 듣자 그만 온몸이 훗훗 달아올라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다.

《여보게, 온수리에서 무슨 공사를 벌리나?》

《예, 굉장한 공사지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온 군이 펼쳐나섰어요. 아바이, 이제 그 곳에 저수지가 완공되면 우린 별방신세를 지지 않고도 흰쌀밥을 더 잘 먹을수 있답니다.》

로인은 령마루에 올라선듯 가슴이 탁 트임을 느끼며 말하였다.

(가보라구. 어서 가보게. 이제 30리만 더 달리면 온수리가 나질걸세.》

《아바이, 고맙습니다.》

청년은 끄덕 고개를 숙여보이고 운전칸문을 탕! 후려닫았다. 발동소리는 령길아래쪽으로 멀어져가고 《자주호》가 남겨놓은 배기가스 한덩이가 로인의 발치에서 뭉개쳐오른다.

한쪽 어깨우에 삼을 둘러멘 라정규는 또다시

걸음을 옮긴다. 오가는 길손처럼 험하게 내짚는 걸음이 아니다. 때로는 그 한걸음을 내디디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는것이다.

허나 그 걸음으로 자동차들의 운행길이 좋아지고 생활은 더욱 활기를 띤다.

령길은 물기오른 혼성림이 빼곡이 차있는 산기슭을 에돌아 숨박꼭질하듯 사라지기도 하고 골짜기너머 맞은편 산허리로 불쑥 나타나기도 하며 정점을 향해 숨가쁘게 뻗어올라가기도 한다. 도로가 휘여넘은 신기령마루에는 장구한 세월의 풍운속에 청석으로 굳어진 범바위가 높이 솟아 따스한 봄빛아래 장쾌하게 굽이쳐간 억센 산발들을 미덥게 굽어보고있다.

정규는 불현듯 시간의 촉박감을 느꼈다. 자기가 아무리 다우쳐도 김상수와 약속한 시간에는 도저히 대여가지 못하리라것을 깨달았던것이 다.

모름지기 이제는 상을 받은 신랑이 신부와 나란히 서서 장인과 장모에게 깊숙이 머리숙여 인사를 할것이다. 그만해야 쏘아지는 눈물로 하여 신부는 인차 고개를 들지 못할것이다. 새 생활에 들어서서 새색시는 자기를 낳아 길러준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인사를 하는것이 아니다. 둘러보면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들이 숨배여있는 정다운 산천과 마음씨 후더분한 마을사람들 그리고 이날과 함께 작별하는 자기의 처녀시절을 향해 인사를 하는것이라. 그러면 신부의 부모는 어떠할것인가.

라정규는 저녁에 내려가면 출가외인이 된 설희로 하여 썰렁해진 김상수의 집을 찾아가 위로해 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자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마을의 좌상격이 되어버렸다. 류벌공들은 왜그런지 정규를 자기네 직장사람으로 치부했다. 사업소 물동을 날라오거나 폐물이군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면 반드시 신기령을 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 바치는 라정규의 한생이 평범한 날에 울리는 위훈의 노래처럼 그들의 가슴을 울려준것이였다. 하지만 정규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날 도로관리원에 불파한 지기를 귀중히 여겨주는 마을사람들을 그저 고맙게 생각할따름이였다.

...눈석이에 패워나간 흠채기를 메우느라고 삼을 놀리고있는데 등뒤에서 경적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돌렸다. 산기슭을 에돌아온 《갱생》 한대가 그를 향해 질주해오고있었다. 총국으로 회의갈 때면 한영훈이 타군하던 류벌사업소 차였다.

정규는 삼날을 땅에 박고 난감한 눈길로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갱생》은 그의 앞에 이르러 스

르르- 멈춰섰다. 이어 차문이 열리며 자주빛비로도 치마저고리를 입은 신부가 검은색 양복을 쪽-빼입고 넥타이를 맨 신랑의 부축을 받으며 사뿐히 내려섰다.

《아버님!》

《아니, 이런...》

라정규는 그만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한쌍의 원앙새같은 젊은이들을 향해 황황히 달려갔다. 그랬으나 정작 그들앞에 이르자 흙탕물이 발린 자기의 옷을 민망스레 내려다보았다.

신부는 수집음으로 붉게 상기된 얼굴을 숙이며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기다렸어요. 인사를 드리구 떠나려고, 그런데...》

정규는 고마운 눈길로 설희를 보았다. 한마을에 살면서도 몰랐던 그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비로소 발견한듯싶었다.

《일이 그렇게 됐다. 날이 어찌나 좋아졌는지 물이 사방에서 흘러내리거든, 이까짓거 길이 좀 패운거야 웬라니, 그대신 산이 한결 푸르러질거다.

가만... 조금만 기다려주렴. 내 얼른 흠채기를 메워줄테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정규는 불현듯 봄날의 즐거움에 휩싸여 sap을 찾아들었으나 신랑이 만류하였다.

《아니, 그만두십시오. 아버님이 한생바쳐 지켜온 길인데 령마루까지 걸어올라가겠습니다.》

《...》

라정규는 그만 눈굽이 핑- 하여 다른쪽을 보는 척했다.

《고마우이, 하지만 잊지 말라구. 우리 중삼리사람들의 살림형편을 두고 심려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걸어넘으신 령길이라는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두 젊은이는 그에게 머리숙여 인사하고 령길을 나란히 걸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의좋은 한쌍의 젊은이들인가. 저들은 마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중삼마을에 나날이 꽃피던 행복의 상징인듯했다. 봄별이 진하게 뒤덮인 령마루를 향해 오르는 신랑, 신부를 점도록 바라보느라니 정규는 그만 망막이 흐려지며 피눈물속에 보냈던 지난해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것이였다.

참으로 전례없던 일기였었다. 새벽하늘에서 별안간 거대한 불덩어리가 떨어져내리며 땅이 지동치듯 울리는가하면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고... 허나 아침이 밝아오자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7월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우에서 빛났던것이다.

이날, 정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었다. 자기로서는 알수 없는 불안을 덜려는듯 옷동을 벗

어던지고 걸차게 몸을 놀렸다. 하루쯤이 드는 일을 오전에 다 끝냈다. 그리고나서 령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두는데 갑자기 사위가 어둑해지며 또다시 비구름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먼 우뢰소리가 꾸르릉-꾸르릉- 울려왔다. 그 어떤 재난을 알리는 자연의 심상치 않은 조짐같았다.

문득 하늘에서 날아내린 비꼬치가 담배불을 꺼버렸다. 이어 우박처럼 차디찬 비방울들이 몰방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정규는 미처 어쩔사이도 없이 작업복을 훌쩍 적셔버렸다.

이때였다. 한치알도 가려보기 어려운 뽕안 비발속을 뚫고 《갱생》 한대가 미친듯이 질주해올라왔다. 정규는 가슴이 철렁해짐을 느끼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류벌사업소의 차였다.

땅을 물어뜯으며 급정거를 하는 차안에서 한영훈이가 뛰어내렸다. 고개마루에 있는 사적비앞으로 허둥지둥 걸어가 대돌우에 몸을 던지며 심신을 비틀어짜는듯한 오열을 터뜨렸다.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리고 후두둑- 후두운것이 땅우에 떨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러는가...

깜짝 놀란 정규는 급히 전우에게로 다가갔다. 그제야 그를 알아본 영훈은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응? 세상에 이런 변도 있단말인가?》

한영훈은 절통하게 부르짖으며 비뿌리는 하늘을 향해 두팔을 허우적거렸다. 실성한 사람같았다.

정규는 그의 어깨를 거머쥐며 소리쳤다.

《자네... 왜 이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가구요?》

《?!...》

순간 태양이 부서지는듯 눈부신 섬광이 번쩍 일었다. 요란한 굉음이 가슴을 짓누르며 산발들을 따라 달음쳐갔다.

한영훈은 뭐라고 말하였다. 허나 비애에 젖은 그 목소리는 어딘가 멀리에서 울려오는 뱀의 잔향처럼 아스란히 들렸다. 정규는 신기령우에 기암절벽으로 솟아오른 범바위가 찍-갈라지며 머리우로 떨어져내리는듯한 무서운 환각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부터 령길로는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행렬이 힘겹게 뚫아올랐다.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뜨겁게 퍼붓는 폭양속에서도 사람들의 물결은 그칠줄 몰랐다. 령마루에 있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를 찾아가는 이 고장사람들의 추모행렬이였다. 눈물과 비애의 고개를 뚫아오르는 그들의 곡성은 혼성림우거진 축축한 골짜기를 따라 메아리치면서 령길우에 서있는 라정규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는듯하였다.

이해 여름따라 비는 왜 그리도 많이 내렸는지... 때없이 쏟아지는 폭우와 비바람은 그가 할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놓곤하였다. 정규는 자기 일을 설치어 령마루를 향해 오르는 사람들의 걸음을 잠시라도 지체시키게 될까봐 겁이 났다.

...단풍드는 잎새들을 소리도 없이 떨구며 비는 그냥 내렸다.

라정규는 쓰라린 자책과 끝없는 슬픔에 젖어 령길을 걷고있었다. 현실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하염없이 솟구치는 눈물에 흐려지고 엇비스듬히 드리운 비발은 잔등을 아프게 후려갈긴다. 한없는 그리움과 돌이킬수 없는 회오에 휩싸여 향방없이 걸어가는 정규의 머리속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떠실려 아득히 가버린 그날의 신기령이 우뚝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40여년전, 군대에서 제대된 라정규가 류벌사업 소파견장을 쥐고 신기령을 넘던 그 가을날도 비가 내렸었다. 마가울의 차거운 비방울들이 락엽지는 수림속에 잦아들며 웅글은 소리를 낼 때는 그 때맞추 내린 가을비로 불어난 물동에 마지막 때를 띄우며 기뻐할 류벌공들의 심정을 어느덧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다. 그가 류벌공이 되는것은 너무도 웅당한 일이었다.

정규는 때몰이군의 아들이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 불우한 인생을 때목우에 얹고 급류를 따라 내려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가슴조여야 했던 그에게 있어서 신기령은 막걸리 한종발에 취하여 령길보다 더 꼬부라진 목소리로 타령을 뽑으며 때몰이군들이 넘어오던 원망과 한숨의 고개에 지나지 않았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거의 없었다. 신기령의 어느 골짜기에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어머니를 묻고 탄식하던 아버지는 쌀독에 거미줄이 쓴다는 마을이지만 마음씨만은 후더분한 산골사람들의 인 정에 끌려 이 고장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배잡뱅이소년의 기구한 운명에 참다운 삶이 깃들기 시작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 주신 다음부터였다.

라정규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다. 건국의 첫째를 묻고 해방의 봄빛어린 산골짜기를 내달리며 책가방을 메고 령길에 서있는 아들에게 한손을 높이 흔들려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새 나라를 일떠세우는 기쁨과 환희가 그 때목우에 넘쳐흐르고있었다. 하기에 조국이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처하였을 때 아버지는 원수들의 폭격으로부터 때동의 수문을 구원하기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칠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전 골짜기마다 범람하던 가난과 불행의 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의 긍지높은 삶의 절정의

로 솟아오른 고향의 메부리이기에 정규는 병사시절 어느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었다...

온밤 쏟아진 폭우로 하여 령길은 몹시 험하였다.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린 탕수에 도로가 꽤우기도 하고 흔들레판처럼 죽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자리에는 방금 지나간 승용차의 바퀴자국이 형태로 눌러놓은것처럼 선명하게 찍혀져있었다. 대줄기처럼 드리웠던 비발은 차츰 가늘어져는 개비로 변하였지만 아직도 비물이 질벽한 미끄러운 령길을 걷자니 고개마루의 절반도 못올라 장판지가 빠근하였다. 라정규는 령마루로 오르는 지름길로 접어들면서 맞은편 산허리를 휘감은 령길에 서있는 여러대의 승용차를 보았다. 아마 사태에 길이 막혀 멎어선 승용차들같았다. 두터운 구름장을 뚫고내리는 정오의 은회색반사광이 여러 번들거리는 까만 차체들이 경사지를 뚫아오름에 따라 점차 작아지며 발밑으로 다가들더니 활엽수들의 축축한 잎새들에 가리워졌다.

신기령이 가까와짐에 따라 사위가 차츰 밝아졌다. 한줄금 소슬한 바람이 옷자락을 날리며 불어 지나가자 수림이 설레는 활기찬 음향이 산발들을 누비며 장쾌하게 달음쳐간다.

령마루에 올랐을 때였다. 라정규는 뜻밖에도 도로가 휘여넘은 범바위벼랑옆에 서시여 좁은 산협에 끼여있는 류벌공들의 동기와의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옵게 되었다. 너무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어서 꿈만같은 현실이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런 날씨에 험한 령길을 걸으시다니...)

정규는 그것이 자기 불찰로 빚어진것만 같아 머리를 들수 없었다.

동행한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앞을 막아나 서며 돌아가시자고 말씀드리는데는 같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난감하신듯 저어하는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정규에게 시선을 멈추시였다.

《수령님!》

정규는 그이의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습관대로 거수경례를 올렸으나 인차 자기의 군복킷에 령장이 없음을 깨닫고 얼굴을 붉혔다.

수령님께서서는 정규에게 집은 어디며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였는가, 앞으로 희망은 무엇인가고 따쫓이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정규가 고향으로 돌아온 제대군인이라는것을 아시자 기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마침 주인을 만난 셈이구만. 다행이요. 동무가 우리의 길안내를 좀 해주어야겠소.》

《...》

정규는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메우는바람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수령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도 구질고 미끄러운 령길이였다. 지름길을 타

졌는지 그이의 옷자락에는 흙물이 튀고 풀씨들이 매달려있었다. 정규는 자책어린 목소리로 간절히 말씀드렸다.

《수령님, 령길이가 힘합니다.》

《일없소.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섰다는것을 알면 중삼리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소. 자, 어서 걸읍시다.》

그래도 정규가 그냥 망설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흐려진 안색으로 일군들을 돌려보시었다.

《이 동무는 내가 힘한 령길을 좀 걷는것때문에 걱정하는것 같은데 난 이 령길을 매일 넘어다니는 류벌공들때문에 마음놓이지 않소. 령길관리를 잘 해야겠소. 이건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동계급에 대한 관점문제라고 할수 있소. 떼를 타고 내리느라고 수고하는 동무들인데 돌아오는 길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시원하게 넓혀주고 사태가 나지 않게 석축도 든든히 쌓아야겠소. 해별과 바람이 잘 드는 고개마루에는 휴식터도 만들어 주고… 령길이 좋아야 떼도 더 잘 내릴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의 류벌이라고 할수 있거든.》

라정규는 울었다. 아버지수령님을 구질고 힘한 령길로 안내해드려야만 하는 자신이 송구스러워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령길관리도 하나의 류벌이라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이 뇌리에 진하게 새겨졌다.

강물소리만이 적막강산을 울리는 한적한 산골동네를 찾으시어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령길까지 따라나선 류벌공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중삼리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면 다시한번 들리시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떠나시었다. 정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신기령우에서 오래도록 움직일줄을 몰랐다. 쓰라린 자책과 후회로 몸부림치던 그날의 령길우에서 라정규는 속다짐하였으니 한생 신기령을 지키는 도로관리원이 되어 우리 수령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실 때 다시는 힘한 령길을 걸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고…

하지만 정규는 신기령을 못떠나는 사연을 누구한테도 터놓지 못했다. 대학으로 가는 아들을 령길우에서 배려워줄 때에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한생토록 간직해온 그 소원을 눈물의 바다, 비애의 바다위에 얹지르게 될줄이야…

신기령을 오르는 자동차들의 발동소리가 점점 더 다기차졌다. 계절도 모르고 하냥 쏟아지는 가을비는 차지붕을 두드리며 물보라를 일으켰으나 짐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은 더 빨리, 더 줄기차게 령길을 달렸다. 령넘어가는 운전자들은 비물이 쉬임없이 흐르는 차창밖으로 실성한 사람처럼 삽자루에 웃음을 실으며 망연히 서있는 라정규

를 자주 볼수 있었다. 수척해진 정규의 온몸을 적시며 마가울의 찬비가 구질게도 내렸다.

초겨울의 맴판 바람이 찰라늘을 몰아와 창백해진 얼굴을 아프게 후려갈겼다. 했으나 그는 주위환경을 망각한것만 같았다. 뽕안 눈발속으로 사라져간 령길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는것이였다.

령길상태를 보려고 읍쪽에서 올라온 로동지도원이 고개마루에 덩덩히 서있는 정규한테로 다가가 몸도 추세울겸 휴가를 받는것이 어떤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규는 선선히 응하여 지도원을 놀라게 하였다. 령길우에 삽을 들고나선 때로부터 마감으로 받는 휴가였다! 그래 검사해서 년로보장수속도 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날 이웃들은 땅거미가 질무렵에야 마을길로 걸어오는 정규를 볼수 있었는데 그는 이 하루동안 중병이라도 앓고난 사람처럼 다리가 휘친거리고있었다.

정규는 한영훈의 집으로 들어섰다. 비애의 그날로부터 줄곧 신기령을 떠날줄 모르던 전우를 집에서 맞이하게 된것이 기뻐서 《상등병》은 닫까지 잡아서 내놓았다. 한데 정규는 흐려진 안색으로 상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뿐 얼른 수저를 들지 못했다. 눈물에 더욱 깊숙이 패워진것같은 주름살들이 꿈틀거리며 지난날의 인연깊은 추억들이 서서히 번져지는듯했다.

《분대장동무, 왜 그러니까?》

그제야 상념에서 깨어난 정규는 눈가에 서글픈 웃음을 담았다.

《여보게, 난 아무래두 가봐야겠데.》

《가다니요? 이 찬날씨에 어디로 간단말입니까?》

《아들네 집으로 가려네. 언제부터 오라는걸 미루어왔거든.》

한영훈은 그만 잔을 떨굴번하였다. 작별주를 마시는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졌다. 리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것처럼 전우를 폐목우에 세우려고 안타깝게 뛰기도 했건만 인생의 고개우에 올라선 지금에 와서 정작 신기령을 뜨겠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듯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정규가 신기령과 너무도 잘 어울린다는것을 톡톡히 깨달은것이였다. 마치도 정규는 신기령에 깊숙이 뿌리박은 거목같았다. 그는 무거운 침묵끝에 입을 열었다.

《그래, 아들네 집에 갔다가 다시 오렵니까?》

《그럼, 오지 않구.》

정규의 대답은 혼연스러웠다. 하지만 어떤지 잘 믿어지지 않았다.

전우는 굳이 휴가라지만 그것이 년로보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한영훈은 축축해진 눈섭을 습벅거리며 휘친휘친 제집으로 향하는 정규를 바라우고도 오래동안 대문가에 서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소재지의 어느 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는 정규의 아들은 아버지의 출현을 놀람과 기쁨속에 맞이했다. 손주녀석들이 달려나와 옷자락에 매달렸다. 아들잔치때 며칠동안 함께 지내보고 그후엔 래왕이 없던 며느리가 아이들의 뒤전에 서서 레절바르게 한마디 했다.

《어머님도 함께 오실걸 그랬어요.》

《제 살던 고장에서 뿌리를 옮긴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나. 차차 오기루 했다.》

도시에서의 새로운 나날이 흘러갔다. 아들내외는 이번 기회에 부모를 아주 모셔오려고 있는 지성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지성은 순간에 불과하였다. 이른아침부터 출근차비를 하느라고 분주하던 아들내외가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거리로 나가버리면 썰물진 바다가의 츤렁바위처럼 정규만이 홀로 남는다. 장수산기슭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뵈옵고 돌아오면 그다음은 할일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할것인가?... 하루종일 서성거리도 그냥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령길은 비록 한적했어도 이처럼 고독하진 않았었다. 눈꽃 핀 숲언저리를 스쳐내리는 투명한 해빛, 추위에도 얼지 않는 맑은 물소리, 대공을 나는 산새들의 지저귂조차도 그의 피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기엔 충분했었다. 라정규는 한생을 벗삼아 지내온 자연과 이야기를 나눌줄 알았던것이다.

하루는 시아버지의 무료한 시간을 메꿔주자고 며느리가 관람권을 얻어왔다. 그리하여 온 가족이 극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걸음마다 무릎을 높이 들군하는 라정규를 보고 손주녀석이 시늉을 해가며 소리쳤다.

《해해... 할아버진 별나게두 걷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으며 돌아보는바람에 정규는 저으기 당황해졌다. 남에게 보여선 안될 그 어떤 약점이라도 보인듯싶었다.

《정남아, 그런 소릴 하면 못쓴다.》

며느리가 급히 손주녀석의 손을 잡아끌었으나 한번 그르친 기분이 오래도록 가서질줄 몰랐다. 늙으면 노여움이 많아진다니...

정규는 자주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 때가 두문해졌다. 그러면 도시의 일각은 점차 물러가버리고 신기령이 눈앞에 다가드는것이였다. 령길을 걸을 때면 그렇게 무릎을 쳐들군했었다.

새해가 다가왔다. 그리움이 넘쳐나는 거리와 마을... 맹세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들... 텔레비존 화면을 통하여 편일 방영되는 조선인민군 구분대들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

우신 영상... 그이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믿음어린 친필서한의 글발들이 점점 더 심중을 울리며 또렷하게 안겨왔다.

정규는 뭉클 젖어드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잊을수 없는 그 새벽을 경건히 그려보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구의 중력을 다 합친것보다 더 무거운듯싶은 붓대를 거연히 고누어 드시고 집무탁의 종이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신다.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각 어디선가 울려오는 은은한 종소리... 아, 차라리 1994년이 없었더라면... 세월의 흐름밖으로 영영 떠밀어던질수만 있다면...

그이의 안광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인민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신다.

절통한 눈물의 대하우에 때를 띄웠던 중삼리의 류별공들과 신기령마루에서 삽자루에 의지한채 망연자실해있는 정규를 보시자 시선을 떼지 못하신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슬픔이 크신 장군님의 안색에 심려의 그림자가 언뜻 비낀다.

《정규동무! 그리고 전체 동무들! 슬픔을 용기로 이겨냅시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입니다.》

우리모두가 힘을 합쳐 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분발합시다.》

질책보다도 사랑과 믿음이 어린 그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는 순간 정규는 그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르짖었다.

《장군님! 이 몸줄놈이 또 한번 대죄를 지었습니다.》

자책과 회오에 몸부림치는 정규의 등허리를 타는듯한 석양빛이 조용히 어루만지고있었다.

저녁에 아들이 우편엽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군대나간 막내아들 경수가 제 형한테 보내온 편지였다.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설날아침에 몸소 찾으셨던 부대가 우리 경수네 부대랍니다.》

《뭐라구... 어디 보자꾸나.》

정규는 급히 편지를 받아쥐었다. 글줄을 더듬는 로인의 눈가엔 물기가 내배고 입귀는 연신 실룩거렸다.

그날밤, 정규는 잠들지 못했다. 새날이 밝기 바쁘게 그는 말했다.

《아애비야, 난... 오늘 내려가겠다.》

《내려가다니요?》

아들은 깜짝 놀라 부르짖더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노여운 일이 있으면 죄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두 인차 올라오실텐데 어떻게 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들내외가 것처럼 만류했지만 한번 내친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전실에서 아들이 머느리를 다긋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를 극진히 돌봐드렸다면 왜 이런 사태가 빚어졌겠는가 말ियो.

요전날 극장으로 갈적도 그렇지. 아이교양을 어떻게 했으면... 머느리는 한마디 대꾸도 못했다. 돌아서서 흐느끼는것 같았다.

정규는 화목하던 집안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떠나는데만 같아 마음이 언짢아졌다. 옷방에서 짐을 꾸리다말고 급히 전실로 나가 머느리를 두둔해주었다.

《아에비야, 그래서가 아니다. 어쩐지 나에겐 꼭 우리 장군님께서 신기령을...》

로인은 가슴이 젖어들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신기령을 넘던 한영훈은 도로우에 너가래를 들고 서있는 정규를 보고 차를 세웠다.

《왜 벌써 왔습니까? 설마 아주 뿌리를 떠가려고 온것은 아니겠지요.》

라정규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어보게, 날 욕하라구. 나는 충신이 아니었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남아있는데... 이 길에서 그 유훈이 관철되는데 신기령을 뜨려고 했으니...)

령길에서 두번째로 마주했을 때 정규는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영훈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곧 이 령길을 지나가실것만 같네. 꿈이 범상치 않거든.》

히- 령길이 온통 꽃속에 묻혔는데 그 꽃바다에 떠받들리시여 그이께서 령마루로 오르시지 않겠나. 오르시여서는 락원이 된 우리 마을을 바라보시며 해빛처럼 밝게 웃으신단말일세. 그런데 한참 우러르니 장군님의 모습이 어찌면 그리도 우리 수령님과 꼭 같으신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살아 계시는것만 같아 온갖 슬픔이 다 가셔지더라말이야.》

정규의 목소리는 갈리고 얼굴은 공상을 즐기는 어린애처럼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여있었다. 절절한 그리움이 펼쳐놓은 꿈세계를 현실처럼 굳이 믿는 그의 얼굴을 한영훈은 눈썹리가 화끈거려 더는 바라볼수 없었다. 그것은 한생을 묵묵히 바쳐 가꾸어온 소원, 절통한 눈물과 비애속에서도 버릴수 없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준 현실이었다. 마치도 소원은 그가 애타게 바라는것을 현실속에 다 펼쳐놓고 그를 손저어부르는듯하였다.

...정규가 도에서 내려온후 아들한테서 인차 편지가 왔었다. 부모를 아주 데려다가 모시고싶은 지극한 심정을 토로한 편지였다. 그러나 아무런

회답도 오지 않자 이번에는 림산으로 출장가는 사돈편에 방학이 다 끝나가는 손주녀석들을 달려 보냈다. 따스하고 보통보통한것들이 목에 매여달리며 평성으로 가자고 졸라떨 때 정규는 그애들을 무릎에 앉히고 보내는 여생도 즐거우리라는것을 찌릿하게 느꼈으나 신기령은 또한 자기대로 떠날수 없는 그의 처지를 세차게 흘날리는 눈발의 세계로 절감하게 해주었던것이다.

령길은 예술체조선수의 손끝에서 휘날리는 땀기 오리처럼 산허리를 휘감으며 쉬임없이 뻗어올라 마침내 령마루에 이르게 된다. 북대봉산줄기의 령봉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고개마루에는 앞발을 쭉-뻗치고 표호하는 호랑이처럼 범바위가 높이 솟아있는데 그 천연암반의 종턱에는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을 신념의 구호가 아로새겨져 있다.

벼랑아래, 차도가 휘여넘은 넓은 공지에는 화강석을 다듬어세운 그리 크지 않은 사적비가 있다. 인민을 찾으시는 길이라면 멀고 험한 령도 마다하지 않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는 여기 신기령우에도 어리여있는것이다.

고개마루에 오른 라정규는 사적비앞에 정히 놓여있는 꽃다발들을 보았다. 피방울처럼 붉은 꽃잎들은 서쪽으로 드러눕는 해빛을 받아 열정의 빛갈로 타오르는듯싶었다.

비에의 그날로부터 사적비앞에는 이런 꽃다발들이 때없이 놓이군하였다. 아마 저 꽃들속에는 봄날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는 설희네가 놓고 간 한송이 붉은 꽃도 있으리라!

사람들은 그냥 령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신기령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고싶어했다. 그런 날이면 그는 편제없는 강사가 되어 령길우에 어리여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을 한없는 그리움속에 더듬어보는것이였다.

고개마루에 머물러가는 사람들이 남긴 여운은 정규의 가슴속에서 오래도록 사라질줄을 몰랐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의 가슴은 또다시 허전해졌으며 그들이 남긴 생활의 여운을 신기령우에 영원히 불들어두고싶어졌었다.

드디어 라정규의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왔다.

지난해 가을의 어느날이였다. 그가 사적비앞 교양마당을 정리하는데 령 아래쪽에서 우렁찬 노래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맹세한다 우리는 수령의 유훈 지켜

더 부강하게 하리라 내 나라 내 조국을

...

두대의 화물자동차가 구배심한 령길을 따라 천천히 뚫아오르고있었다. 읍에서 올라오는 차였다.

선두차적제함에 등을 돌리고 선 짧은이가 합창단의 지휘자처럼 두손을 힘있게 내저으며 자동차의 숨가쁜 질주를 격려해주는듯싶었다.

천백배로 뭉치여 나아가는 우리  
...

자동차가 령마루에 이르러 멈춰서자 짧은이들이 와르르- 적제함에서 뛰어내렸다.

라정규는 불현듯 온몸에 기운이 뻗쳐오름을 느끼며 즐겁게 물었다.

《여보게들, 어디로 가나?》

《여기까지 왔지요.》

합창단의 《지휘자》가 대답하였다.

《여기까지 오다니?!...》

《아바이, 기뻐하십시오. 군에서는 한생 신기령을 지켜온 아바이의 발길을 지지하여 저 범바위 상부에 우리 고장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신념의 구호를 새기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이 령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보라고말입니다.》

후두둑! 심장이 뛴뛴했다. 산바람만 오가던 한적한 령우에 시대의 벽찬 흐름이 밀려온듯했다. 수억년 잠자던 범바위가 장벽처럼 일어서며 따웅! 호곡을 울리는것만 같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규는 뒤집을 지고 서서 암반우에 새겨지는 글발을 보았다. 가까이 다가서서 보기도 하고 령길아래쪽으로 물러서서 보기도 하였다. 그러느라 마음은 못잊을 수십년전의 그 령마루로 달리며 은가루처럼 뿌리지는 눈개비를 맞으면서 멀고 험한 령길을 걸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뽕뽕 피어오르는 눈물내며 안겨오는것이였다. 어쩐지 구호가 마음에 들었다. 천연벼랑가에 새겨진 글발을 점도록 바라보면 수령님께서 영원히 신기령우에 서계시는것만 같아 마음이 즐거워지기까지 하였다. 하여 정규는 소원을 이룬 어린애처럼 기쁨에 어리둥절해져 범바위벼랑앞을 지나가군하였던것이다...

정규는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렸다. 허리가 지근거리는데는 이 하루동안 무리하게 몸을 놀렸기 때문이다. 해토무렵이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산이 온통 푸르러질것이다. 무성하는 계절을 맞아 수림은 더욱 기운차게 자라올것이지만 정규는 여름이 오면 자기가 령길에서 자주 쉬여가지 않으면 안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서글픈 일이었다. 확실히 이제는 그전과 달랐다. 오늘 하루만 해도 그렇다. 정규는 인차 령길을 돌아보고 내려간다는것이 그만 계절이 덧쳐놓은 자질구레한 일감들에 붙들려 거의 하루해를 보냈던것이다. 자기가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

게 기다렸을 류벌공 김상수를 무슨 면목으로 대한단말인가... 그는 저녁에 내려가면 꼭 들리어 량해를 구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아침에 김상수네 집에 들렸던 한영훈이가 찾아와 하던 말이 떠오른다. 물론 류벌공들의 《귀향》에 지장없도록 령길관리를 잘해달라던것은 허장성새라고 할수 있겠지만 《중대한 행사》란 무엇을 념두에 둔 말인지 아무리 따져보아도 모호하기만 하였다. 만일 《귀향》을 념두에 둔것이라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여보게, 자네가 아무리 소장이라두 이 령우에 걸터앉아 굽어보는 나만 할텐가.》

말해놓고보니 재치있는 경구였다. 한영훈을 만나면 이 경구를 써서 자부심이 커질대로 커진 전우를 납작하게 눌러놓으리라 생각하니 어느덧 마음이 즐거워진다.

(내가 아들네 집에서 돌아온건 천번 잘한 일이지. 어떻게 신기령을 뜰수 있단말인가. 언젠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령길을...)

서쪽 산마루에서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며 뽕뽕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정규의 적동색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순간 그는 짧은 시절에 간직하였던 자기의 그 소원을 생각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웠던 제대병사의 그 시절로 되돌아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이들의 쟁쟁한 웃음소리가 들려서야 정규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할아버지!》

서로 손목을 잡은 두 아이가 앞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조막같은 발들이 어찌나 빨리 오르내리는지 령길우에 바투 드러눕는 석양이 발부리에서 부서지며 적황색불씨를 막 튕기는것만 같았다.

순간 정규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애들은 뜻밖에도 도에 있는 손주녀석들인 정남이와 정철이였던것이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총알처럼 날아드는 아이들을 안으며 정규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할아버지가 되여보지 않고서는 결코 체험할수 없는 짜릿한 이 쾌감...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엄마두 왔어.》

큰것한테 지지 않으려고 작은것도 덩달아 소리친다.

《뭐? 엄마두?!...》

정규는 닝큼 들어올린 작은것의 어깨너머로 령우에 멈춰서있는 류벌사업소뼈스를 보았다. 언제 《귀향》길에 올랐는지 이날의 《승리자》들인 류벌공들이 넓은 공지에 둘러앉아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아들이 분명하다. 수수한 밤색 잠바를 입은 아들이 뼈스의 문가에 서서 내리는 안해를 부축해



주고 있는데 얹힌 머느리는 아들의 손에 옷몸의 무게를 실으며 사뿐히 뛰내려 정규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었다.

《아버님!》

정규는 아들내이가 다가와 인사하기를 기다렸다 반가움을 금치 못하며 입을 열었다.

《이 바쁜 때에 용케 시간을 냈구나. 온 가족이 나들이를 떠난걸 보니...》

《나들이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눈맞춤을 하며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그럼 이 애들이 나를...)

이번에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왔다는것이 험등하게 알렸다. 신기령우에 깊숙이 뿌리박은 로송을 떠옮길수 없다는걸 아들은 과연 알기나 할가...

아들은 아직도 마르지 않은 흙탕이 얼룩진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만에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전 아주 내려왔습니다.》

《아주 내려오다니?!...》

정규는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 한영훈아버이가 말해주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령길을 떠나지 못하는지... 도에 회의를 왔다가 들었던군요. 그래 아버지가 한생 지켜온 령길우에 저희들이 서려고...》

《아에비야, 그래서 내려왔단말이나?》

정규는 신기령우에서 흘러간 허구한 나날들이 단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이 격해졌다. 참으로 이겨내기 험치 않은 나날이었었다. 날마다 반복되는 단조로운 령길... 그 길우에서 흘러간 세월... 령아래서 자기를 손저어부르며 떼목들이 나는듯이 내달릴 때 그는 경사지를 훑아오르기가 갑절이나 더 힘겹군하였던것이다.

허나 그보다 더 서글픈것은 자신의 로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이었었다. 그런데 불현듯 아들네가 나타나 아버지가 스스로 걸머진 그 짐을 넘겨받으려고 하는것이다.

정규는 핑- 물기어린 눈을 들어 령길이 굽이쳐 내려간 멀리 기슭쪽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맞은 이 시각조차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오늘의 잘 사는 중삼리를 보여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었다. 수령님께서 몸소 걸어 넘으신 령길로 행복이 끝없이 물결쳐왔건만 안고 가신것은 류벌공들의 살림형편이 넉넉치 못

하던 어제날의 중삼리였던것이다.

정규의 애석한 마음을 위로해주려는듯 아들이 그의 손을 꼭 잡는다.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가 한생을 바치신 이 길로 우리 수령님은 비록 다시 오시지 못했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언젠가는 꼭 찾아오시리라는것을...》

《그래, 네 말이 옳다. 우리 수령님은 곧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지. 그분께서는 꼭 우리 가문의 소원을 풀어주시게다.》

정규는 심장이 후두둑 뛴는것을 느꼈다. 자기가 해야 할바를 너무도 잘 아는 아들이었다.

이윽고 그는 물었다.

《아에비야, 영훈이 그 사람은 왜 보이지 않느냐?》

《우릴 버스까지 데려다주고 읍에 떨어졌습니다. 총국에 회의를 가야 한다면... 떼를 몰구 왔는지 옷이 젖었던군요.》

그러니 아들과 전우사이에는 이미 약속이 있는것이 분명했다. 오늘 아침에 슬쩍 던지고 간 《중대한 행사》란 바로 아들네의 귀향을 념두에 둔 말이었던것이다. 역시 전우는 정규가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도와줄줄을 알았다.

(여보게, 영훈이, 참으로 고마우이.)

라정규는 아들과 머느리를 랑옆에 척 세우고 령길을 걸어간다. 손주녀석들을 그러안으며 입이 귀밀로 돌아갈 로친네의 모습이며 불어난 식구로 하여 날마다 흥성거릴 집안을 그려보니 마음이 흥그러워져 노래라도 한곡조 뽑아넘기고싶다.

저앞에서는 별찬 손주들이 싱갱이질을 하며 총알처럼 내달리고있다.

그애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나날이 벅차지는 생활도 달린다. 그 즐기찬 흐름을 따라 세월도 달리고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이 변하리라. 허나 천만년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는것은 신기령의 천연바위에 새겨진 신념의 저 글발 일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이 땅우에 펼쳐주신 우리의 궁지높은 생활일것이다.

령길아래쪽에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터진다. 그 웃음소리를 꽃보라처럼 맞으며 아들, 머느리를 거느리고 즐겁게 걸어가는 라정규의 자태를 신기령마루에서 비껴내린 진홍색노을이 황홀한 빛갈로 감싸주고있었다.

# 만수대동상 외 1 편

최승철

잠을 깬 때면 문득 생각나더라  
눈물의 7월은 혹시 꿈이 아니었던가  
가슴 비틀며 흐느끼던 추도곡도  
수령님 령전에 터뜨린 통곡도  
죄스러운 꿈이 아니었던가

고요한 첫 새벽  
바빠 만수대에 오르면서도 그 생각  
머리 들어 하늘 쳐다보니  
아버이수령님 거룩한 동상이  
분명 나를 부르는듯

때에 나는 황홀히 보았더라  
산발같은 어깨에 우주를 떠메시고  
세계의 절정을 거니시는 수령님  
찬연한 노을속에 평강에 찬 눈길로  
혁명교향악을 지휘하시더라

한생과 바꾸신 피어린 력사는

은하수로 걸려 세계를 비치는데  
그이께선 미래에로 멀리 나아가시도다  
공산주의 열쇠를  
손안에 굴리시며

아무렴 살아계신다 우리 수령님  
그이의 맥박은 바람과 파도 속에 박동하고  
눈길은 해빛으로 만물을 키우도다  
장쾌한 우뢰속에, 계절의 설레임속에  
인류의 호흡속에, 혁명의 열풍속에  
그이의 숨결 역세계 살아있나니

사람들이여 분발하라, 분발하라!  
자주로 승리하고 아름다워 승리하라!  
**김정일**장군님 반들어 전진하는곳마다  
수령님은 영원히 함께 계시리  
인류의 의지가 모인 손을 드시여  
광명한 미래를 가리키시면서!

## 편지

산골농장에서 양치는 이 늙은것이  
호삼이 앓은 손 깨끗이 씻고  
삼가 올립니다, 간절한 편지를  
텔레비존에서 수척하신 모습 뵈온 아픔  
너무도 아리고 쓰러서  
식구들 밥 한술 못뻗습니다

수령님을 어이없이 여의고보니  
**김정일**장군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붓으로는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으뜸중에 으뜸가는 국보는  
장군님의 건강이온데  
그렇게 무리를 하시면 어찌랍니까  
눈물을 짜는 저 어린것들을

인민의것이옵니다, 장군님의 몸은  
혁명의것이옵니다, 장군님의 건강은  
당신의 만년장수에  
나라의 앞날과 운명이 달렸사오니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꾸어도  
아십시오, 파로는 절대로 금물인줄을  
시인들은 밤을 새우시는 당중앙의 창문에서  
이 땅의 아침이 밝아온다고 하는데

일리는 있겠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몸은 무쇠도 아닌데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탁하오니  
날마다 일을 마치시고는  
줄겁게 쉬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이제는 장군님 창문에 일찍 불이 꺼져야  
인민이 마음을 놓는줄 아십시오

무엇이건 주무실수 없는 걱정거리 있으면  
직방 인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산도 들어옮기고  
하늘도 썩썩 베여오겠습니다

촌놈은이 흰머리 숙여 간청합니다  
저 술한 할일을 생각해보십시오  
온 세상 가득하게  
주체위업 이룩해야겠는데  
해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군님의 만수무강이  
천하 만백성의 복인줄 아십시오!

## 서울상공에 솟은 장수별

《만고의 령장 절세의 위인, 7천만 단군민족의 구세주, 겨레의 영원한 아버지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 급서.》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내린것과 같은 비보가 남조선의 경향각지로 퍼져가자 온 남녘은 놀람과 슬픔의 파도에 잠기었다.

북녘의 남녘로소가 일시에 상제가 되어 아버지를 목놓아부르며 대성통곡을 터뜨리는 모습을 텔레비존을 통해 보며 남녘민중은 가슴속 피울음으로 겨레의 끝없는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민중은 조의방문단의 북행길을 한사코 가로막은 김영삼반역무리들의 반인륜적처사에 경악과 분노를 터뜨리며 곳곳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을 추모하는 분향소들을 꾸리였고 추모글발들을 적은 현수막과 대자보들을 내걸었다.

이러한속에 유사 이래 남녘산천도 처음 보고 들는 하늘에 사무친 민족의 곡성과 뼈를 깎는 비통감으로 하여 몸부림에 떨고 놀라운 이변들이 속속 창출되어 민중을 경악케 하였다.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있는 이후 사흘이고 나흘이고 창살같은 비줄기가 련일 설새없이 쏟아져내리자 서울시민들은 한결같이 천인(하늘이 낸 위인)이 돌아가시여 하늘이 줄곧 눈물을 뿌린다고 했다.

누군가는 북악산, 인왕산이 이상한 소리로 울었다 했고 누군가는 한강물이 피빛으로 변하여 물고기들이 땅우로 솟구쳐오르는 현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어찌 이뿐이라. 다도해의 물결이 끓어번진 이야기, 철아닌 기러기들이 수백마리씩이나 무리지어 북녘을 향해 날아가더라는 이야기 등은 모두 남녘에서 일어난 특이한 자연현상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중에서도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민들이 모두 보았다는 신비한 장수별이야기는 지금도 항간에 널리 퍼져가고있다.

1994년 8월 15일 새벽이었다. 이날 서울대학교의 넓은 교내에는 수많은 서울시민들과 남녘대학생들이 모여 제5차 범민족대회를 가지고 룡성을 벌리며 새날을 맞고있었다.

부어오른 눈가에 자주 손수건을 가져다대며 회의운명을 해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성원들과 전체 룡성자들은 가슴을 칼끝으로 저미는듯한 아픔에 모대기고있었다.

범민련이 조직되어 매년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당국의 박해와 탄압으로 한자리엔 모여앉지 못했지만 네차례나 지역별로 대회를 개최하여 서로 전화대화도 가지고 만세와 구호를 목청껏 웨

칠 때는 얼마나 가슴뿌듯한 긍지로 넘쳤던가. 여러차례 대렬을 짓고 가두로 펼쳐나섰다가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의해 류산되기는 하였어도 그래도 한결음한결음이 통일으로 가까이 다가감을 큰 자랑으로 여겨왔었다.

그런데다 요즘은 북의 영명하신 **김일성** 주석께서 통일의 밝은 전망을 활짝 열어놓으시여 조만간에 통일이 될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했었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이 각각 평양과 서울에서 열린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져 서울시민들은 그때부터 노상 백두산의 천하대장수 **김일성** 주석을 만나뵈올 생각에 잠 못들고있었다.

그런데 이 무슨 비통한 소식인가. 그렇듯 정정하시던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하셨다니...

8월 15일, 오늘이 바로 마흔아홉해전 **김일성** 장군님께서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내 조국을 찾아주신 해방의 날이여서 더욱 주석이 그림고 눈물이 가슴속 깊은곳에서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누군가가 력사는 되풀이된다 하더니 해방의 그 날 서울역에 술대문을 세워놓고 이제나저제나 **김일성** 장군님의 서울입성만을 학수고대하던 그 시민들이 지나간 마흔아홉해동안을 줄창 마음속에 만수축원의 술대문을 세우고 그렇게도 애절히 기다려왔는데, 반백년을 기원하던 그 통일이 주석께서 서울역에 한발자욱 내짚기만 해도 그 순간에 성취될것이라고 누구나 말했는데 이제 서울사람들은 존귀하신 주석의 영상을 영영 뵈울수 없게 되었던말인가.

모두의 얼굴에서는 억제할수 없는, 주체할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흰수염 드리운 대종교신자도, 책을 낀 녀대학생도 깊이 머리숙여 흐느끼었다.

그때는 먹물처럼 까만 어둠을 가시며 새벽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던 시각이었다.

《쿵쿵-》

산악을 허무는듯한 천둥이 두어번 일고 퍼런 불칼이 하늘중천을 베어던지며 다시 평음으로 이어졌다. 하늘이 깨여졌는지 땅이 곤두섰는지 알수 없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운동이 정지되어버린듯한 순간이 흘러갔다.

기상천외한 천기변화속에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때에 누군가가 《별이다!-》하고 웨쳤다.

《아, 저 별!》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하늘로 향해졌다. 이어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다.

먹구름이 씻은듯이 가셔진 파란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돌아왔다. 그 명멸하는 못별들은 신통히  
도 날일자모양을 짓고있었다. 별들의 중심에 유  
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는 큰별이 있어 일시에 사  
람들의 시선이 한곳으로 쏠렸다.

너무도 뜻밖의 순간에 너무도 휘황한 빛을 뿌  
리는 큰별이 만리창공에 솟아오르자 사람들은 그  
저 말그대로 황홀한 그 별에 넋을 빼앗기었다.

갑자기 터진 요란한 천둥소리, 갈라진 먹구름,  
그속에서 솟아오른 유난히 찬란한 별, 저 큰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일까.

사람들의 가슴속에 물결처럼 설레는 이 심중을  
읽은듯 명망높은 한 재야인사가 나직하게 말하  
였다.

《나는 점성술사는 아니다. 그러나 저 휘황찬란  
한 큰별님을 우러르니 저 별님이 바로 우리 7천  
만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실 장수별이라는 생각이  
갈마든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대업을 위  
해 초불처럼 깡그리 한생을 바쳐오신 **김일성** 주석  
께서 급서하신 지금에 어둠을 가르며 솟아오른  
저 장수별을 우러르니 절로 눈굽이 뜨거워진다.》

그는 한동안 눈굽을 닦고나서 걱정애 넘친 어  
조로 수백년만에 한번 솟는다는 저 별이 태양을  
상징하는 날일자 가운데 솟았으니 저 큰별님은  
분명 위대한 존함속에 날일자가 든 친애하는  
**김정일** 선생님의 장수별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 **김정일** 선생님의 장수별!

그 의미를 되새기며 걱정애 넘쳐 바라보니 장  
수별은 더욱 유난히 밝은 빛을 뿌리는것 같았다.

영명하신 **김일성** 주석께서 도탄에 든 겨레를 구  
원하시려 백두산의 장수별로 솟아오르시여 백만  
왜적을 꺼꾸러뜨리고 조국의 광복을 안아온것이  
마흔아홉해전 오늘이였었다. 그런데 바로 이날에  
백두산의 정기를 지니신 천하제일장군 **김정일** 선  
생님께서 7천만의 간절한 념원을 안고 민족의 찬  
란한 장수별로 솟아올랐으니 통일조국의 아침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모두의 가슴을 찼다.

서울대학교의 진국송학생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리념씨클을 통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비상한 천품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김정일** 선생님은 문무충효를 겸비하시고 지인용  
(지혜, 인자, 용기)을 다 갖추신 천출명인, 천하제  
일장군, 우리 단군민족이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  
의 어버이이시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그의 열정에 넘친 말을 새겨들으며 장수별을 받  
들어 하루빨리 통일성업을 이룩해갈 마음으로 설  
레였다.

이날 서울상공에 장수별이 솟은 이야기는 곧  
《한민전》 서울시 위원회의 통보로 보도되었고  
《로동신문》 1994년 10월 21일부에 실리였다.

김종석



《〈지원〉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별로 특이할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넘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중에서



## 기억력

천재는 곧 두뇌이고 두뇌는 곧 기억력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에 이름난 위인들치고 두뇌 즉 기억력이 비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일생에 1, 300건의 특허권을 받은 《발명왕》 에디슨의 유년친구는 후날 말하기를 사람들은 에디슨이 어릴 때 바보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자부터 그는 수재였다. 그는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의 일을 내놓고는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을 기억하고있었다고 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수령들도 뛰어난 기억력에 대한 많은 일화를 남기었다.

이처럼 뛰어난 위인들은 레외없이 비대한 두뇌, 다시말하여 비대한 기억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야말로 놀랄만치 비대한 기억력을 가지고계시는 위인중의 위인 이시다.

일찌기 어리신 시절에 선생님이 읽어주는 《구구표》를 단 한번 들으시는것으로써 그것을 통달해버리셨다는 이야기는 그이께서 기억력이 얼마나 비상하신가를 그대로 말해준다.

그렇듯 비대한 기억력을 지니셨기에 그이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설계도면이나 통계수자도 한번 보신것이면 선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기억하셨다가 썩 후날에 가서 실무일군들의 실수로 어찌다 사소한 착오가 생겨도 그것을 영락없이 알아내시여 바로잡아주시는것이다.

그렇듯 비대한 기억력을 지니셨기에 그이께서는 아무리 복잡한 설계도면이나 통계수자도 한번 보신것이면 선 하나, 점 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기억하셨다가 썩 후날에 가서 실무일군들의 실수로 어찌다 사소한 착오가 생겨도 그것을 영락없이 알아내시여 바로잡아주시는것이다.

언젠가 친애하는 그이께서 설계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어느 한 중요건설대상의 설계도면을 검토하여주시는 일이 있었다.

총건평이 수만평방미터에 달하는 큰 건축물의 설계도면은 여간만 복잡하지 않았다.

그 복잡한 도면을 한장한장 번저가시면서 검토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연필로 어느 도면의 한곳을 짚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이 부분은 전번에 볼 때와 좀 다르구만.》

《?!...》

설계일군은 금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럴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도면으로 말하면 몇달전에 그이께서 보시고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보겠으니 더 연구하여 고칠것이 있으면 고쳐서 완성하라고 하신 도면이었다.

설계집단에서는 그동안 도면을 놓고 집계토론을 거듭하였으나 크게 제기되는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대로 보관하고있었는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다시 보아주시겠다는 연락이 왔다.

설계일군은 도면이 좀 어지러워졌기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한통 복사하여가지고 왔었다.

그러니 전번에 보신 도면과 차이날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께 일군은 이상의 사연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를 일이군.》

일군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그이께서는 입속말로 이렇게 되이시더니 그러나 이 부문 세부조직은 전번에 본 도면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누가 도면을 좀 고친것 같은데 알아보아야 하겠습시다.》

일군은 그날로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아닌게아니라 전번 도면과 약간 차이가 났다. 도면을 복사할 때 접했던 부분의 세부조직이 좀 어슴푸레한것을 그만 잘못 복사하였던것이다.

일군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잘못된 도면을 올린 죄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한편 그는 한생을 설계에 바쳐온 실무가들도 한번 보고는 표상조차 안겨오지 않는 것처럼 방대한 건축물의 설계도면, 그것도 몇달전에 보신 도면의 한켠구석에 그어져있는 선 하나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고계시는 그이의 비대한 기억력에 경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출중한 기억력은 영화나 텔레비죤무대 작품을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음악선율을 그대로 기억하시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1982년 1월초 어느날밤이었다.

만수대에술단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아직 우리 작가, 작곡가들이 자기 수령의 위대성, 자기 조국의 강대성, 자기 수도의 아름다움을 심장으로 간직하고있지 못하

다고 하시면서 그러다보니 평양에 대한 노래 하나 신통한것을 내놓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다른 나라의 가요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나의 프빌리씨》라는 노래를 아시고 물으시였다.

모두들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 노래는 어느 한 나라 예술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 노래에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프빌리씨는 이 나라의 지방도시로서 그렇게까지 소문난 도시가 아니였는데 《나의 프빌리씨》라는 노래가 나온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그런데 우리 평양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있지만 아직 평양에 대한 좋은 노래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모두들 그 영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그 영화를 본지는 오랫동안 그 노래는 아마 영화의 8권 아니면 9권쯤에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창작가들은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이께서 오래전에 한번 보신 외국영화의 노래선물을 그대로 기억하고계신다는 사실만도 놀라운데 그 노래가 영화필름의 어느 권에서 나온다는것까지 기억하고계시니 참으로 놀라와도 이만저만 놀랍지 않았다.

그들은 그날밤 영화를 가져다 돌렸는데 그이께서 말씀하신대로 8권과 9권에서 그 노래가 나왔다.

일명 《90분간 예술》이라고 하는 예술영화는 길이가 보통 9~10권으로 되어있지만 90분간 압전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화면을 보면서 개별적인 화면이나 음악이 몇권이라는것을 알아가며 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 설사 알고 해도 알아볼수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처음 보는 영화의 화면과 노래가 몇권에 나온다는것까지 알고계시니 그이의 기억력을 비상하다고만 하기에는 그 표현이 너무도 평범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음악선물을 기억하신 이야기는 이밖에도 많다.

꽤 오래전 일이다. 우리 나라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새별》이라는 예술영화를 만든적이 있었다.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도 주제가 있었다.

그런데 영화를 잘 만들지 못하여 이 영화는 몇

번 상영되고는 흔적을 감추고말았다. 영화와 함께 주제가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 주제는 창고에 보관된 영화화면에만 록음되어 있을뿐 《영화주제가집》에도, 《600곡집》에도, 작곡가의 이름으로 출판된 《작곡집》에도 오르지 않았고 지어는 작곡가 자신이 가지고있는 창작목록에조차 기록해두지 않았다. 결국 이 노래는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던듯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것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근 20년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예술영화촬영소를 지도하시던 옛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때 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영화들 가운데 《새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수령님께 영화를 올리기를 위하여 작업필름을 딱 한번 본 생각이 난다고 하시며 영화내용은 신통치 않았으나 영화주제는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그 노래를 알고있으면 한번 불러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자리에는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맡아보는 일군들도 있었고 여러명의 작가, 작곡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20년전에 잠깐 나왔다가 자취를 감춘 그 노래를 기억하고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이기 유감스러워하시더니 자신께서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였다.

저 하늘에 별들이 많고 많아도  
마음속에 빛나는 새별은 하나  
별이여 비쳐다오 등대와 같이  
우리 앞길 찬란히 비치여다오

사람들은 놀라움이 극하면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마련이다. 그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야!》 하고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노래의 가사도 선물도 그대로 정확히 기억하고계셨던것이다.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그이께서는 노래 《새별》은 잘 지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를 주제가로 하여 대본을 다시 써서 영화도 살리고 노래도 살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곧 노래 《새별》을 지은 작곡가를 찾았다.

영화를 다시 만들자면 주제가의 정확한 악보가

있어야 했던것이다.

그 어느 노래집에도 올라있지는 않지만 노래를 지은 작곡가는 가사도 곡도 잘 알고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작곡가자신도 그런 노래를 썼다는것을 기억하고있을뿐 노래의 가사는 물론 선물의 첫 소절조차도 제대로 떼지 못하였다.

하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이면 제자식의 얼굴도 잊어먹을수 있다고 했으니 비록 제가 지은 노래이기는 하지만 빛도 보지 못한채 20년동안 파묻혀있는 노래를 기억하고있지 못하다고 하여 그를 나무랄수는 없는 일이었다.

오직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작곡가자신도 까맣게 잊어버린 노래의 가사와 선물을 생생히 기억하실수 있었다.

후에 다시 만들어진 예술영화 《새별》은 국제영화축전에서 축전상을 받았으며 주제가 《새별》은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서정가요의 하나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얼마나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계시는가에 대하여 말해주는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1976년 3월초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몇몇 일군들을 데리시고 어느 한 관상용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며칠전에 이어 두번째로 이곳을 찾으신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꾸려진 이곳 관상용양어장에서는 주로 우리 나라에 없는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희귀한 물고기들을 기르고있었다.

실내양어장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어항들이 있었고 어항마다에는 생활습성과 생육조건상 특성에 따라 갈라넣은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욱실거리고있었는데 그 종류를 헤아릴수가 없었다.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을 일일이 눈여겨 살펴 보며 양어장을 한바퀴 돌자면 퍼그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날 양어장을 찾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시간이 없으신듯 양어장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보통걸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어항의 물은 며칠에 한번씩 갈아주어야 하며

어떤 물고기가 고우니 그런 물고기를 많이 번식시켜 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며 양어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 어느 한 어항앞을 지나시다말고 말씀하시였다.

《어항에 있던 뼈가 들여다보이는 투명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함께 온 일군들은 더 말할것 없고 그이를 안내해드리던 양어장 관리일군까지도 어안이 병병해졌다.

하루에도 몇번씩 양어장을 돌아보면서 물고기들의 관리상태를 살펴보군하는 그였지만 어느 어항에 어떤 물고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어 담당관리공들조차도 고정된 물체도 아닌 어항속에서 헤엄치며 돌아가는 여러가지 물고기 중에서 어느 한마리가 없는것을 첫 눈에는 알아 보기 힘들어했다.

그런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전날에 오셨을 때 빠른 걸음으로 한번 스쳐보시였을뿐인 그 많은 물고기를 일일이 다 기억해두셨다가 그중의 한마리가 없는것을 첫 눈에 알아보시는것이였다.

양어장관리일군은 담당관리원을 찾아서 알아보고서야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말씀하신 그 투명물고기라고 하는 희귀한 남방물고기는 지금 새끼를 내우려고 다른데 옮겨넣었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가 이에 대하여 보고드리자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그 물고기를 알을 깨우려고 다른데 옮겨넣으면 좋습니다. 전번에 돌아볼 때에는 어항에 그 물고기가 있는것을 보았는데 보이지 않기때문에 혹시 죽지 않았는가 하였습니다.》

모두들 그이의 비상한 기억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상의 몇가지 이야기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얼마나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고계시는가에 대해 말해주는 극히 단편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듯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셨기에 그이께서는 개별적인 전사들의 생활상의 사소한 문제로 부터 당과 국가 사업에서 매일같이 제기되는 수많은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가장 정확히 기억해두실뿐아니라 가장 정확히 보살펴나가실수 있는것이다.

## 수령복을 타고났어 외 1 편

서동린

수령님을 잃어 하늘이 무너졌다  
허나 위대한신 장군님 계셔  
내 마음의 기둥은  
그 하늘을 들어올리며 일어섰다  
그때 내 가슴속에서 울린 목소리  
-수령복을 타고났어!

《압살》의 모지름을 쓰던 원썬들이  
그이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승리자의 희열에 휩싸였던  
내 가슴속에 뜨겁게 울린 목소리  
-수령복을 타고났어!

사회주의가 좌절된 폐허우에서  
잃어버린 옛생활 애타게 그리는  
눈물겨운 참상들을 생각하면서도  
내 가슴에 긍지로이 울리는 목소리  
-수령복을 타고났어!

한장 신문을 펼쳐들어도  
그이의 로작과 령도의 위대성을 두고  
세계가 울리는 격찬의 숨결을 안아보며  
내 가슴에 높이 울리는 목소리는  
-수령복을 타고났어!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인민의 존엄 민족의 영예  
건드릴자 세상에 없고  
미래는 행복으로 더욱 눈부시거니

생활의 걸음걸음에 힘차게 울리고  
생활의 갈피갈피에 가득찬 목소리  
그 목소리 합쳐 내 높이 웨치노라  
-나는 조선사람  
나는 수령복을 타고났어!

## 꽃송이

억이 찬 가슴속에서  
쇠덩이처럼 굳어지는 맹세를 엮어  
나는 놓았다  
위대한 수령님 동상 대돌우에  
붉게 타는 꽃송이를

상실의 뼈저림을  
눈물로만 달래일수는 없어  
나는 꽃송이를 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리라는

맹세중의 맹세를 엄숙히 담아  
  
세상의 천만기쁨 다 드리며  
그이를 젊음의 한모습으로 모시고싶은  
그 간절함을  
꽃의 다발에  
한생의 선서로 엮었나니

정녕 대돌우에 놓인 그 꽃송이는  
내 마음 주춧돌에 놓인 꽃송이  
비와도 눈와도 그 색조 바래없으리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 있습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 밤낮을 오르는 녀인

김은희

고즈넉한 밤의 고요가 사위를 감싸는 때였다.  
《언니! 우린 오늘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웠지요?》

《그래, 수령님께선 너희들이 오늘도 수고했구나 하고 등을 두드려주신것만 같애.》

마감단계에 들어선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서 두 녀인이 대동강건너 우렛이 안겨오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고 섰다.

소담한 머리채를 가쁜히 졸라맨 늘씬해보이는 애어린 처녀가 자그마한 키에 단단한 몸집을 가진 조발머리의 30대녀인의 손을 꼭 잡고있다.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서 충성의 지원돌격대일로 한밤을 보낸 선교공업품종합상점 강안공업품상점의 김광희와 그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평양종합방직공장의 김순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결을 떠나가신지 한몫이 되어온다.

이 일년을 하루와 같이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이의 유훈대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심혼을 다바치며 살아온 이 땅의 평범한 녀성 김광희.

그의 심장속 깊은곳을 파헤쳐보면 감동을 금할 수 없다.

### 꽃잎은 눈물에 젖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같은 타격을 안겨준 그날은 무거운 정적을 앞세우고 찾아왔다.

7월 8일 온밤을 우중충한 구름이 시꺼멓게 덮인 하늘을 무섭게 찢으며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더니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져내렸다. 만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의 고요를 깨뜨린 그 소낙비를 사람들은 까닭모를 불안과 공포속에 지나보냈다.

비끝에 숨막히는 무더위가 뒤따랐다.

그 무더위속엔 숨가쁜 중압이 배어있었다.

그 정적은 7월 9일 낮 12시 중대보도를 알리는 방송원의 떨리는 목소리로 드디어 깨어졌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모든것이 정지되었다. 수도의 거리를 달리던 승용차며 궤도전차들이 멎어섰고 사람들도 가던 걸음과 하던 일을 멈추었다.

강안공업품상점의 종업원들도 휴게실에 모여 일어설줄을 몰랐다. 믿기 어려운 이 어망쳐망한 일이 과연 사실이란 말인가.

그때 상품인수차로 시내에 나갔던 광희는 금방 들어서는참이었다.

울음섞인 방송원의 목소리와 종업원들의 굳어진 얼굴을 일별한 광희는 스프르-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천천히, 그러다 세차게.

《아니야.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어!!》

웨치며 벌떡 일어섰다.

광희는 자기가 언제 대동교를 건넌으며 언제 만수대언덕의 높은 층계를 올랐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광희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만수대언덕에는 여전히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한손을 드시고 서계시였다.

광희는 그자리에 폭 어푸러졌다. 그리고 울며 부르짖었다.

《수령님! 그게 정녕 사실입니까? 아버지로 믿고 산 수천만아들딸들을 두고 가셨다는게 정녕 사실인가말입니다.

수령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십시오. 수령님!-》

피타게 수령님을 찾고 불렀으나 오히려 잃어지고 넘어지며 달려오는 사람들의 애틋한 곡성속에 묻혀버릴뿐이었다.

수령님은 정녕 가셨다는 무서운 사실을 입증하는듯한 그 울음에 광희는 놀랐다. 언제 이렇게 우리 인민모두가 심장속 밑바닥까지 깡그리 퍼내

는 울음을 운적이 있던가. 그만 기진하여 광희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말았다.

의식을 회복한 광희는 만수대언덕의 층계를 내리고있었다.

오를 때엔 단숨에 오른 그 계단이 운명의 낭떠러지마냥 한없이 깊어보였다. 왜 그렇게 계단이 많고 긴지. 내리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도 이 계단을 내리면 어버이수령님과 영영 작별하는것만 같아. ...

한단, 두단 계단을 내려설수록 수령님의 품속에서 살아온 자기의 짧은 생, 지나온 생활이 하나, 둘 추억에 떠올랐다.

광희, 그는 한살때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래서 아버지란 말조차 입에 올려보지 못했고 아버지의 정을 조금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다.

어머니가 재가도 안하고 혼자 오빠와 광희를 키웠다. 홀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누가 욕이라도 할가봐 어머니는 자식들을 피가 나게 잘해 내세웠다. 때로는 엄격하게 매도 들며 그들을 키웠다. 부러운것이 없었고 그리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 아버지의 정만은 못견디게 그리웠다.

학부형회의때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는 동무들이 부러웠고 산으로, 들로 야유회 갔다오던 그 황혼무렵에 아버지가 잡아줬다고 자랑해보이던 그 길다란 잠자리페미가 부러웠다.

그 아버지의 정을 처음으로 느낀것이 인민학교 2학년때인가.

광희가 소년단에 입단할 때의 일이다. 부모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는 동무들을 바라보며 서러운 생각에 울먹울먹 막 울음이 터지려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의 세포비서아저씨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우는 광희에게 세포비서는 이렇게 말했었다.

《광희야! 울지 말아. 너에겐 아버지가 계신다. 자, 머리를 들고 봐라. 아버지원수님께서 광희가 소년단에 입단했구나 하시며 내려다보시지 않나?》

그 말에 울음을 그치고 우러러보니 정말 아버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그를 굽어보고있었다. 그날부터 광희는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친아버지의 모습으로 더더욱 우러르며 살았다. 그에겐 슬픈 날도 부러움이 있는 날도 없었다.

그렇게 광희는 컸다. 기쁜 날, 명절마다 그는 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에 꽃을 드리웠고 학부형회의때에는 세포비서의 손목을 잡고 다니며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그이의 슬하에서 살아온 전기간 수령님이 계시지 않는 날을 꿈에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여서 생각할수록 타격은 컸고 마음은 한없이 아팠다.

본시 약한 그의 심장은 이 타격을 견디어내지

못했다. 광희는 자리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였다. 남편 조봉운이 일어나라고, 기운을 내어 일해야 될게 아닌가고 몇번을 말했어도 그는 일어날수가 없었다. 기운은 슬며시 그의 몸에서 빠져달아나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 점장 룡애순과 세포비서 박명옥이 광희를 찾아왔다. 그들을 3살난 아들 은호의 울먹울먹한 얼굴이 맞아주었다.

《큰엄마! 우리 엄마 자꾸만 자. 우리 엄마 깨워줘.》

속여 덜컥하여 황급히 방으로 올라가보니 피기없이 새하얀 얼굴이 올려다보고있다.

《광희동무! 광희, 왜 이래? 눈을 떠.》

확실히 잡아흔드는 서슬에 광희의 눈이 힘겹게 떠졌다. 그러더니 눈기로 주르르-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점장동무, 비서동무!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가셨나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말에 맥없이 폭 떨구는 그들의 머리며 어깨가 건잡을수 없이 세차게 떨리기 시작하였다. 방안은 삽시에 세 너인의 울음바다로 변했다. 어른들을 지켜보던 은호도 왕-하고 울음보를 터뜨렸다.

광희는 막 몸부림쳤다.

《비서동무! 난 막 죽고싶어요. 우리 수령님께서 가셨는데 나같은게 살아 뭘하겠나요? 아무 쓸모없는 나같은건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수령님께선 ... 아!》

가슴을 막 쥐어뜯으며 토하는 그의 설분에 너인들의 눈물은 더욱더 솟구쳤다.

한참후 명옥비서가 나직이 입을 떼었다.

《우리 그만 울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장군님께선 오죽하시겠어요?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자요. 우리가 이렇게 울기만 하면서 맥을 놓고있다는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프시겠어요?》

그날부터 광희는 자리를 거두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꽃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로 종종걸음을 놓았다. 남편과 밤을 새워 갖가지 꽃들로 지성어린 화환을 만들어가지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수령님 동상엔 우리 인민이 올린 화환과 꽃송이들이 차고 넘쳤다. 밤을 새우고난 꽃잎들이 함초름이 새벽이슬에 젖어있었다. 광희에게는 그 꽃잎들에 맺힌 이슬이 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이 흘린 눈물같았다.

그 눈물은 수령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 인민의 행복스럽고 긍지높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며 수령님은 가시지 않으셨다는 심장속 웨침의 자욱자욱이리라.

광희는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을 앓고 수령님동상을 우러렸다. 그리고 말쑤드렸다.

《수령님! 어버이수령님!

많은 일을 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수령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서고싶었는데 일을 쓰게 못하여 수령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그렇게 실속없는 빈 맹세로 되지 않게끔 하렵니다. 진짜 효녀가 되렵니다.》

광희의 이 맹세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결식날에 더욱 굳어졌다.

중앙추도대회에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무척도 수척해지신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이의 슬픔과 그이의 로고를 조금이라도 광희, 자기가 덜어드리고싶었다.

어버이수령님께 못다바친 충성을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고싶어 뼈아픈 죄책감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무섭게 일하였다.

한편 밤에는 꼭꼭 만수대동상에 올랐다. 왜 그런지 광희는 수령님을 잃은후부터 밤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조급해지곤하는것이였다.

저녁어스름이 스르르- 깃들 때면 옆사람이 보기에 알릴만치 몸가짐이 허둥거리곤하였다.

어느날 광희를 찾아 세포비서는 조용히 물었다. 그후에 종업원들에게 세포비서가 하는 말에 모두들 울었다.

《광희동문 이렇게 말했어요. <비서동무! 난 밤이 되면 수령님께서 어둑속에 홀로 계시는것만 같아 못견디겠어요. 밤이란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문 봉사활동이 끝난 밤이면 항상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언덕에 달려가군합니다.》

하지만 광희는 자기의 생각이 그릇된것임을 만수대언덕에서 밤을 새우는 날들에 사무치게 깨달을수 있었다.

우리 수령님은 끝없이 끝없이 찾아오는 수천만 우리 인민들의 변함없는 충성에 싸여계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위해 많은 길을 걸어오시며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겨오시던 평시처럼 수령님은 여전히 우리 인민의 어버이로 계시였다.

만수대언덕엔 밤이 없었다. 정적이란 없었다.

광희는 밤마다 만수대언덕의 수령님 동상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계단을 내리었다. 그 걸음을 하루도 번짐이 없이 걸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생전에 꽃들을 그토록 좋아하셨는데 그 기쁨을 변함없이 드리고싶어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한달이 되는 때에도, 두달, 석달, 녁달, 다섯달이 되는 때에도, 100일 때에도, 상업절에도 화환과 꽃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곤하였다.

꽃이 흔한 강산에서 꽃이 가장 귀한것으로 되었던 지난해에 한결같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꽃송이들을 수령님께 드린 광희의 수고를 어떻게

헤아리라.

광희의 마음속엔 언제나 수령님께서 계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은 우리 인민들을 떠나가지지 않았다는, 수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싶어하는 인민들의 간절한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심어주신 신념이 광희의 심장속에도 굳건히 자리잡았거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녀인의 마음은 뜨겁다

진심을 바쳐 우는 녀인의 마음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마음일수록 거기에 배여있는 정은 강하다. 그 정이 강하여 눈물을 흘리고난 뒤에 녀인은 백배의 맹세와 천백배의 용기로 일어나는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은 참말로 뜨거운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구상에 의하여 진행되는 당창건기념탑 건설이 착공의 삽을 박은 첫날 당원돌격대 평양시려단 기술대대 철근소대에는 김광희와 김순길이라는 이름이 명예대원으로 나란히 등록되였다.

《순길아, 너 이제 동생들의 밥이나 해주고 옷가지나 빨아주는 가정주부노릇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우린 이제 달리 살아야 해. 우리에게엔 이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밖에 안계신다. 너도 수령님을 잃고 울었지. 그 눈물이 값죽은것이되여선 안돼.

자, 래일부터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 나와 함께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 나가자.》

순길이란 선교구역 강안1동에 사는 평양종합방직공장의 로동자처녀이다. 그에겐 부모들이 없다. 병으로 일찍 돌아간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 애어린 처녀의 몸으로 녀동생과 남동생을 부양하는 가정주부. 그는 집안살림살이도 할래, 동생들 뒤거두매도 할래 가정일에서 눈코 뜰새 없이 바빠 돌아갔다. 남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순길이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며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담당판원이면서 친언니이기도 한 광희였다.

광희는 그 아이들가정의 맏언니, 맏누이였다.

지금도 광희에게는 순길의 집을 찾아갔던 첫날 정경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은 12월의 첫눈이 내리던 날이여서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광희는 늘 하던 일과대로 담당인민반세대를 돌아보며 생활형편을 료해하고있었다.

인민반장과 함께 어느 한 집을 두드렸을 때였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통명스런 말소리

가 뛰어나올뿐 맞아주는이 없는 집 문을 열고 들어서던 광희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저녁을 짓는지 흰 김이 서러오르는 부엌쪽에서 한 처녀가 내다보고있었다. 그애가 순길이었다.

인민반장이 담당판매원이라고 알려주는 말에도 순길은 아무 대꾸도 없었고 《수고하누나. 어디 내가 좀 볼가?》 하고 광희가 부엌에 들어서는데도 맛갓잖게 힐끗 쳐다볼뿐 자리를 고집스레 내주지 않았다.

《언니! 내가 그때 참 철이 없었지요?》

몇해가 지나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서 충성의 지원돌격대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밤길에 순길이 가 느닷없이 한 말이였다.

(정말 그때 넌 철부지였어. 이애들형제에게서 언니, 누나라는 부름을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날은 몇해전 어느 여름날이였다.

남새를 사들고 순길이네 집앞에 당도한 광희는 문고리를 잡은채 멈칫했다. 안에서 순길리와 순영이가 하는 말이 찌르르 가슴에 마쳐오는것이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순영이가 며칠내로 배치장을 받는다고 하더니 그 일을 두고 말하는것 같았다.

어릴 때부터 순영은 약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여 오래 살게 하겠노라고 입버릇처럼 외우곤하였다. 병으로 돌아간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항상 아픈 마음을 안고 있던 그였었다. 그래서 지금 제약공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것이다.

광희의 눈앞에선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를 생각하고있을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걸음으로 구역로동과를 찾아갔다.

며칠 걸음을 하여 끝내 순영이가 제약공장으로 배치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로부터 며칠후 광희의 생일날,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손님들이 그의 집에 왔다. 순길이형제가 갖가지 음식과 함께 간단한 기념품까지 마련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던것이다.

《언니, 언니 우리 형제의 친언니예요. 동생들의 생일축하를 받아줘요.》

아, 서로서로 울며 웃으며 깊어가던 그밤은 얼마나 좋았던가.

(이제는 순길리도, 순영이, 택만리도 다 철이 들었어. 부모없는 자식이 일찍 철이 든다고 어버이수령님을 잃은후에 지각이 생기고 험이 들었지.)

고요한 밤길에 전투들 끝내고 돌아갈 때면 광희는 가지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들곤하였다. 원래 말이 없던 성격의 광희가 더욱 진중한 녀인으로 되였다.

밤의 고요와 함께 짓드는 추억은 참 많았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세대를 물심

량면으로 도와준 일이며 의용군으로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자식없는 부부의 친딸이 되여 성심성의를 다 바치던 일, 영예군인 청년의 결혼식상을 차려주던 일 등이 하나, 둘 떠올랐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에는 자기가 뭇인가 좀 하는것처럼 생각되던것이 이제 와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전과는 다른 자각과 투지를 가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일떠서 힘찬 투쟁을 하고있는데 광희, 자기만이 예대로의 생활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만 같았다.

더우기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해를 맞는 전체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사언깊고 은정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신 그 격동을 받아안으면서 광희는 자책이 컸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

이 얼마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 값높은 칭호인가.

진실로 이 칭호를 지닐수 있다고 우리 집단이, 우리 담당인민반 주민들이 말할 때 나는 수령님 앞에 땀뻑하게, **김정일**장군님앞에 가슴 쪽 펴고 나서서 인사를 드릴수 있을것이다.

매일 다지는 이런 량심의 총화는 곧 광희를 이끄는 채찍이였다.

광희의 하루일과는 이러하다. 새벽에 만수대동상으로 간다. 위대한 수령님께 인사드리고 정성사업을 하고 내려와 상점에 출근한다. 봉사가 끝나면 담당인민반을 한바퀴 돌아보고 집에 들어와 쌀을 씻어 밥을 안쳐놓는다. 그다음엔 순길리를 데리고 당창건기념탑 건설장에 충성의 지원돌격대로 나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인 날이나 흐린 날이나 광희의 이 하루로정은 변함이 없고 드림이 없다.

수수한 상점판매원 김광희, 이 녀성에 대해 말하자면 제한된 지면이 아쉽다.

인민학교시절부터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석고상에 진달래꽃을 피워올리고 만수대동상에 아름다운 꽃바구니와 꽃을 드리는것을 생활화하고 습성화해오는 녀성.

온갖 지성과 성의를 다하여 인민군대원호사업을 하고 담당인민반원들을 친자식, 친언니심정으로 보살펴 《우리 판매원》, 《우리 광희》라는 사랑스런 애칭을 받고있는 녀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기 위해 충효의 마음을 다 바쳐가는 녀성.

이 녀인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다진

심장의 멍세를 지켜 진심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나선 충신이고 효녀인것이다.

광희는 항상 이렇게 말하군한다.

《아버이수령님은 곧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십니다. 저는 친애하는 그이를 충성  
으로 받들어나갈 때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고 생  
각하고 일할뿐이에요.》

×

세포비서 박명옥의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광희동  
무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출판보도부문에서 널  
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  
였습니다.

정말 광희동무는 널리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동무입니다. 일 잘하고 남의 일 잘 도와주고 웃  
음많고 눈물많은 다정다감한 동무지요. 뭐 칭찬  
할 말이 부족할정도입니다.》

점장 룡애순의 말:

《광희동무에겐 그 어떤 일을 맡겨도 드팀이 없  
습니다. 흠잡을데 없이 해놓는 그의 일처리에 전  
항상 백프로 만족하군하지요. 자기 계획을 미달  
한 때가 단 한번도 없는 동무입니다.》

김순길의 말:

《우리 광희언니에 대해 쓰려면 부끄럽지만 제  
애길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언니가 어떤 사람인  
가를 알게 될거예요.

추석날이 오면 아버지, 어머닐 찾아가보라고  
음식도 꾸려주고 함께 가기도 하고, 또 우리 형  
제들에게 항상 관심을 돌려주고... 하지만 중요하  
건 제가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에 충실한 딸이 되  
라고 이끌어주는거지요. 말하자면 광희언니 저의  
스승인셈이지요.》

남편 조봉운의 말:

《우리 은호 엄마가 어떤가구요? 허, 이거 제색  
시 자랑하는놈은 천하바보라고 했는데 절 바보로  
만들려는게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그저 제할바를 하느라고 뛰는  
사람이지요.

집안살림도 거기에 맞춰 흘러갑니다.

내가 좀더 잘 도와주어야겠는데...》

## 오늘도 밝게 웃으십니다

량덕모

따사로운 해빛이 내리는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그리움으로 타는  
이 가슴에 어려오는 그 영상

아버이수령님은 오늘도 웃으십니다  
천길막장 광부들속에 싸여  
룡말도 허물없이 나누시던 때처럼  
순진한 아이들의 재롱에 묻히어  
떠나실줄 모르시던 공원에서처럼

그 웃음에  
조국을 찾아주고 지켜주신  
강철의 령장의 기쁨이 물결칩니다.  
꿈같은 행복을 주고 희망을 밝혀주신  
인민의 수령의 예지가 눈부십니다

따르는 심장들에  
끓을수 없는 정으로 흘러들고

버릴수 없는 리념으로 흘러들어  
슬픔도 시련도 이겨내게 하는  
내 조국의 빛이여! 온기여!

이 나라 끝에서 끝까지 채우고 가신  
태양의 그 빛발  
아버이의 그 숨결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고스란히 이어가시니

그지없이 따뜻한 수령님의 웃음입니다  
그 웃음에 비껴  
저리도 맑고 푸른 내 나라 하늘입니다

오, 이 강산에 내리는 해빛처럼  
수령님은 웃으십니다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봄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한모습으로  
언제나 밝게밝게 웃으십니다

#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를 읽고-

최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신지 1년이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 결정서를 크나큰 감격속에 접한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받들어모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떠나 사회주의조선의 위용과 그 창창한 미래를 꿈속에서도 그려볼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우리 겨레와 민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광휘로운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심으로써 유구한 5천년단군조선이래 인류의 희망봉으로 높이 솟아 세상을 굽어보는 준엄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는 지금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다.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겨레와 민족, 온 인류가 눈물에 젖고 온 우주가 슬픔에 몸부림치던 지난해 7월을 회억하며 더욱 신념으로 간직하는것도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는것도 태양은 영원하다는것이다.

## 1. 추모설화의 시원

인류력사 백만년의 갈피마다에는 수많은 설화들이 깃들어있다. 인류는 매 세대들에서 나라와 민족고유의 실화들을 낳아 전설로 후세에 전하였다. 입과 입을 거쳐 전해지던 전설들은 인류가 문명시대에 들어서면서 글자로 수집정리되어 인류문화의 재보로 남게 되었다. 여기에는 나라와 민족, 지역별로 수많은 전설군들이 형성되어 내용과 형식에서 각이한 유형으로 전해지는 설화들이 포괄되어있다. 천래만상을 이루고 전설로 전해지는 설화들은 대체로 인류의 생존과 운명에서 전환적인 의의를 가지는 극적사변들에 접하여 산생된것들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때로는 신화로, 환상적인 이야기로 되어 천지조화를 다 부린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낳은 실화이던 하나의 완벽한 군을 이루고 추모설화로 전해지는 전설은 없다.

자주적인류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신, 이 하늘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사변이 추모설화를 낳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력, 덕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사람들을 순간에 매혹시키는 고결한 인품과 포용력,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 만사에 대한 깊은 조예와 해박한 지식, 한없이 따뜻한 인정미와 인간애, 탁월한 웅변 등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모든 위인적품모는 전설처럼 전해져 인민들의 마음속에 천출위인의 모습으로 깊이 간직되었다.

무한대한 열, 힘을 가진 태양이 세상만물을 보살피듯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역사학교수는 위대한 수령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의 학식과 군사지략, 인덕을 합친것보다 더 큰 문무인덕을 지니시고 그 모든것을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성을 위해 바쳐오셨다고 격조높이 강조하면서 그이께서는 희랍신화의 신들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아폴론의 광명, 프로메테우스의 불, 페테테르의 땅과 먹을것, 아테네의 지혜, 아프로디테이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 **《이민위천》**의 세상을 현실로 안겨주셨다고 감동에 젖어 썼다. 그리고 자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수령님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늘의 태양이 인간세계의 태양으로 하강하신분이시라고 생각한다고 자기의 소신을 피력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하를 안고오시여 천하를 주시고 가시였으니 그이의 서거는 하늘의 태양이 꺼진것과 같은것이였다. 하기에 가장 비통한 상실을 당하여 천지만물이 호곡하고 삼라만상이 상제가 되었으며 하늘땅이 명복을 빌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태질하듯 몸을 떨며 열두줄기의 폭포를 쏟는가하면 (설화 **《백두산이 운**

다》) 만수대언덕과 만경대에 백로들이 날아와 울음을 터뜨리고 (설화 《만수대에 날아온 백로들》, 《만경대에 날아온 수천마리의 백로들》) 청청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며 (설화 《하늘이 운다》) 폭우가 쏟아지고(설화 《되우》) 계절을 초월하여 꽃들이 피고 단풍이 들고(설화 《만경대의 목란꽃》, 《절기를 앞당긴 들국화》, 《금강산의 목란꽃》, 《꽃으로 변한 나무잎》 등등...) 수많은 길조들이 날아들어 조객이 되는(설화 《은혜를 아는 령조들》, 《조의를 표하는 제비들》...) 등 참으로 기이한 자연현상을 펼쳐며 세상천지가 울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 인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였고 하늘이 낸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 짙게 해주었다. 하여 인류문화사에 없는 추모설화가 생겨났다.

천출위인만이 천지조화의 신비한 전설을 낳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아직 인류가 맞이해 보지 못한 위인이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지구행성이 처음으로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인간이시다. 나라와 민족, 인류의 자주성을 위하여 태양의 위업을 이룩하신 그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온 세상 사람들의 심장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하늘의 천기를 타고나신 절세의 위인으로, 하늘이 낸 인류의 수호자, 삶의 태양으로 뜨겁게 간직되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가장 비통한 슬픔이 태양을 잃은 슬픔으로 되어 아직 인류문화사에 없는 추모설화로 되었다.

## 2. 절대적인 숭배심의 반영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에 실린 매 설화들은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다. 기이하고 신기한 그 신비경속에서 엄연한 현실을 체험한다.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신기하고 꿈같은 신비경속에서 산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심의 반영이다.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추앙심이 추모설화의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매 설화들은 어찌보면 신적인 세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200메터나 되는 거대한 《룡》이 태양의 하늘을 주름잡으며 날고(설화 《태양의 하늘에 오른 룡》) 강물이 타래치며 오열을 터뜨리는 (설화 《오열하는 려성강》) 등 실로 추모설화의 매 이야기들은 얼마나 신비한가.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세계인것이다. 그러면 이 《신》적인 세계가 어떻게 오늘의 현실로 펼쳐졌는가?

인간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기의 본질적특성을 찾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한 존재로 되었다. 사람은 관념론자들이 말하는 순수 정신적존재도 아니며 부르조아반동들이 력설하는 자연적인 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사회적 존재이다. 하기에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개조하고 개척해나가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한다. 세계와 자신을 파악하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이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여 이 땅우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추모설화의 전혀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았다.

추모설화에 펼쳐진 신비경은 순수 관념에 의하여 환상적으로 추상된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생활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된 사상감정에 의하여 파악되고 감수된 현실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삶의 전부로 운명의 구성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우러르며 숭배하는 우리 인민의 수령관화된 사상의식은 추모기간에 생긴 기이한 자연현상을 한갓 자연의 조화로만 파악하지 않았다. 이 모든것은 상실의 비통함과 밀착되어 감수됨으로써 추모설화로 되어 신비한 세계를 펼쳐놓은것이다.

사람의 본질적특성인 의식성에 의하여 투영된 생활현실은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평가되는것이다.

추모설화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절대적으로 믿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체험된 생활감정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므로 추모설화는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라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한 시각에 우리 인민들이 모든것을 운명의 태양을 잃은 끝없는 상실의 비통함과 련결시켜 감수하고 파악한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것은 추모설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 위해 바치신 한평생의 로고, 령도의 자욱과 결부되어 이루어진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만경대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한평생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고초와 혁명의 길에서 곱쌓이는 온갖 시련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였으며 위대한 심장의 고동이 멎는 마지막순간까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온 생애를 다 바치신 혁명의 위대한 화신, 성인이시였다. 추모설화 《백두산이 운다》는 장장 오랜 세월 이 나라 조종의 산으로 솟아 겨례의 수난을 허리굽혀 목격하며 머리에 흰서리를 엮어온 백두산이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맞

이하여 세상에 이름을 빛내이며 궁지롭고 영광찬 세월을 보내오다가 만고의 슬픔을 당하자 제일 먼저 비통함을 참을 길 없어 하늘을 찢는 피우로 방성대곡하고 몸부림을 치며 피눈물을 흘린 자연정경을 이야기하고있으며 설화 《〈꽃〉을 피워 올린 삼지연》은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의 뜻깊은 사적이 깃든 삼지연에서 안개가 신비로운 《꽃》으로 되어 수령님의 동상대돌우에 자리를 잡고 명복을 빌었다는 신기한 현상을 펼치고있다.

설화 《만경봉의 무지개》,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이》, 《신기한 고동소리》, 《계절을 앞당긴 두벌감》, 《군자땅에 찾아온 새들》을 비롯한 많은 설화들은 인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력사의 땅들에서 일어난 신기한 자연현상들이다. 이 모든 설화들은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고스란히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뜨겁게 확증해주고 있으며 수령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있는 우리 인민의 신념을 힘있게 반증해주고 있다.

추모설화에는 또한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경모의 정과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대강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이 반영되어있다. 설화 《선언》은 분계연선 판문군에서 비 한방울 뿌리지 않으면서도 천지를 진동시킨 피성벽력과 불라는 태양 모양의 구름에서 생겨난 꼭같은 열개의 새털구름을 펼친 신기한 현상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진리성을 펼친 자연현상으로 감수한 이야기이다.

설화 《풍운조화를 적은 일기》 가운데서 통일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는 수령님의 뜻대로 반드시 조국은 통일되리라는 확신이 비껴있으며 설화 《〈청룡〉이 노하다》는 최대의 국상을 당한 겨레와 민족의 가슴에 칼부림을 하는 만고역적 김영삼악도의 대죄를 용서치 않는 겨레와 민족력사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추모설화에는 오로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너무도 고생많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지 못한 우리 인민의 죄책감과 함께 수령님께서 영생하시기를 바라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이 뜨겁게 체현되어있다. 설화 《한밤중의 소울음소리》는 며칠전까지만 해도 농장포전길을 걸으시며 현지도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통한 슬픔을 당했을 때 9마리의 소가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며 한밤중에 울부짖은 신기한 현상을 두고 이 소들도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한것으로 감수한 이야기이며 설화 《무지개다리》와 《강남에 날아간 제비》를 비롯하여 많은 설화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결코 가실수 없으며 수령님을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 혼연일체의 감정, 수령님의 소생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뜨겁게 반영되어있다.

추모설화는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 남녀로소 할것없이 우리 인민모두가 체현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인민적인 성격을 띠고있으며 또한 하늘, 땅, 바다, 산천초목, 금수강산 할것없이 온 세상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를 슬퍼하고 상제가 되어 추모하는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을 펼쳐보여 줌으로써 수령님은 겨레와 민족, 온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한 자주위업의 태양이시였다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 3.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는 겨레와 민족이 최대의 국상을 당하였으나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간직한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생존해계실 때도 수령님의 위대성에 언제나 감탄을 금치 못해왔지만 수령님을 잃고보니 우리 인민은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었으며 얼마나 큰 수령복을 누려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수령의 위업에 충효일심을 다 바칠것을 맹세다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오늘 더욱 숭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있다.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으로 이어져야 한다. 만물에 영원한 삶을 주는 태양이 식어버리고 꺼져버릴 때 천하만물도 빛을 잃고 꺼져버리고만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슬픔으로 온 강산이 눈물에 젖어있을 때 조선의 하늘에서는 또 한분의 태양이 빛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태양, 인류의 태양으로 찬란히 솟아오르시였다. 하기에 추모설화들에서는 비애와 눈물만이 아닌 천백배의 결의와 맹세,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의 빛발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가 명백히 굽이치고있다.

백로들이 날아와서 고인의 시신우를 마흔번 감돌면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한다는 옛전설에서와 같이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백로들이 나타나



아버이수령님의 동상우를 세시간동안이나 감돌고 밝아오는 새벽하늘 저 멀리에도 날아갈 때 우리 인민은 가시기전에는 미처 다 몰랐던 수령복을 다시금 절감하며 수령님 생존에 충효를 다하지 못한 자책의 회초리로 마음들을 매질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더 잘 받들어모실 충성의 맹세를 철석같이 다지였고 그이의 높은 뜻속에,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속에 우리 수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설화 《소생의 〈천사〉들이 날아왔다.》) 그리고 비통한 슬픔으로 잠들지 못하는 야밤에 하늘땅을 뒤흔들며 두번 울린 천둥소리와 신기한 새별을 두고는 첫번째 천둥소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슬픔을 이겨내시는 퇴성벽력으로, 두번째 우뢰소리와 신기한 별은 그이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보여준것으로 체득하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가다듬는것이다. (설화 《천둥소리와 신기한 별》) 또한 설화 《하늘에 새겨지다》, 《봉화산의 〈룡〉》, 《세마리의 금빛새》 등 많은 설화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영생과 태양의 위업의 영원함을 신념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감동깊게 반영하고있다.

추모설화는 《장자봉에서 백두산이 보였다》에서와 같이 지심을 울리는 웅글진 소리와 함께 구름이 흩어지고 해가 퍼지면서 장자봉에서 수백리밖의 백두산이 선명히 보인 신기한 현상을 놓고 바로 그 순간이 백두산은 곧 우리의 수령님이시고 장자봉은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이시므로 그이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생존의 뜻을 이룩하실 뜨거운 심정을 담은 말씀을 올리신 순간이었다는것도 있으며 설화 《삼색구름》에서와 같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으나 항일혁명투사들이 만방에 소리높이 자랑한 《3대통운》은 영원불멸하다는것을 하늘이 펼친 적, 황, 청의 삼색구름을 통하여 보여준것도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어나갈것이라는것을 천지조화의 신비한 현상을 펼치며 력력히 부각하고있다.

태양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태양의 위업은 태양에 의하여 영원불멸하다는 시대와 력사의 의지는 백두산의 사상, 백두산의 신념, 백두산의 담력, 백두산의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의 장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무적필승의 위용과 결부된 추모설화들로 하여 더욱 강화되고있다. 본계연선마을 북쪽과 남쪽의 상공에 두개의 무지개가 있었다가 점차 하나로 합쳐진 신기한 현상(설화 《통일무지개》)은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 따라 우리 인민이 곧 조국통일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강조하고있으며 백여메터의 폭과 다섯메터이상되는 두께의 균형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500메터이상 늘어선 잠자리떼의 대군종대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주위를 에둘며 벌린 장엄한 《열병식》은(설화 《잠자리가 무리를 지다》)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 령술하시는 인민군대는 강군무적이며 이런 필승의 무력을 가진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것을 힘있게 상징하며 장군님의 위상을 더욱 부각하고있다. 하여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명령 하나로 구름같이 몰려드는 대적을 제압하고 세계를 평정하며 백두산 호랑이의 위용으로 천하를 굽어보며 지구를 움직이고계신다는것을 한껏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사상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위대한 령도로 세계를 경탄케 하며 위대한 인덕으로 온 우주를 그러안으시는 현세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의하여 태양의 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인민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우리 인민을 령도하고계신다- 이것이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가 천변만화의 신비한 현상으로 만고지통을 세상에 고하고 호곡하며 여운으로 남긴 메아리이다. 이 메아리를 타고 바야흐로 태양의 위업이 태양으로 이어져 태양민족의 력사 위에 위대한 주체시대가 찬란히 수놓아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셨을 때 전인민적 통곡으로 세계를 놀래웠던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받드는 충효일심으로 또 다시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하기에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는 슬픔의 기지에 거세차게 흐르고있는 충성과 효성의 대하로 만사람의 심장을 쿵쿵 울리며 격동시키며 이렇게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시대여, 세계여, 력사여 간직하라!

위대한 **김일성** 시대에 의하여 개척된 태양민족의 력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받아 영원한 젊음으로 힘있게 이어지고있다. 아!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하신다, 태양은 영원하다!

시초

## 이 탑은 지구우에 하나

오영환

### 만고의 령장을 우러러

이 민족의 영광이  
만고의 령장을 모신것임을  
가슴 부풀도록 안겨주는  
전승기념탑,

눈여겨보라, 승리자의 군상을  
전선 천리 포연속에서  
불탄 마을의 발이랑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던  
**김일성** 장군을 우러르는 모습이다

안으라, 걸음걸음  
백전로장의 화살표따라  
하나로 고동친 인민의 심장,  
그 맥박이 여기에 뛰고  
그 숨결이 여기에 흐른다

들으라, 승리자들의 한목소리를  
-부러워 말라  
땅의 넓이를,  
인구의 크기를!

그렇다, 이 땅에 열다섯 나라 련합무력을 몰아온  
간악한 미제침략자도  
일제를 전몰시킨 백두산의 장군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았는가

위대하여라, 백두의 기상이어  
온 누리를 진감시킨 조선의 승리가  
지구의 운동을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지 않았는가

금지 높아라, 영광 넘쳐라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기념탑은  
이 지구우에 오직 하나  
천길 땅속의 청동을 캐여,  
만년 대리석을 정히 다듬어  
불멸의 그 업적 여기에 펼쳤도다

아, 이 나라의 후손만대가  
머리 들고 살 하늘이 있고  
가슴 펴고 살 땅이 있나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는  
이 민족의 하늘이고 땅이여라!

### 영웅의 목소리

나는 승리상, 영생하는 병사  
산도 타고 강도 뚫던 3년석달  
북남 3천리에 피를 뿌리며  
전승의 환희를 안고온 사람

내 이 기발 추켜들고  
입성한 도시는 얼마이고  
치달아오른 고지는 얼마이며  
헤쳐건는 강은 얼마인가

세월이 흘러가도

이 기발 그날처럼 휘날리고  
세대는 바뀌어도  
내 목소리 그날처럼 울리리라

나는 **김일성** 장군 개선의 날  
머슴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기름진 논밭을 분여받아  
행복을 누려본 사람

목숨은 버리어도  
그 은덕은 못버려

결사의 각오를 읊물고

공화국기발을 지켜낸 사람

누가 말하였던가

전쟁은 철과 철의 부딪침이라고

아니 여라, 전쟁은

심장과 심장의 부딪침이어라

민족의 영웅을 우러러따르며

화선천리 고동친 나의 심장은

전율하는 원쑤의 심장을

걸음마다 타승하였더라

아, 나는 여기서

후손만대와 상봉하며

그 심장을 넘겨주련다

이 기발과 함께!

정녕 나는 여기서

기어이 맞이하리라

미제와의 마지막판가리싸움에서

오늘의 승리를 지키고 빛내이는

우리의 새 세대, 최후의 승리자들을!

## 비둘기떼 날리는 아기

비둘기떼 날아내리는

이 승리마당에서

아기의 첫걸음마 떼여주는

젊은 어머니는 기뻐서 운다

웃는 아기야

뒤돌아보지 말아

너의 당당한 걸음발에

어머니는 행복해서 운단다

주저앉지 말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너의 담찬 모습에서

어머니는 그리워 찾고부르던 사람들을 보았단다

꽃 한송이 들고가는 아기야

승리를 안아온 용사들앞에

평화를 펼쳐준 영웅들앞에

너는 기어이 다가가 서라

너를 보지 못하고 가신

할아버지한테로 너는 간다

너를 안아보지 못하고 가신

할머니한테로 너는 간다

아, 비둘기떼 날리는 아기야

어머니는 들었단다

너 이제 자라나 한가슴 받아안고

세상에 받아웨칠 승리의 만세소리를!

## 승리란 무엇인가

이 고요속에 귀기울이라

옛 싸움터가 펼쳐진 여기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심장으로 주고받는 말이 있어라

승리란 무엇인가

열병단상에 오르신 강철의 령장 우러러

목놓아터치는 함성인가

하늘땅 뒤올리는 발구름인가

그렇다, 승리는

노예의 운명을

영웅의 운명으로 바뀌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

승리는 그이를 믿어

주먹을 틀어쥐고 맹세한것

시련을 박차며 기원한것

숨을 거두며 당부한것

그것이 승리더라

원한을 풀어

렬사의 눈을 감기고

희망을 이루어

후대를 축복하는것

진정 승리는

가슴 아픈 희생도

뼈를 에이던 폐허도

다 보상하고도 남는것이더라

그 승리가 있기에  
삶과 죽음의 참뜻이 밝혀지고

선렬과 후대의 숨결이 이어져  
통성번영하는 조국의 기상은 살아있어라

## 위병을 대신하여

나는 전승기념탑 문주에서  
위병을 서는 오늘의 병사  
승리를 지키고 빛내이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전사

전승기념탑을 돌아본 사람은  
누구나 한번 눈앞에 그려보라  
**김일성**장군님 백두산을 내리실 때  
**김정일**장군님 함께 오신 그날을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는  
장장 수십년 제국주의원흉과 맞서  
포성없는 전쟁을 수없이 치르며  
런이어 승리의 개가를 올리지 않았던가

하늘, 땅, 바다를 둘러보라  
어디면 없으랴  
바다엔 코를 꿰인 《푸에블로》호  
하늘엔 염통이 터진 《이씨-121》기  
땅우엔 허리 부러진 《판문점도끼》자루

## 가사

수령님 한평생은 하늘이 되어  
사랑으로 안아주신 인민의 머리우에  
억만년 푸르게 비껴있으리  
아, 영생하시네

수령님 한평생은 해빛이 되어

세월을 이어왔다, 승리의 만세소리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세대  
미제의 《핵소동》을 산산 짓부시고  
또 한차례 대승리를 펼치지 않았는가

보라, **김정일**장군님께서 이 탑을 세워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첫 나라도  
최후의 멸망을 안길 마지막나라도  
영웅조선임을 여기에 밝히시였다

잊지 못해라, 백두산의 예언을  
승승장구하는 력사가 거기서 시작되고  
동방일각의 사회주의보루가  
거기서 솟아올라 세계를 밝히나니

아, 백두산을 우러르라  
만고의 령장과 함께  
희세의 명장을 낳은  
혁명의 성산을 우러르라!

## 영생하시네

오은하

참다운 뜻을 주신 만민의 가슴을  
따사로이 비쳐주며 앞길 밝히네  
아, 영생하시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  
아, 영생하시네

# 공장총각

조상호

## 1

《한세동》논을 부업분조로 넘기자고 한 태범반장의 주장을 《공장총각》으로 불리우는 정학순이가 순간에 《지짐짜뒤집듯》해놓았다는 작업반협의회소식은 삽시에 온 마을에 퍼졌다.

《아 글썸 그 타산밝은 부기장까지 〈하긴 참새 한마리 잡자구 대포를 쏜다는 반장말두 일리는 있어. 거기서 나는 소출이야 이 작업반에선 새발의 핀데 그 모래논을 박하밭으로 만들면 현금수입이라도 높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판인데 갑자기 〈공장총각〉이 불쑥 일어나더니 〈전 의견이 있습니다. 알곡면적을 늘이는건 당의 요구인데 흠잡이하기 힘들다구 어떻게... 한세동의 지력을 높이는건 우리 작업반결의조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구 못을 박듯이 딱딱 박아 말했대요. 그러자 관리위원장까지 책상을 탁 치면서 〈역시 로동계급다운 말이요. 이제야 속이 썩 내려가는것 같구만.〉 하는 바람에 우리 반장은 본전두 못찾구 얼음판에 넘어진 황소처럼 눈만 뚫뚫...》

《반장이 협의회가 끝나기바쁘게 공장총각을 불러냈더군...》

《가만있지 않을거야. 그 성미에...》

말이란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커지는법이다. 협의회소식은 몇입 건느자부터 이상스럽게 번져갔다.

공장총각이 눈물이 쑥 나오도록 욕을 먹었다는 등, 아니 반장에게 막 대들었는데 그 어진 총각도 성나니 범처럼 무서웠다는등, 그래서 반장은 뻘소뻘소하고 손을 내흔들어 물려앉았다는등...

위낙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버드나무집》로친은 영천마을이 생겨 《큰》일은 꼭 두번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해 기계화반장네 새 며느리가 평양산원에 가 세쌍둥이를 낳은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협의회가 끝난후 반장과 공장총각이 작업반실이 들썩하게 대판 다툰것이라고 《선언》했다.

《버드나무집》에 마을돌이갔다가 그 소식을 들은 《한세동집》로친은 가슴이 활랑거리려 언제 밖으로 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한세동》은 위낙 모래가 많이 쌓인 땅이어서 해마다 흠잡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말그대로 밀빠진 독에 물붓기였었다. 제대로 되자면 그 넓은 땅에 한뼘두께는 흙을 깔아야 한하는데 《한세동》뒤언덕을 통채로 허물어내가면 어떨런지... 농장의 운수수단을 몽땅 동원하여 석삼년을 실어낸대도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예 부업분

조로 넘기자는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뜻밖에도 공장총각이 협의회에서 푹 막아나섰다는것이 아닌가.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의 곳곳에서 개들이 왈왈 소란스레 짖어댔다. 그것들도 이 《핑장한 싸움》에 놀라서 덩달아 떠들어대는듯 했다.

(아마도 총각이야 《한세동》사연때문에 그랬을테지.)

공장총각이라고 불리우는 정학순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몇달전에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농장으로 와 《한세동집》 바로 자기네 옷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마음도 어지고 일도 잘해서 아들처럼 정이 폭폭드는 총각이었다.

첫 새벽문을 열면 오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집마당으로부터 기계화작업반앞길을 거쳐 작업반실앞까지 깨끗이 쓸고나서 물안개 피어나는 시내가에서 뽕수마찰을 할때면 《한세동집》은 자기도 마음이 거뜬해지고 젊어지는것 같았었다.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그가 새벽어스름이 깔린 마을길을 썩썩 쓸어나갈 때마다 길옆집들에서 이런 소동이 일군했다.

《애 손돌아, 공장총각이 이앞을 지나가는걸 보니 여섯시가 다 된것 같다. 빨리 일어나거라.》

《여보, 공장총각이 작업반실앞까지 다 왔는데 아직까지 이불을 꺼안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 좀 쏴라요.》

이제는 손돌이는 물론 온 마을 청년들이 다 승벽내기로 일어나 마을을 쓸고나서 공장총각이 들고는 록음기소리에 맞추어 건강태권도며 불동체조를 하느라 엇플엇플 돌아가서 마을이 얼마나 환해지고 북적거리는지 모른다.

일나갈 때면 그는 언제나 기타를 들고나갔는데 실참마다 쿵쾅쿵쾅하며 아낙네들까지 끌어내서 《같이 가자요 함께 가자요...》 하고 노래를 시키는 바람에 폭소가 터져오르군했다. 자기네 령감앞이라 손을 내두르면 이번엔 공장총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손돌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끌어냈다.

《아주머니, 이것두 3대혁명이란 말예요. 문화혁명, 알겠시요?》

손돌이는 작업반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걸기한 날부터 《혁명》이란 말이 입에 붙어버렸다.

공장총각은 기계속내도 밝아서 벼수확기나 종합탈곡기 같은것은 제손으로 척척 수리했다.

《정말 복덩이가 굴러들었수다. 아예 사위삼고 말라요. 술한 처녀들이 병어리 뺑가슴 앓듯 하는 데...》

늙은축들은 《한세동집》에게 이렇게 추겼다. 그의 외동딸은 지금 이웃 석산리에서 교원으로 일하고있는것이다. 《한세동집》은 그런 부추김에 벅글췌하게 웃는것으로 대답하군했다. 총각이 받는 칭찬이 제아들이 받은것처럼 흐뭇했던것이다.

태범반장은 모임때마다 앓은뱅이책상을 두드리며 목청을 돋구었다.

《공장총각보구 물어보우. 공장노동자들이 출근했다가 아침밥먹으러 도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뿐이요? 아직도 작업시간에 슬금슬금 상점으로 가는 사람까지 있단말이요. 그런 사상을 가지구야 언제 3대혁명붉은길 타겠소. 공장총각처럼만 일하우. 공장총각처럼만...》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런 반장과 대판 다투었다는것이 아닌가.

《한세동집》은 터벌터벌 집으로 향했다.

반장에게서 호된 욕을 먹었다니 그 마음어진 총각이 지금 머리를 싸쥐고 고민하고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안고 사는 총각인데...

농촌으로 나오면서 사랑하는 처녀와 갈라진 학순이었다. 《한세동집》은 그의 옷을 빨아주려고 주머니의것들을 꺼내놓다가 수첩갈피속에서 나온 처녀사진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었다.

《한세동집》은 언제인가 딸에게 간다고 하고는 아무도 몰래 뺄스를 타고 80리도 넘는 읍으로 그를 찾아간적이 있었다. 헤어졌다면서도 처녀사진을 품고다니는 총각의 고충이 자기자식의 일처럼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던것이다.

영숙이라는 그 처녀는 학순에게서 왔다는 말을 듣자 꿈쩍 놀라더니 눈물부터 글썽해지는것이었다.

《그 사람은 수령님 유훈을 받들자구 고향도 아닌 우리 마을에 와서 그렇게두 아글타글하는 사람중의 사람이야. 난 임자네들 일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긴 하겠네만 속은 좋지 않네. 요즈음엔 꽃같은 처녀들이 영예군인한테 시집을 가구 총각을 따라 탄광, 광산엘 찾아가는 아름다운 일만 있는데... 그러다 임자네들의 그 어린 가슴에 평생두고 후회할 그런 상처라두 생길가봐 그게 걱정이야...》

처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앉아 국화꽃잎을 한잎두잎 뜯다가 호하고 가는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이젠... 알겠어요. 어머니...》

그게 다였다. 일체 다른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한세동집》은 그래도 행여나해서 점심때마다 상점앞에 와 멎어서군하는 뺄스를 담장너머로 애타게 바라보군했었다. 혹시 자기가 없을 때에 공장총각에게 그 처녀의 편지가 오지

않았나해서 어느날은 자전거를 타고 집앞을 지나가는 우편통신원령감을 멈춰세웠다.

《편지요? 글썽... 참 전번에 내가 로친에게 준 건 뭐요?》

《그건 총각네 집하구 공장에서 온거구요...》

《그럼 다른데서 올 편지도 있는가?》

령감은 고개를 기웃하더니 알겠다는듯 히죽 웃으며 지나갔다. 그 웃음을 보아서인지 《한세동집》은 갑자기 속이 불끈했다.

아서라. 앞집처녀 믿고 장가 못간다더니 그 처녀 아니면 처녀가 없다더냐...

그러나 다음날 그의 책상을 거두어주다가 몇줄씩 쓰다만 편지들을 보고는 짜릿한 아픔이 가슴줄기를 훑어내리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열한장씩이나 되는 그 종이의 앞머리에는 모두 《영숙이!》라는 이름이 크게 써여있었던것이다. 사람들은 가까울수록 수식사가 없이 이름만 쓰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처녀를 못잊겠으면 이러랴하는 생각에 《한세동집》은 코안이 매워올라 쓰린 눈을 숨벽이며 한참이나 《영숙이!》를 내려다보았었다.

이튿날 《한세동집》은 농장상점에서 사과를 한보자기 싸들고 다시 처녀를 찾아갔다. 이런저런 말끝에 이런 부탁을 했다.

《내 정말 바빠서 학순이 그 사람 아버지에게는 들리지 못하겠는데 이걸 좀 전해주지 않겠나. 그 사람 아버지가 이런 사과를 무척 좋아한다던데... 난 이제 뺄스로 가야 해서 그래. 좀 수고해 달라구...》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구력을 받아들었다.

그가 직접 학순의 집에 갔겠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알수가 없지만 어쨌든 처녀에게서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다. 《한세동집》은 낮에 억척스럽게 일하고도 잠자리에 누우면 섯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궁깃거리는 총각을 볼 때마 다 생활에 소금알을 뿌리는것처럼 가슴이 알알하군했었다...

《한세동집》은 복슬개가 다리에 와서 휘감겨들며 꿈꿈거려서야 비로소 자기 집앞에 다왔다는것을 깨달았다.

집은 불빛 한점 없이 어둑속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불도 켜 생각을 못하고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코안이 찡해졌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좀 풀어줄수 있을가?)

## 2

《잠전에 철이가 왔댔어요. 파지모은게 또 없는가 해서...》

뜻밖에도 학순은 방안이 아니라 《한세동집》의 뒤를 따라들어오며 말하는것이였다. 어디 갔다

오는지 그는 책을 한아름 안고있었다.

《녀석두, 며칠전에 파지를 한아름이나 모아주었는데 그때 소년반적으로 1등했다더니 재미를 본 모양이군.》

철이란 옆집에 사는 열살잡이에인데 손자손녀를 멀리에 둔 《한세동집》은 그를 무척 귀여워하고있었다.

《한세동집》은 부엌에 내려가 불무지속에 묻어두었던 고구마를 굴러내며 옷방으로 올라가는 학순의 눈치를 살폈다. 저렇게 얼굴색이 밝은데… 혹시 떠도는 말이 헛소문은 아닐가.

《그런데…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나?》

《〈한세동〉 때문에요. 뭐 좀 볼게 없나해서…》

《한세동집》은 불안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임자 진짜… 반장하구…》

학순이 책을 가려놓으며 씩하고 웃었다.

《한세동집》은 멍하니 학순을 올려다보다가 구운 고구마를 바가지에 담아들고 서둘러 옷방으로 올라갔다. 고구마바자기를 밀어놓아주며 조심스레 권고했다.

《이보라구, 이제라두 〈한세동〉을 부업분조로 넘기는게 좋지 않을가. 아무리 사연이 있는 땅이라 해도 방도가 없는걸 어찌겠나. 반장두 하두 안타까와 그러는건데…》

《그건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 방도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3대혁명…》

《한세동집》은 떡심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그러다가 괜히 임자하구 반장이…》

(어머니두 참, 그건 일없습니다. 설사 일이 있다 해도… 그것만은…)

《한세동집》이 주는 고구마를 받아들던 학순이가 갑자기 생각나는것이 있는듯 눈길을 들었다.

《참, 어머니를 왜 《한세동집》이라 불러요?》

《한세동집》은 놀라서 학순을 쳐다보았다.

《아니, 그럼 아직 모르고있었나?》

《난 언제인가 〈한세동〉에서 어머니가 살았기에 그러는가 했지요뭐…》

《허 그런걸 난, 그 내막을 다 알기에 협의회때 그런줄 알았구만…》

《저야 그저… 어머니두 참, 알곡면적을 늘이려는건 수령님 유훈이 아닙니까.》

《한세동집》은 역시 《공장물》먹은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새삼스러운 눈길로 학순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올라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한세동〉은 우리 시할아버지 이름이라네. 시할아버지가 그 땅을 일쿠었구 또 그 땅때문에 잘못되었다구 해서 우리 집을 그렇게 부르지… 왜 정때 빗값에 땅을 떼운 시할아버진 저 영천강이 굽이돌면서 생긴 모래불에 등짐으로 흙을 날라다 깔구 모를 냈다우. 온 집안식구가 다 달라붙어

아글타글 농사를 지어놓았는데 글썽 가을에 지주놈이 와서 몽땅 걷어가는게 아니겠나. 날라다 갈은게 자기 땅의 흙이니 그 논밭도 거기서 난 곡식도 자기것이라는거야. 너무 억울해서 대들었던 시할아버지는 지주놈의 개화장에 맞았는데 그게 어혈이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말았다네. 해방이 되어 땅을 분여할 때 시아버지는 자진해서 그 논을 받았지. 다른 논 못지 않게 많은 난알을 거두군했다네. 그런데 글썽 전쟁때 미국놈의 폭탄에 저 남동리저수지가 터지는바람에 그만 다 밀려나가지 않았겠나. 그때 밭에서 일하던 시부모까지 잃었어. 할수없이 피눈물을 뿌리면서 이리루 옮겨왔었는데 내 가슴엔 늘상 저 〈한세동〉 땅이 걸려있었네. 몇해전에 영천강을 아예 내밀구 저 땅을 도로 찾았을 때 난 밤새 울었어. 아직두 저 땅 어딘가엔 토지개혁때 박은 〈한세동〉이라고 쓴 그 표말푹이 있을게야…》

《한세동집》은 결죽한것이 목안을 메우며 가득차 올라 고구마바자기를 학순이앞에 밀어놓아주고는 얼른 아래방으로 내려오고말았다. 이불을 쓰고 자리에 누웠지만 랑블로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눈물에 절고 땀에 절고 피에 절은 그 땅을 버림받게 한것이 모두 자기의 잘못처럼 여겨지며 가슴이 저러왔다. 고맙게도 학순이가 그 땅을 가꿔야 한다고 막아나섰지만 그 사람들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한세동》사연까지 알았으니 더더욱 물려서려 하지 않을것이지만 그럴수록 반장과 사이만 더 벌어질것 같았다.

불은 불에 키질이라더니 이 늙은게 혹시 괜히 그런 말을 한것이 아닐가…

《한세동집》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며칠이 지나서부터 《한세동》흙갈이를 하는 사람들속에서는 수군수군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식이 그식이구만뭐. 난 또 무슨 뽕죽한 소리도 있다구.》

《그래도 무척 애를 쓰는 모양이야. 리책방에서 책이란 책은 다 가져다 본다더군. 손돌이가 말하는데 어제 아침엔 코피까지 흘리드래…》

《애쓰다고 될일이면 우리가 지금껏 가만있었나?》

한주일째 되는 날 저녁총화때 반장은 《한세동》흙갈이가 이만하면 작년보다 많이 한 셈이라면서 다음날부터 썸골에 넘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총화가 끝나기 바쁘게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학순을 감히 쳐다볼 생각을 못하고 쫓기듯 작업반실을 나가버렸다.

### 3

작업반실에 단들이 남게 되자 태범반장이 미안한듯 제먼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겠소. 나도 〈한세동〉 흙깎이를 계속하고 싶지만 샘골 역시…》

속에서 꾸역꾸역 올리미는 울분을 가까스로 목 새기며 손가락만 잡아비틀던 학순은 더 참지 못하고 번쩍 얼굴을 들었다.

《너무합니다. 반장동문 어쩌면 이럴수가 있습니까. 반장동문 그래 〈한세동〉 사연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뿐 밖으로 뿜어나오지 못했다. 반장이 지친듯한, 침울한 표정으로 마주보고있었기때문이었다. 피발이 선 그 눈을 보자 반장이 요즈음 흙깎이때문에 끼니도 번지며 뛰어다닌다고 하던 《한세동집》의 말이 불쑥 생각나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했다.

하긴 구체적인 토양분석에 기초하여 포전별로 면밀한 계획을 짜놓고 그대로만 밀고나가는 태범 반장이었다.

《가만 그건그렇고… 내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알기엔 동무에게 친한… 너동무가 있다던데…》

《예?》

벼가마니를 실어가는지 밖에서는 부릉부릉 자동차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용서하오. 동무의 사생활에 미쳐 관심을 못둘러서… 그러지 말고 래일부터 휴가를 받지 않겠소? 읍에 가는 차편도 많은데…》

학순은 그만 모닥불을 들쭉갠 것처럼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게 아닙니다.》

학순은 가슴이 답답해서 작업반실을 나오고말았다. 행여나해서 《버드나무집》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의 말은 학순을 더욱 아연케 했다.

《〈한세동〉 때문에 또 왔구만. 원 사람두… 그 마음은 가늠하지만… 너무 신경쓰지는 말라구. 옛날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가지고 하늘을 날수 없을가 하구 고심하구 또 고심하다가 나중엔 그만 머리가 잘못되고말았다더군. 〈한세동집〉은 자네 얼굴이 점점 못쓰게 된다고 걱정이 여간 아니야.》

학순은 멍하니 그 로인을 쳐다보았다. 저 로인에겐 이 학순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로 하늘을 날아 볼 공냥을 하다가 머리가 잘못되었다는 그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모양인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마당에서는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잔등이 얼룩 얼룩한 돼지새끼가 우둔하게도 나무판자로 둘러친 담장짚새를 빠져나가겠다고 대가리를 틀어박은채 짹짹 소리를 지르고있었다.

학순은 그놈을 잡아 돼지우리에 넣어주고는 맥없이 《버드나무집》을 나왔다.

…벼그루터기와 콩그루터기들이 뽕뽕뽕뽕한 들판이 추위에 잔뜩 웅송그리고 눈보라에 시달리우며 푸름한 달빛아래 쓸쓸히 누워있었다.

학순은 《한세동》 쪽우에 서서 눈보라가 휘몰려다니는 들판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 들판 어딘가엔 《한세동》이라고 쓴 바로 그 표말뚝이 있을것이다. 어머니네 일가의 피와 땀이, 뚫이 묻혀있는 땅이다. 살점처럼 귀중히 여겼을 땅이다.

학순은 마음이 피로왔다. 이 땅이 그대로 나를 일으켜세워달라고 소리치는것 같았다.

정말, 정말 무슨 방법이 없단 말인가.

## 4

…오늘 풀베기를 하는데 저녁무렵에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바깥으로 막 퍼부어대는것 같았다.

풀을 또 한단 묶어놓고 다시 낮을 드는데 함숙 어머니가 비옷을 들고 달려왔다.

《아니, 다 들어왔는데… 아직 뭘하나. 어서 들어가자구, 어서…》

나는 의아해서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퇴근시간이 아직 30분이나 있는데요?》

《퇴근시간이 다 뭐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농장일은 그저 그렇다네…》

《그럼 이런 땀 퇴근시간이 없습니까?》

공장에서는 출퇴근질서가 엄격하다. 480분은 나라에 바치는 성스러운 노동시간이다. 농촌에선 왜 그럴가. 하긴 눈비를 맞으며 해야 하는 농사일이 힘든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당에선 3대기 술혁명을 하자고 하는것이다. 공업노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는것…

이 풀베기도 앞으로는 기계로, 로봇으로 하게 될것이다. 그래서 나도 농촌으로 나온것이 아닌가…

학순은 지금 흥심없이 벌커덕벌커덕 일기장을 번지고있었다. 기쁠 때나 피로울 때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수 있는건 오직 이 일기장뿐인것이다.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읍에 비료를 실러 갔다오는지 멀리서부터 툽툽 툽툽 소리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오늘 토끼풀을 주고 돌아서다가 참으로 신기한것을 보았다. 명예위병대처럼 쭉 늘어선 앞마당 줄당콩대들가운데서 토끼우리쪽 한대에만 류달리 오이넌출이 휘감으며 올라갔는데 팔뚝같은 오이들이 달려있었던것이다.

《어머니, 여기 오이가 열렸군요?》

어머니는 터밭에서 고추를 따고있었다.

《작년에 심었었는데… 씨가 떨어졌던 모양이야.》

이상할것도 없다는 어조였다. 오이씨가 떨어졌으면 오이가 자라기 마련이라는것이다.

문득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던 말이 생



각난다.

《이 제 좀더 있어야 진짜농민이 돼...》

아니... 그럴수 없다. 오이씨가 한해 지났다고 그리고 줄당콩속에 끼웠다고 줄당콩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그런데 《진짜농민》이란 무얼가.

수직수직 시키는대로만 성실히 일하는 순박하고 어리무리한 그런 사람일가?

아니, 농민은 종건싫건 시키는대로만 일하는 부림소가 아니라 열정으로, 자기의 뜨거운 심장파 성실한 노동으로 이 땅을 가꾸가는 불같은 사람들이다...

학순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자기가 쓴 일기이지만 보기가 괴로웠다.

(왜 오늘 난 반장에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내가 옳다는걸 알면서도 왜 투쟁을 못했을까? 방도가 없다고? 혹시 나도 《진짜농민》으로 돼가는건 아닐가?)

...오늘 영숙에게 편지를 쓰다가 몇줄 못쓰고 다시 뜯어내고말았다. 이상했다. 속에서는 무엇인가 막 끓고있는데 편지종이만 앞에 놓으면 적중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왜 그럴가?

뜯어낸 편지종이를 탁상등옆으로 훌 밀어놓다가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어 쳐다보니... 이게 웬일인가. 영숙이에게 쓰던 《편지》들이 다 없어진것이 아닌가. 수북히 쌓여있던 그 종이들이 다 없어졌다. 책상빼람에도 책상밑에도 없었다.

어머니가 방을 정돈하면서 치운 모양인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려고 사이문을 열다가 갑자기 낮에 부엌에서 들려오던 말이 생각나 주춤했다.

《할머니, 할머니, 나 오늘 소년단모임에서 칭찬받았다. 파지수매 많이 했대구...》

《그래? 우리 철이가 참 용쿠나.》

《해해해, 그거야 할머니가 파지를 많이 모아주었기 때문이지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러니 나의 고충이 스며있는 그 《더 쓰지 못한 편지》들은 결국 철이가 받은 칭찬속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그 편지내용들을 다 읽어보지 않았을가.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나온 사람이 시시하게 처녀문제때문에 고민하고있는것이 보기 민망해서 그 《휴지》를 다 거두어서 철이에게... 부끄럽다. 사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앞에 있는가. 《한세동》을 부업본조로 넘겨야 한다는 말까지 돌고있다. 그럴순 없다. 그 땅도 잘 가꾸면 왜 안된단 말인가. 땅의 지력을 높이는건 작업법결의조항에도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령님 유훈을 지키는 길이다. 타협해선 절대로 안된다. 그 누가 뭐라건 절대로...

학순은 자기도 모르게 일기장을 훌 밀어놓고말

았다. 두손을 깎지껴서 팔베개를 하고 뒤로 누워버렸다. 마음이 괴로와서인지 오늘은 일기쓸 생각도 없었다.

이젠 어떻게 하면 종단 말인가.

줄무늬가 아롱아롱한 천정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느라니 뜻밖에도 영숙이가 웃으며 내려다본다.

《농촌에 나가서도 처음 품은 결심을 변치 말고...》

그것은 학순이가 농촌으로 나오기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영숙이가 한 말이였다.

학순은 후 하고 긴숨을 내뿜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혹시 이밤도 꽃씨를 얻으러 어느 산골길을 걷고있는건 아닐가.

언제인가 30리도 넘는 농촌마을에 희귀한 꽃이 있다면서 비를 맞으며 길어서 갔다오던 일이 떠올랐다. 자기는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비바람에 꽃포기가 상할세라 비웃으로 싸들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기뻐웃던 처녀의 그 빛나는 얼굴...

...학순이가 농촌으로 나가길 결심하고 흥분해서 원림사업소로 찾아갔을 때도 영숙은 바로 그 웃는 얼굴로 춤추듯이 꽃밭속에서 뛰어나왔었다.

그 웃음을 보자 학순은 왜서인지 버르고 별렀던 말이 자라목처럼 쑥 움츠러드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변에 나와 나란히 앉았을 때 자기 말은 못하고 요즈음 농촌에 탄원하고있는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정말 훌륭한 동무들이예요. 난 그들이 농촌에 나가서도 처음 품은 결심을 변치 말고 강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빌군해요.》

그 말을 듣자 학순은 더더욱 마음이 불안해졌다. 혹시 영숙은 자기는 그렇게 살 생각을 앓고 남들이 잘되기를 빌기만 하는 그런 처녀는 아닐가?

《영숙인 내가 농촌에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소?》

영숙은 그게 무슨 말이나는듯 뻔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호호호 하고 웃었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축하해주어야지요.》

학순은 억이 막혔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 룡이었다. 왜 그럴가. 내 말이 룡으로 들렸는가.

《아이 저 꽃... 끊지요? 어디서 났을가...》

앞에서는 두 청춘남녀가 무엇인가 속삭이며 꽃을 들고가고있었다. 꽃, 불길처럼 타는 꽃이었다. 꽃만 보면 오금을 못쓰는 영숙이었다.

학순은 농촌에 함께 나가자고 말할 기회가 지나가고말았다는것을 가슴아프게 느꼈다.

《영숙이, 우리 매일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학순은 그날 밤이 깊도록 영숙이를 생각하며 그에게 할 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영숙이, 난 농촌에 나가기로 결심했소.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런데 상상속의 영숙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운 채 계속 웃기만 했다.

《나야 축하나 해주어야지요 뭐... 안녕히 가세요.》

학순은 완강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럴수 없다. 그를 두고 내 어떻게 선풍 발길을 뗄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다음날 학순은 직장에 수속하러 나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잠전에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새로운 꽃뿌리를 가지러 며칠간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손맥이 풀렸다. 그렇다고 더 기다릴 수도 없었다. 이튿날이면 농촌으로 떠나야 했던 것이다...

농촌으로 나와 흥분이 가라앉고 자신을 랭정히 돌이켜보면서부터 학순은 자기가 영숙이를 데려올수 없다는것을, 꽃과 그 처녀를 갈라놓을수 없다는것을 가슴아프게 느끼곤했었다.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도 한숨을 내쉬며 밀어놓곤했다. 만년필을 놓으면 언제나 눈앞엔 영숙이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곤했다. 그 웃음은 때로는 한숨을, 때로는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마치도 영숙이가 그때 이 학순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으로, 그래서 통을 해보는것으로 알고 웃은것처럼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영숙의 생각이 현명했는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나는 이렇게 《한세동》 훔갈이도 제대로 못하고 주저앉지 않았는가.

학순은 고통스럽게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공하고 모로 돌아누웠다. 이번에는 옷장우에 엎어놓은 하얀 늑테를 두른 《묘향산》 트렁크가 눈에 비쳐들었다. 그 트렁크를 보니 영예군인인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빼스정류소까지 들어다주며 하던 말이 가슴을 허비고든다.

《난 널 믿는다. 농촌에 나가면 로동계급답게...》

학순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자 눈거죽을 헤집으며 또다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것은 학순이가 이동작업나갔다가 며칠만에 돌아왔을 때 옷방에서 신문 한장을 놓고 그렇게도 마음 피로와하며 담배만 자꾸 피우던 그 모습이었다. 그 신문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바로 며칠전 어느 협동농장을 현지도하시는 사진이 모셔져있었다. 학순을 보자 아버지는 갈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었다.

《정말 밥이 넘어가지 않는구나.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농사일을 그처럼 심려하시었는데... 우리 당에서두 지금 농사때문에 그리도 걱정하고있는데... 우리 집안엔 아들딸 7남매중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한명두 없으니 정말 죄스럽기 그지없구나... 몸이 좀 성하면 나라도 나가서 농사를 짓겠다만...》

학순은 갑자기 코안이 쟁해서 얼른 고개를 돌리고말았었다. 아버지는 전쟁때 받은 그 상처가

아니라 수령님 뜻을 받들수 없는 안타까움에 며칠째 식사도 잘 안하고 담배만 태우고있었던 것이다.

학순은 그때 말겨진 일이나 충실히 하는것으로 만족했던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탄광으로, 발전소 건설장으로 떠나던 동무들의 모습이 가슴을 치며 안겨왔었다.

환송의 역두...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높이 받들고 어렵고 힘든 전투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미더운 새세대 청년들...》 하고 역구내를 쪼렷쪼렷 울리던 방송원의 목소리...

학순은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불덩이 같은것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지, 제가 농촌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다. 학순은 수령님의 유혼을 받들자고 소중한 모든것을 뒤에 남긴채 생소한 이 땅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맥을 놓고있는가. 왜, 왜?)

학순은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순간이나마 맥을 놓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주스러웠다. 헛간에서 질통이며 곡괭이며 삽들을 와락와락 걷어지고 《한세동》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미끄럼놀이 하느라고 눈을 다져놓아 언덕길이 얼음판처럼 미끄러웠고 서너번째 흠집부터는 다리까지 후들 후들 떨렸지만 입술을 깨물며 곡괭이를 휘두르고 질통에 넘치도록 흙을 저날랐다. 혼자서라도 다문 한줌이라도 이 땅에 흙을 더 깔고싶었다. 몇번이고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이를 사려물고 일어났다. 아버지의 말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다.

《난... 믿는다. 농촌에 나가서도 로동계급답게...》

영숙이가 하던 말도 가슴을 친다.

《농촌에 나가서도... 나갈 때처럼... 강하게...》

눈보라가 휘유우 몰아쳐온다. 학순은 또다시 넘어졌다. 영치가 얼얼하고 온몸이 들쭉였다. 얼음판우이지만 그대로 한정없이 누워있고싶었다.

그러나 학순은 또다시 악을쓰며 일어났다.

그래, ...다른 사람은 다 주저앉는다 해도 나만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설사 이대로 흙에 깔려 죽는다 해도 나만은... 나만은...

## 5

학순이가 밤마다 불일이 있어 나간다길래 그저 그런가부다 생각했던 《한세동집》은 쉬는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모든것을 다 알게 되었다. 옆집 철이가 썰매를 안고 들어오며 《공장삼촌 저기 <한세동>에서 혼자 흠나른다.》 하고 알려주었던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한생토록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은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발편잠을 자고 농장에 나온지 몇달 안되어 아직도 《공장총각》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밤마다 눈보라를 맞으며 흙집을 진것이다. 작업공구는 저리 《한세동》에 두고다니는 모양이었다.

《한세동집》은 들로 나가려다말고 책 돌아서서 작업반실로 향했다. 좀전에 작업반실 텔레비존앞에 앉아있는 태범반장을 본 생각이 났던것이다.

큰 도로에서 상점앞으로 빠스가 굴러들어와 멎어섰다. 여느때같으면 행여나해서 내리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았겠지만 오늘은 그럴 경향도 없었다.

홍취가 나서 새로 나온 영화를 보다가 끌려나온 태범반장은 병병해서 눈만 디룩거렸다.

《아 이거 왜 이러시우.》

《가자구. 어서. 내 보여줄게 있어.》

격해진 《한세동집》은 무작정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작업반실앞에서 수탉 두마리가 서로 노려보며 싸우려다가 그 서슬에 놀란듯 푸드득 풍겨 달아났다.

《자, 이거 소똥 밟겠수다.》

《밟으면 어땀가? 소똥 밟으면 채수 든다는데... 걸기나 하라구.》

《아 글썽 가더라도 사연을 좀 알고가야지...》

《한세동집》은 그 소리를 듣자 그만 목이 꺾 메어올라 태범반장의 손을 탁 뿌리쳤다.

《공장총각이 지금 《한세동》에 나가 혼자 흙잡이를 하고있단 말일세. 임자들이 다 이렇게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으니까 제혼자 밤마다 나가서...》

《한세동집》의 목소리가 갑자기 확 흐려졌다.

《그 사람들 무슨 무쇠덩이라구... 매일 그러겠나 응? 누가 진짜주인이야...》

멍하니 《한세동집》을 쳐다보던 반장이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렇다구 힘내기로야 어떻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닌가. 다들 그 사람처럼만 생각하구 그 사람처럼만 편다면야 방도가 왜...》

《한세동집》은 반장이 말에 신경을 쓰는것이 아니라 자기 어깨너머를 쳐다보며 눈을 껌벅거리는 바람에 화가 나서 《임잔 그저...》 하며 뒤를 흘깃 돌아보았다.

순간 《한세동집》도 입을 반쯤 벌린채 그대로 굳어지고말았다. 서너걸음 뒤에 파란 솜옷을 입고 흰목도리를 두른 처녀가 얼굴을 숙이고 서있었던것이다. 밤색 들가방을 들고 까만 구두끝으로 눈덮인 길바닥을 호비작거리고있는 처녀는 뜻밖에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영숙이었다.

가득이나 격해있던 때에 그가 찾아온것을 보아서인지 《한세동집》은 갑자기 눈물이 쭉 나왔다.

《한세동집》은 얼른 다가가 처녀의 손을 꼭 잡아쥐고는 고개를 외로 돌린채 코물은 마시며 목

메인 소리를 했다.

《임자가 왔구만. 임자가... 어 좀전에 고추가루를 붓았더니... 눈이 쓰리구만. 이 사람 반장, 이 처녀가 바로 공장총각 애인이라네. 그 사람 애인 이야...》

《한세동집》은 자꾸만 눈을 습벅거렸다. 처녀가 고마왔다. 아무렴 우리 총각이 어떤 사람이라구 안따라온단 말인가. 차라리 잘된 셈이었다. 이 처녀에게도, 반장에게도 다 보여주고싶었다. 우리 총각이, 공장총각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 어서 가자구. 공장총각은 저기에 있네. 저기 《한세동》에... 자 반장두 어서 따라오라구...》 영숙은 손을 말긴채 고개를 숙이고 따라걸었다.

얼굴을 붉힌채 말없이 따라건다가 이윽해서야 젖은 음성으로 조용조용 입을 열었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전 어머니가 그때 사과구력을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학순동무네 집에 가서야 어머니가 왜 날 그리로 보냈는지 깨달았어요. 학순동무가 어떻게 되어 농촌에 나오게 되였는가를 알구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전 그 말을 똥으로만 생각했으니... 그때에야 전 지금이 이렇게 살 때가 아니란걸 그리구 학순동무가 말도 없이 훌 나갔다고 노여움을 쓰면서 자존심이 나 생각할 때가 아니란걸...》

《됐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길이 미끄럽네. 애들이 얼마나 닦아놓았는지 원...》

상점뒤 언덕에서 《한세동》으로 난 눈길에는 점점이 흙덩어리들이 떨어져있었다. 공장총각이 흙집을 저나르면서 흘린 흙부스레기들 같았다.

그것을 보니 《한세동집》은 또다시 코허리가 시큰했다. 그 흙부스레기들은 눈속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슴속에 떨어져내려 밤송이처럼 찌르며 굴러다니는듯했다.

바로 그때 언덕꼭에서 《아이쿠》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쳐다보니 뜻밖에도 흙집을 가득진 학순이가 엉덩방아를 찼은채 쏙살같이 미끄러져내려왔다. 얼마나 지쳤는지 몸도 가누지 못했다.

《아이쿠, 저걸 어찌나. 저런 저런...》

《한세동집》은 영숙의 손을 놓고 황황히 달려가 학순의 손을 잡아 일켜세웠다.

《이사람, 어디 다치진 않았나! 잉...다들 쉬는데 임잔 어찌자구 매일 이렇게》

그러나 《한세동집》은 말을 더 잊지 못하고 흠칫 굳어지며 눈을 크게 떴다. 이상하게도 학순이가 우뚝 선채 자기 어깨너머로 어딘가 뚫어지게 쳐다보고있었기때문이었다. 수척해진 두볼, 가쁜 숨소리,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땀에 뜬 얼굴...

《한세동집》은 의아해서 그가 보는쪽을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눈보라만 휘몰려다니는 허공이었다. 《한세동집》은 갑자기 목이 꼭 감겨들어 떠듬떠듬 겨우 입을 열었다.

《왜 그러나 응? 자 누가 왔나 보라구, 응...》

## 6

어제아침 마을길을 쓸던 학순은 갑자기 누구인가 어깨를 툭 치는바람에 놀라 얼굴을 들었다. 왜서인지 순돌이가 눈이 둥그래서 마주보며 서있었다.

《학순동무,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그제야 학순은 자기가 지금껏 제생각에 음하여 길옆 박우물 (말하기 좋아하는 녀인들이 자주 모여 빨래를 하는곳이었다.)에 대고 비질을 하고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제 저녁에는 간장을 국에 친다는것이 국을 떠서 김치그릇에 두어 《한세동집》을 아연케 했다.

그러나 학순은 한순간도 《한세동》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방도를 찾아야 했다.

오늘은 쉬는날이어서 어제밤보다 세금은 흙을 더 갈수 있을것 같았다. 흙집을 지고 얼음판우를 조심조심 걸으면서 동화에 나오는 거인처럼 이 언덕을 통채로 한삽에 푹 떠낼수는 없을까? 간석지 건설장에서처럼 날림발과는 안될가 하고 생각에 움뻐다가 그만 얼음길에 쿵하고 넘어지고말았다. 이번에는 엉덩방아를 찧은채 그대로 줄줄 미끄러져내려갔다. 힘들어서 일어나기도 싫었다. 차라리 힘안들이고 밑에까지 내려갈수 있으니 더 좋았다. 이제부턴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미끄러져내려갈가? 그런데 엉치가 아파서... 무얼 밑에 깎다면... 썰매? 발구?

그 순간 무엇인가 섬광처럼 뇌리를 번쩍 스치며 지나갔다. 가만 있자. 발구... 얼음길...

(《한세동집》이랑 영숙이네들이 도착한것은 바로 이때였다.)

누구인가 자기를 일깨워줬지만 학순은 시끄러웠다. 머리속에서는 뇌수가 맹렬한 계산을 진행하고 있었다. 양수기, 얼음길... 흙발구는 저절로 내려갈것이다. 그러니 한번에 수십톤도 문제없다.

흙은... 흙원천은...

학순의 가슴은 견잡을수 없이 세차게 고동쳤다.

학순은 그제서야 앞에 《한세동집》이 서있는것을 보고 환희에 차서 그의 손을 막 잡아흔들었다.

《어머니, 됐어요. 이젠 〈한세동〉 흙깔이 됐어요.》

《임잔 그제 흙깔이 흙깔이... 자 저기나 좀 보라구, 누가 왔는가를 말아야...》

《한세동집》이 코멘소리를 하며 뒤를 가리켰다. 한껏 흥분했던 학순은 그제야 그의 뒤에 서있는 사람을 보고 몸을 흠뻑했다. 믿어지지 않아 몇번 눈을 껌벅거렸다. 뜻밖에도 영숙이가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어깨를 떨며 울고있었던것이

다.

이제 웬일인가. 이 처녀가 정말 영숙이가 옳단 말인가.

놀라움과 의혹의 물결이 얼핏 뇌리를 스쳐지나가자 갑자기 심장이 푹 멎는것만 같더니 뒤이어 반가움과 기쁨의 파도가 옥 밀려들어 쿵쿵 흥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아, 영숙이, 영숙이가 나를 찾아왔구나.

학순은 환희와 기쁨으로 들뛰는 가슴을 어찌할수가 없어 《영숙이!》 하며 처녀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가슴가득 차오르는 불물같은것을 어떻게 터쳐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손만 잡아흔들다가 한다는 말이 왕청같은 소리를 했다.

《영숙이, 그대 동무생각엔 어떻소. 저 양수기로 물을 퍼서 언덕에서 저 〈한세동〉까지 얼음길을 만든단 말이요. 그러면 발구가 제철로 미끄러져 내려갈게거든. 그다음 저밑에서 트랙토르가 사슬을 차구 발구를 끌면 한번에 수십톤도 문제없을거요. 그러면 농장 트랙토르만 가지구두 얼마든지...》

아니 그것은 왕청같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영숙에게 가장 반가운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세동집》이 축축히 젖은 눈길로 반장을 돌아보았다.

《어편가? 임자 생각엔?...》

《글쎄요. 기발하긴 한데... 얼음길을 만들자면... 지금은 물이 얼어서 양수기가...》

《물이 얼었다구요?》

학순은 천천히 반장에게로 돌아섰다. 순간에 흥분이 가라앉으며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들었다.

정말 그렇다면... 더는 방법이 없단 말인가. 태범반장을 뽕망스레 쳐다보던 학순은 입술을 꼭 깨물며 씨익씨익 양수장취수구쪽으로 걸어갔다. 아까 철이랑 썰매타러 갔다가 뿌직소리가 난다면서 돌아서던 생각이 났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물길에 들어서자마자 쾅하며 얼음이 꺼져내렸다. 순간 학순은 가슴이 터질듯한 흥분을 느꼈다.

찬바람이 휘유우 몸을 휘감았지만 학순은 추운것도 느끼지 못하고 침범침범 허리를 치는 얼음장을 헤가르며 걸어가다가 두손으로 물을 한웅큼 떠올렸다. 그리고는 반장을 향해 돌아섰다.

《반장동무, 이래두 안되겠습니까? 이래두?...》

움켜쥔 두손사이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며 햇빛에 반짝거렸다. 반장이 기겁해서 물에 뛰어들었다.

《됐소, 됐다니까. 어서 나오우. 어서...》

...불... 모닥불이 타오르고있었다. 태범반장이며 《한세동집》이 학순이가 발을 얼구겠다고 서둘러 나무쪼각들을 주어모아 피운 불이었다. 그리고는 우정 자리를 피한듯 삭정이들을 또 주어 오겠다고 떠나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까부터 나무쪼챙이로 불무지만 쭈시던 학순

은 문득 옆집 철이의 칭찬속에 들어가버린 《편지》가 생각나서 어쭙게 웃었다.

《정말 안됐소. 편지도 한장 보내지 못해서…》

너울너울 타오르는 불길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던 영숙이가 얼굴을 붉히며 눈길을 떨구었다.

《전… 다 받았어요. 열한장을 다…》

학순은 놀라서 영숙을 돌아보았다.

《그건 무슨 말이요? 난 한장도 안보냈는데…》

영숙은 품속에서 두툼한 종이봉지를 꺼냈다. 학순은 의아해서 그 종이봉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놀랍게도 그것은 영숙에게 쓰다 만 바로 그 《편지》들이었던것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합숙어머니가 가져왔더군요.》

학순은 눈을 더 크게 떴다.

《합숙어머니라니? 아니 우리 어머니말이요?》

《그래요. 몇번씩이나 찾아와 동무얘길 다 해주었어요. 이 편지들을 가지고와서는 동무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구 하면서… 수령님 유훈을 받들자구 아굴타굴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하게 만드는가구 안타까이 말하더군요. 같이 나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구…》

학순은 불시에 눈시울이 젖어오고 가슴이 몽클해져서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었다. 어머니두 참… 내가 내가 뭐라구…

이 시각 《한세동집》은 반장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다가 학순을 찾아나오는 순돌이와 마주쳤다.

《어머니, 공장총각이 지금 〈한세동〉에서 일한다는게 사실이에요?》

《한세동집》은 대답대신 눈만 똑 부릅떴다.

《이녀석, 농장에 온지가 언제길래 아직두 〈공장총각〉이야. 이젠 〈농장총각〉이라 부르라구…》

《체… 온 나라가 로동계급화하자는데… 어머니…》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세동집》을 돌아보았다.

《웁수다. 〈공장총각〉이란 말이 얼마나 좋수. 아마 그 사람은 앞으루두 계속 그렇게 부르게 될거우다.》

듣고보니 《한세동집》도 그럴듯해서 흐뭇한 눈길로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하얗게 깔린 들판에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그 불이 자기 가슴속으로 옮겨온듯 속이 후터워짐을 느끼며 《한세동집》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긴 그래. 이젠 꽃같은 그 처녀까지 왔으니 우리 마을은 또 얼마나 희한해질텐가?》

반장도 순돌이도 뜨거운 눈길로 모닥불이 타오르는곳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불은 그들의 가슴속에서도 서서히 타오르고있었다.

## 나의 한생은

김용희

생활은 예대로 흘러  
내 집 창가에도 꽃은 계속 피고  
세월은 흘러  
이제는 내 머리도 희여가건만

애젊은 시절 총대를 틀어쥐고  
전호가에 살던 그때처럼  
오늘도 마음은  
그때처럼 그때처럼  
결전의 출발선에 서있노라

그날의 파력은  
오늘도 눈앞에 변하지 않고  
그날처럼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 행복을 노리는 원쑤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있기에

폭발직전의 폭탄처럼  
이 심장은 뼉다  
서빨리 불질만 걸어와도  
보복의 천만불길 내뿜을  
서리발 총창을  
마음은 한시도 놓은적 없도라

례사로운 날  
행복의 창가에 노래가 흘러도  
늦출수 없는 마음  
이 심장이 언제나  
나의 넋을 흔들어 깨우쳐주는 그 의미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동생과 누나  
나의 한점 혈육없이 다 학살한  
그 원쑤에게 안길 복수로  
내 생의 순간은 이어지나니

이 가슴에  
복수의 심장이 뛰여  
한시도 안일에 젖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언제나 전호가에 나를 세워  
어느때든 신들메 아니 늦춘  
출발선에 서있나니

그 심장  
그 마음에  
언제나 복수의 총탄을 재우고  
이 한몸 장군님을 위해  
불이 되고 폭탄이 될  
결사의 출발선에서 내 생은 흐르노라

## 전호가의 아침 외 1 편

한길초

어느새 날이 밝아  
내 전호를 나서니  
이슬을 머금고 활짝 핀 철쭉꽃  
새날을 반기는 산새의 우짇음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행복의 노래소리  
아 얼마나 좋은것인가  
조국을 지켜 병사가 맞는  
이런 아침은,

물어보자 철쭉꽃아  
누구를 반기려고  
이 아침 송이송이  
전호가에 피었느냐

방긋이 웃으며 풍기는 진한 그 향기는  
이 땅을 한가슴에 안고 밤을 지새운  
이 병사에게 보내는  
어머니조국의 그윽한 미소가 아니냐

해빛넘치는 이 아침  
가슴가득 차오르는 수호자의 보람이여  
충전 병사의 생애  
언제나 새로운 조국의 아침이여

이런 기쁨속에  
청춘을 바쳐가는 병사의 행복  
병사가 지새운 수호의 밤이 있어  
환희로이 밝아오고 밝아오는 아침이 있고  
병사의 위훈속에 이어지는  
이 땅의 행복한 세월도 있나니

아, 전호가의 아침  
병사의 가슴 부푸는 이런 순간이면  
조국의 성새, 방패로 한몸 바친  
총잡은 청춘의 자격으로 또다시 약속하는  
영원한 조국의 새 아침이 있어라

## 고향에 부치는 노래

달밝은 행군의 휴식참에  
배낭에 기대여 비스듬히 누우니  
어데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노래소리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는 저 노래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는 거 절절함

눈앞에 떠올라라  
초소로 떠나는 이 아들을 바래우며  
오래오래 동구길에 서있던  
어머니 그 모습

못잊어라  
배나무집 막내가 군대로 간다고  
온 마을이 떨쳐나와  
손 흔들던 정다운 얼굴들

아 언제나 마을 달려가는

그리운 고향  
언제나 못잊어 그려보는  
내 고향의 정든 사람들

나서자란 고향이라고  
허물없는 제 집이라고  
내 어이 빈가슴으로야  
떠나온 동구길로 선뜻 들어설수 있으랴

이 가슴팍에  
하나의 작은 훈장이라도 빛난다면  
얼마나 무겁게 쓰다듬어줄것인가 어머니는,  
얼마나 대견히 안아줄것인가  
혈육같은 우리 이웃들은,

오, 승리한 전사로  
위훈이 빛나는 훈장을 가득 달고  
내 고향의 동구길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이 노래는 내 가슴에 아니 울리는 날 없으리  
조국을 위해 사는 나의 이 가슴에

# 나는 무산자의 아들이었다

주정웅

오! 내 정녕 무산자의 아들인가?...  
성실한 로동이 멸시당하던 그 세월  
가진것이란 부르친 주먹뿐이던 무산자!-  
그 아버지의 아들인가!

꽃향기 싱그러운 모란봉기슭  
30층아파트 하늘같은 나의 집 로대에서  
놀라워 놀라워 스스로 묻노니  
-내 무산자의 아들이었던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것이란  
머슴군-  
그것이 전부였나니

아! 몸서리쳐진다  
살점을 가리운 누데기에 싸여  
지주집 대문밖에 쫓기우던  
거지아이- 나!

쫓기우던 대문가의 쪽박에는  
비가 내려 고였던가  
눈물이 방울방울 얼어서 얼어서  
얼어붙은 얼음버캐...

뒤축이 물앓은 커다란 아버지 짚신에  
뼈같은 몸을 실은 가공한 정상아  
너와 나는 오래전에  
인연을 끊은 사이

보아라! 오늘 나의 아들딸  
웃으며 떠들며 나에게 마주오나니-  
끝없는 기쁨에 겨워 행복에 싸여  
세상천지에 부러운것 없어!...

오오!

나는 무산자의 아들이었으나  
나의 아들딸은 이미  
무산자의 자식이 아니다!

몸에 두른 비단과 천정 높은 집  
즐거운 식탁에 넘치는 웃음과  
아침마다 기다려주는 정다운 일터와  
반기며 맞아주는 대학의 높은 창가와...

나날이 늘어나는 그 모든것  
나의것이고 아들딸의것이니  
내 바친 로동의 대가로만 이룬것인가?  
하다면 내 이 노래 무엇하러 지으랴!...

나의 아버지도 뼈를 깎는 로동을 바쳤나니  
대가로 나에게 무엇이 차례졌던가  
굶주려 병든 어린 동생의 작은 시체여  
팔려가던 누나의 긴 머리태여  
땅을 허비던 어머니 목신 통곡소리여...  
오오! 조국이 없던 설움이 아니던가

그러나 오늘 조국이며, 나의 조국이며  
그대는 나에게 세상 온갖것 다 주어  
무산자의 아들이던 흔적은  
자서전의 글줄에만 남아있나니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의 아들딸 무슨 수로  
무산자의 자식이기를 면했을것인가  
오! 면치 못했을 떼거지

조국이며, 사회주의조국이며  
그때문에 내 오늘  
나의 피같은 이 노래를 지어  
그대의 덕에 감사드리노라!

# 나는 병사출신의 당원이다

최정용

엄숙한 당의 부름안고  
이 하루도 금골의 막장길 걷노라니  
못잊어 돌이켜져라  
군복입은 가슴에 당원증을 품고  
초소로 돌아오던 영광의 그날이

그렇다 나는  
병사시절에 당원이 되었다  
최전연 전호가에서  
허리에 전투장구류들을 그대로 두른채  
군복입은 당원들앞에서  
입당청원서를 읽었었다

때없이 당원증을 끌어만지며  
가슴에 피가 끓던 그 시절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내 그 무엇을 서슴었던가  
천리행군길이면 그 척후에  
총장 비껴든 돌격선이면 그 앞자리에  
언제나 당원 내가 서있었거니

그것이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인 나  
착암기를 잡고 막장에 선 오늘에도  
나는 살지 못한다  
그날의 그 군인정신을 떠나  
그날의 그 전투정신을 떠나

그렇다 나는  
그날의 그 심장으로 받아안았다

당창건 50 닻을 맞는 이해에  
총진군으로 부르는  
당중앙위원회의 구호를  
돌격으로 부르던  
병사시절의 전투명령처럼

대진군의 앞장에  
당은 우리들을 세워주셨거니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인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랴  
내 병사시절과 다름없이  
앞장서 돌파구를 열리라  
우리 당의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그 최전선에서 승리자의 기상 펼쳐가리라

우리 당을 옹위해가던  
그날의 총대처럼 착암기를 틀어잡은  
내 심장의 고동은 높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 다 바쳐갈  
불같은 맹세에서 시작된 위훈에 받들려  
이 땅의 기념비들은 더 높이 솟아오르리라

그렇다  
나는 당의 부름을  
명령으로 아는 사람  
그 하나의 복무정신을 떠나  
달리는 살줄 모르는 검덕의 광부  
아, 나는 병사출신의 당원이다